



4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4호

(루계 제738호)

차례

만경대	4
잠 못 드는 평양의 마음	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중국동북지방에서 창작된 시, 가사작품-	5
경구,격언	7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격찬한 전인민적송가	8
나무 한그루의 가치	14
뜻깊은 아침형상에 비낀 위인의 한생	15
주체문학의 대강	16
취나물이야기	17
오 만경대	17
영 원	18
어머님 지피신 불	26
명가사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시인	27
학문과 관련한 몇가지 말	28
선군시대 사회미학적리상과 진달래의 서정	29
그 냇을 이어가리	34
만경대에 오르며	34

집단부락에서의 대담한 정치공작.....	45
백두의 메아리	46
딸애의 물음앞에서	47
나의 두손으로 바친것은	48
강선의 붉은 노을.....	49
오, 강선이어	50
나는 강선사람이다.....	51
쇠물입니다	52
용해장의 《긴급지령》	53
쇠물은 무엇으로 끓는가	53
강철공업의 정수—초고전력전기로.....	54
쇠물꽃향기	55
잠이 잘 오게 하는 음식물	55
불을 다스리는 처녀	56
바쁜 출근길	57
날과 달에 대한 생각.....	58
수수께끼라는 말의 의미	59
숲속의 나무 한그루	60
아버지의 당부 (외1편).....	72
인간의 가치	72
콩크리트잠수함	73
1940년대 전반기 김사량소설의 주제사상적 특성	74
가짜눈	75
시인 박아지와 시집 《종다리》	76
심장병발작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78
농사	78
화가와 평론가.....	78
세계탐정문학의 발생발전.....	79
닭알료리 및 가공방법	79
대성산성	80

만경대

리광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그대의 기슭에서 울린다
가장 부드러운 바람결이
그대의 산허리를 감돌고있다.

뜨거운 마음을 안은 경건한 자육자육들이
그대의 언덕에서 꽃으로 피고
밤이면 다정한 별들이
그대의 초가지붕우로 고요히 내린다

가장 깨끗한 심정들이
그대의 사립문을 쓰다듬으며 목메이고있다
가장 시련에 찬 민족들이
그대의 목소리 들으며 동트는 새날을 맞는다

순종에 찢기고 열풍에 타던 가슴들이
그대의 품에서 다시 소생되고
파도 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가는 열혈투사들이

그대를 우리러 고향의 어머니라 부른다

가장 간고한 혁명의 길 여기서 시작되었다
가장 영광에 찬 력사 여기서 빛난다
인류의 봄 꽃피우는 주체의 뿌리 여기 내리고
세기를 깨우는 력사의 종소리 여기서 울린다

오, 혁명의 태양 솟아오른 만경대!
그대는 만리대공에 붉은 노을 펼치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 높이
모시고
인류의 리상봉우에
혁명의 집으로 찬란히 솟아있구나

만경대!
만경대!

주체64(1975)

가사

잠 못 드는 평양의 마음

민항숙

어제도 방방곡곡 온 나라 돌보시며
삼태성 기운 밤에 돌아오신 장군님
강성대국 봄노을 이 땅우에 꽃피우시려
동트는 이른새벽 또다시 떠나십니다

앞에는 굽이굽이 아득한 전선길
뒤에는 다녀오실 복변의 철의 기지
험한 령 눈비길을 장군님은 헤치시며
부강조국 설계도를 끝없이 펼치십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락원의 창가마다
행복의 웃음속에 불빛이 흐릅니다
내 나라의 새벽문 제일 먼저 여시는분
오늘은 저녁문을 그 언제 닫으렵니까

천리 먼길 떠나계신 장군님 우리르며
아 평양은 이밤도 잠 못 듭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력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한테서 우리 나라의 망국사를 들은 다음부터 봉건통치배들을 몹시 원망하였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력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칭송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 중국동북지방에서 창작된 시, 가사작품-

김장군은 영웅호걸

대소한간 동지선탈
단별웃을 입었어도
눈우에서 숙식하며
신출귀몰 싸운다네

가슴속에 열화품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들을 죽치노니
김장군은 영웅호걸

(안도현 송강진)

도토리묵

동산의 도토리를
두세섬 따고따고
서산의 도토리
두세섬 따고따서
앞내에 불कु어서
뒤내에 불कु어서
도토리묵 하여보세
아버님 먼저먼저
어머님 먼저먼저
랑군님 먼저먼저
선참으로 보내가세

구국영웅 장군님께
선참으로 대접하세

(안도현 내두산촌)

장군님 부르신다

꿈을 깨라 꿈을 깨라
반만년꿈 웬말이나
동창이 밝아온다
자리차고 일어나라

3천만 내 동포야
늦잠이 웬말이나
김장군님 부르신다
구국전에 뛰어들자

(길림성 돈화현)

장군님유격대

파랏파랏 봄풀은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요
압박착취받는 백성들은
유격대 오기만 기다린다네

뒤동산의 딱따구리는
나무의 벌레만 잘 잡구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유격대
왜놈의 대가리만 잘라낸다네

앞동산의 함박꽃은
실바람에 방긋방긋 웃고요
우리의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에게 웃음만 준다네

처마끝의 제비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구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는
언제나 백성들을 사랑한다네

(안도현 송강진)

봄나물 곱게 무쳐

원정했던 장군님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천리길을 주름잡아
우리 밀영 찾아왔네
때는 마침 회춘이라
산에 가득 좋은 나물
함뽕함뽕 캐여다가
씻고씻고 살짝 데쳐
소금간장 곱게 무쳐
장군님께 올려보자

※회춘—다시 돌아온 새봄

(안도현 신평촌)

물방아

물방아가 돌아가네
빙글빙글 돌아가네
한해농사 남김없이
출하로 앓아가니
짙을 쌀이 전혀 없어
빙글빙글 돌아가네
빈방아로 돌아가네

물방아가 돌아가네
빙글빙글 돌아가네
장군님이 오신다면
앗긴 곡식 도루 찾아
우리 먹게짚으려니
그때를랑 기다리라
빙글빙글 돌아가네

※출하—집을 내보내는 일,
여기서는 공출을 말함.

(안도현 내두산촌)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없는 몸은 언제든지 죽은 몸이나
이내 몸은 언제든지 없는 몸이나
불쌍한 우리 형제 전쟁터에서
있는 몸을 위하여 피를 흘렸다
죽어서 해골된 우리 부모는
있는 놈들때문에 굶어죽었다

아하 뼈저리고 피맺힌 이 원한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광부들은 팽이라도 메고 나오고
농민들은 호미라도 메고 나오라
부녀들은 식도라도 들고 나오고
나무꾼은 도끼라도 메고 나오라
산천이여 초목도 무장하여라
돌맹인들 어떻게 가만있으라

아하 뼈저리고 피맺힌 이 원한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안도현 송강진)

맺힌 가슴 다 풀리오

한해농사 일만 해도
빚만 가득 걸머지고
한해농사 뼈빠져도
초근목피 험난하니
우리 팔자 개팔자라
애탄통탄 하였더니
김장군님 그 말씀에
이 한가슴 다 풀리네
침략자를 물리치고
내 나라를 찾아야만
호의호식 잘산다는
그 말씀에 귀가 번쩍
맺힌 가슴 다 풀리오

(안도현 소사하 무주촌)

해방가

술개미 떠돌더니
병아리 간데가 없구요
김장군님 진군앞에
왜놈들 간 곳이 없구나
어랑어랑 어허야
어렵마 되여라
조선이 해방이로세

(안도현)

떡타령

이치저치 시루떡
늘어졌다 가래떡
오색가지 기지떡
콩콩 찢다 찰떡
수절과부 정절편
울깃쫄깃 송기떡
도리납작 송편떡
무득무득 담아라
올망태에 지어라
장군님이 계시는

백두밀영 떠나자
혁명군에 드리자

(안도현 내두산촌)

매돌노래

동글동글 돌리소
어서어서 돌리소
통은 덜덜 노래하고
구름이 뭉게 피오

자꾸자꾸 돌리소
이 쿵 저 쿵 다 같아
모두부도 안치고
두부장도 지지소

이제이제 해 지면
김장군님 이끄시는
유격대들 오신다오
우리 마을 오신다오

(안도현 소사하 무주촌)

까 치

아침부터 짹짹
동구밖 나무우에
까치가 운다

애들아 말하라
우는 까치 아니라
기쁜 소식 전한단다

오늘도 짹짹
김장군님 승전소식
전해주는 노래란다

(길림성 투도구촌)

조선인민혁명군

물 떠나 고기는 살수 없으며
인민 떠나 군대는 있을수 없네

인민의 바늘 한개 한오리 실도
한알 쌀 한조각 형겉이라도
범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일심으로 조국해방 위해 싸우는
김장군님 령도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안도현 송강진)

△시조작품

산첩첩 천봉에도 높고낮음 짐작있고
해망망 만리라도 깊고열음 짐작건만
김신장 반일구국 은혜은공 비길손가

※천봉—천개의 봉우리
해망망—넓고넓은 큰 바다
김신장—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신령스러운 장군으로 높이이른 말.

×

이 몸이 죽어지면 무엇이 될고하니
백두령 갈피갈피 줄기찬 샘이 되어
장군님 혁명병의 생명수 되고지고

×

창피에 화초 심고 화단밑에 술을 빚어
술익자 꽃도 피고 발자취에 달돋는다
아희야 술걸러라 빛은 술로장사맞자

※창피—창밖의 언덕. 여기서는 창
문밖 프락을 말함.
장사—여기서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말함.

×

심곡은 험준하고 수목은 층잡한데
광풍이 불어치고 까마귀떼 까옥까옥
떼무리 죽은 장졸 일장기만 너털너털

(안도현 송강진 복도천)

경구, 격언

- 작가가 되자면 재치이상의것을 가져야 한다
- 글을 많이 써서 좋은것이 아니라 잘 써야 한다
- 문체는 사상의 옷이다
- 스승으로 우러러보는 사람은 친부모보다 더 존중하여야 한다
- 열가운데서 셋은 스승에게서 배우지만 일곱

- 은 스스로 공부해서 안다
- 가르치고 배우는데는 특별한 비결이 없으니 항상 부지런하면 된다
- 모르는것이 부끄러운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는것이 부끄럽다
- 남을 배워주면서 절반은 자기가 배운다

항일의 전설적영웅을 격찬한 전인민적송가

-새로 발굴된 항일혁명투쟁시기 시가작품에 대하여-

서재경

최근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창작보급되었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마음이 뜨겁게 어려있는 17편의 시가작품들을 새로 발굴하여 내놓았다.

지난 주체96(2007)년 태양절에 즈음하여 발표된 수십편의 항일혁명투쟁시기 시가작품들이 왕청, 훈춘, 남호두, 연길, 화전, 길림 등 중국 동북지방과 압록강연안을 비롯한 광활한 지역들에서 수집된것들이라면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시가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족의 태양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유서깊은 력사의 땅, 안도에서 수집된것들이다.

우리 동포 한입 건너 두입 건너 희망에 넘쳐있던 이 시가작품들에는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일제원췌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내리며 승리만을 새겨온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치군사적위력 그리고 인민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원군기풍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으며 수령님을 조국해방의 구성으로 우러러모신 긍지와 환희로 들끓던 전인민적감정이 진실하게 표현되어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은 우리 주체문학예술의 고귀한 전통인 항일혁명문학예술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기치높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나가기 위한 총공격전을 벌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다.

×

력사는 자기 민족을 불행과 재난, 멸망의 위기로부터 건져낸 위인을 민족적영웅, 민족의 구원자로 기록하고있다. 민족적영웅, 민족의 구원자는 그 민족의 존재와 더불어 영원히 기억되며 송가로 레찬된다.

인민의 마음의 정화인 위인송가야말로 위인에 대한 가장 열렬한 흠모의 분출이며 최고의 경의, 최대의 지성의 메아리이다. 천만심장의 언어이고 울림인 송가로 칭송되는 위인이야말로 력사가 알고 인민이 흠모하는 위인중의 위인이라고 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자신의 위대하고

현신적인 한생으로써 읊어도 읊어도 다함이 없는 전인민적송가가 태어나도록 하신 만민의 태양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이시다.

세상에 우리 수령님처럼 칭송의 시가로 력사를 쓸만큼 많은 송가를 인민들로부터 받아안은 희세의 위인, 절세의 애국자는 없다.

그이께서는 10대의 나이에 벌써 타도제국주의, 민족해방의 기치를 높이 드시여 일제식민지통치 밑에 죽지 못해 살아가던 인민들에게 재생의 유일한 희망과 신념을 안겨주심으로써 인민들은 그이를 조선의 밤하늘에 높이 솟아 어두운 삼천리강산에 밝은 빛을 뿌리는 새벽이시라고 노래를 지어불렀으며 그이를 태양의 존함으로 호칭하였다.

그이께서는 또한 20대의 젊으신 나이에 무장에는 무장으로 라는 피끓는 호소로 백두산야에 전인민항전의 기치의 총검이 번쩍이게 하시고 《무적황군》을 자랑하는 일제백만대군과의 대결전에서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여 조국해방의 봄을 앞당겨 오심으로써 우리인민은 청년장군이신 **김일성** 동지를 《겨레의 구성》, 《혁명의 수령》, 《조선민중의 해님》, 《항일전의 대장군》으로 열렬히 칭송하는 시를 지어 읊으며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랐다. 이것은 우리의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자기발전의 첫 기슭에서부터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수령을 칭송한 훌륭한 작품들을 내놓은 긍지높은 문학예술임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은 세상에 태어난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수령관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았다.》

항일혁명문학예술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선 문학예술로 될수 있는것은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시고 수난 많던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신 경애하는 **김일성** 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와 인민에 대한 한없는 사랑이 있었기때문이며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민족의 태양으로, 통일단결의 중심으로 우러러 받든 항일혁명투사들과 인민들의 끝없는 충정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시가작품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시가작품들에 관통되어있는 사상적지향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심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흠모심이 수령님의 위대성, 다시말하여 사상과 령도, 덕망의 위대성, 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열렬한 매혹에서 우리나라온것임은 두말할것도 없다. 매혹된 심장이 터치는 걱정은 언제나 가식을 모르고 솔직하며 강렬한 법이다. 그렇기때문에 사상주제적과제가 다양하고 시적계기와 정황이 각이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작품들의 밑바탕에 맥맥히 흐르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 우리 수령님에 대한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기대, 다함없는 흠모의 감정정서는 티끌만 한 가식도 없는 더없이 순결하고 절절하며 소박한것이다.

이렇듯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시가작품들은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함으로써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을 격찬한 전인민적송가야말로 수령님과 우리인민을 하나의 숨결로 이어주는 고귀한 혈액이고 수령님을 따라가이어 조국해방을 성취하려는 우리 인민의 강렬한 지향의 분출이며 수령님께 드리는 천백마디의 맹세가 응축된 신념과 의리의 결정체임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이 또다시 만사람의 열렬한 관심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근본비결이 있으며 작품들이 세상에 나오지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에도 변치 않는 거대한 생명력을 가진 민족의 제일 재보로 되는 근거가 있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가운데서 항일대전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한 작품들은 특출한 자리를 차지한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 인민은 비운에 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건지시려고 백두의 험한 산발을 주름잡으시며 일제침략자들을 죽치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열화와 같은 흠모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있었으며 민족의 태양을 모신 환희와 기쁨,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항일전에 적극 펼쳐나섰다.

당시의 주도적인 사상감정과 강렬한 지향과 념원이 함축되어있는 소박하면서도 열정적인 시가작품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인민들의 뉘어들치는 환희와 기쁨,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 신뢰의 진실한 예술적반영이었다.

이러한 뜻깊고 의미있는 사상정서적내용을 담고있는 대표적인 시가작품으로는 《김장군은 영웅

호걸》을 들수있다.

시가작품 《김장군은 영웅호걸》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소한간 동지설달
단벌옷을 입었어도
눈우에서 숙식하며
신출귀몰 싸운다네

가슴속에 열화품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들을 죽치노니
김장군은 영웅호걸

우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간고하고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영웅호걸》로 격조높이 칭송하고있다.

예로부터 영웅은 용감하고 비범한 인물을 이르는 말이며 호걸이란 도량이 넓고 씩씩한 기상과 굽히지 않는 의지를 지닌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이 친근한 인민적부름말속에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흠모의 감정이 얼마나 깊이 어려여있는가.

우리 수령님을 옛말에서나 들어오던 영웅호걸에 비긴 이 존칭어들에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주고 우리 인민의 모든 소망과 념원을 실현시켜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희망과 기대만이 아닌 굳은 신념이 반영되어있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이 백두밀림에서 울려나오는 항일대전의 총포성소리를 듣거나 자기 마을에서 있는 전투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얻은 결론이기도 하였다. 《김장군은 영웅호걸》에는 이러한 당시 인민들의 축적되어온 체험이 비껴있으며 체험의 총화를 걸쳐 얻은 결론이 절절히 표현되어있다.

이 시가작품에서는 설한풍이 휘몰아치는 추운 겨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를 이끄시고 일제침략자들을 죽치는 통쾌한 장면을 눈앞의 정경처럼 선명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동지설달, 대소한의 강추위를 상상해보자.

내려와 쌓인 눈은 키를 넘고 눈보라가 기승을 부리는 혹한속에서 홀옻바람으로 숙식하시면서도 신출귀몰하는 《축지법》을 써가며 일제놈들과 싸운다는것은 보통상식으로서는 상상조차 할수 없다.

언젠가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버이수령님께 항일무장투쟁시기 식량과 피복, 잠자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령하 40도나 되는 혹한은 어떻게 이겨냈는가고 물은 일이 있었다.

그때 수령님께서서는 고난의 행군때의 일을 말해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행군의 간고성에 대하여 아무리 이야기해준다 해도 체험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실상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것이라고 감회깊이 말씀하시었다.

작품에서는 이 간고처절했던 항일전의 나날을 상기시켜주는듯싶다. 설한풍 휩쓰는 백두광야에서 과연 무슨 힘으로 신출귀몰하면서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의 백만대군을 백두의 장설속에 꺼꾸로 처박을수 있었는가.

시의 두번째 편에서는 이에 대하여 《가슴속에 열화품어》라는 여덟글자로 그에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다. 비록 몇글자에 지나지 않는 짧은 시행에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고난을 신념과 의지, 조국애, 민족애, 동지애의 열화로 이겨나가는 불굴의 정신력의 최강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위대한 품모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

일제침략자들을 쳐엎애지 않고서는 나라를 찾을수 없고 나라를 찾지 못하면 민족이 영원히 노예가 된다,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겨레를 구원하고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각오, 불굴의 이 정신력이 육체적, 물리적인계를 초월하는 기적을 남게 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시가에서는 가슴속에 열화품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왜놈들을 죽치시는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대해같은 도량과 비범한 의지력, 비상한 군사적지략에서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절세의 영웅호걸이시라고 격정을 터뜨리고있다.

작품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웅호걸》로 높이 우러러 칭송한것은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이끌어주실 유일한 구원자로 끝없이 믿고 따른 우리 인민들이 지니고있었던 사상감정과 열정의 분출에 대한 시적일반화로 된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만을 믿고 따르며 항일전에 적극 떨쳐나서려는 우리 인민들의 굳은 신념과 의지를 시적화폭에 담아 깊이있게 노래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우리인민들은 도란속에서 신음하는 조국과 겨레를 구원해주시려 백두광야에서 원썩격멸의 총성을 울려나가는 불세출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며 싸워나가려는 굳은 신념과 의지로 충만되어있었다. 이러한 력사적현실에 기초하여 **김일성**장군님만을 믿고 절대적으로 따르려는 당시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반영한 시가작품들이 훌륭히 창작되었다.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장군님 부르신다》, 《햇힌 가슴 다 풀리오》, 《물방아》 등 시가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만 믿고 따른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과 양양된 정신세계를 뜨겁게 노래

하면서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있게 부각시키고 있다.

시가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구체적인 체형세계에 대한 개방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만 믿고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없는 몸은 언제든지 죽는 몸이나
이내 몸은 언제든지 없는 몸이나
불쌍한 우리 형제 전쟁터에서
있는 놈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죽어서 해골된 우리 부모는
있는 놈들때문에 굶어죽었다

아하 뼈저리고 피맺힌 이 원한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광부들은 팽이라도 메고나오고
농민들은 호미라도 메고나오라
부너들은 식도라도 들고나오고
나무꾼은 도끼라도 메고나오라
산천이여 초목도 무장하여라
돌맹인들 어떻게 가만있으랴

아하 뼈저리고 피맺힌 이 원한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작품에서 보는바와 같이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수천수만의 인민대중을 기아와 빈궁, 무권리속에 몰아넣었으며 우리 인민은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었다. 이것은 그때 그 어디에 가나 목격할수 있는 참상이였으며 이 재난과 불행을 없애버리는 길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전에 참가하는 길밖에 없었다.

시가에서는 당시의 시대모습을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생동하게 보여주면서 뼈저리고 피맺힌 원한을 풀기 위하여서는 **김일성**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강도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항전에 결연히 일떠서야 한다는것을 서정적주인공의 양양된 감정세계의 개방을 통하여 힘있게 형상하였다. 또한 작품에서는 후련부분에서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를 강조해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른 우리 인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뚜렷이 부각시켜주고있다.

이러한 시적형상의 근거에는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항일혁명투쟁에 일떠설 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을수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이 강렬하게 흘러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따른 우리 인민의 이러한 사상정신세계와 지향은 시가 《장군님 부르신다》에서 더욱 특색있고 심오한 시형상으로 열정

적으로 노래되고있다.

꿈을 깨라 꿈을 깨라
반만년꿈 웬말이나
동창이 밝아온다
자리차고 일어나라

3천만 내 동포야
늦잠이 웬말이나
김장군님 부르신다
구국전에 뛰어들자

시가는 매우 간결하지만 독특하고 참신한 시적 형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이 도란에 빠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부동켜안고 슬픔에 잠겨있던 당시의 시대모습과 일제를 반대하는 진민항쟁으로 힘있게 부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항일전에 과감히 뛰어들려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지향과 결의를 생동하고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참으로 깊은 여운을 주고있다.

특히 작품에서 《동창이 밝아온다》라는 시적 표현은 천만대적을 좌락좌락하시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시는 김일성장군님에 의하여 조국해방의 새날이 다가온다는것을 상징적으로 뜻깊게 밝혀주면서 형상의 철학적 의미를 더욱 승화시키고있다.

시가 《맏힌 가슴 다 풀리오》, 《물방아》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만을 믿고 따른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강렬하게 흘러넘치고있다.

《맏힌 가슴 다 풀리오》에서는 일제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야만 잘살수 있다는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에 맏힌 가슴이 다 풀리게 되었다는 시적형상을 통하여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철석같은 믿음과 기대가 감명깊게 노래되고있으며 《물방아》에서도 일제의 수탈에 의하여 한해 농사지는 난알을 모조리 빼앗기고 빈 방아를 돌리지만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시면 빼앗겼던 곡식을 모두 찾아 쌀을 찧을수 있다고 노래하면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절대적인 믿음을 시적화폭에 담아 절절하게 토로하고있다. 이처럼 우리 인민들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뜨겁게 굽이치는 혁명적시가작품들은 한결같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데로 지향되고있는것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였으며 그들을 일제의 살벌한 폭압과 학정밑에서도 앞날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항일전에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었다.

새로 발굴한 시가작품들은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찬양과 기대를

생동하고 진실한 시적화폭에 담아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는 전투에서 불패의 위용을 떨치였으며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나가는 그 간고한 나날에도 언제나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친혈육처럼 정이 들고 믿음이 가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희망과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현실로 꽃피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경모심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인민혁명군》, 《장군님유격대》, 《해방가》, 《까치》 등 시가작품들에서는 이러한 력사적현실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기대와 신뢰의 사상감정과 정서를 생화적인 화폭에 담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조선인민혁명군》에서는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것을 철저히 보호하며 오직 일심으로 조국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정신도덕적풍모를 진실하게 펼쳐보이면서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물떠나 고기는 살수 없으며
인민떠나 군대는 있을수 없네
인민의 바늘 한개 한오리 실도
한알 쌀 한조각 형절이라도
범하거나 손해를 끼치지 않고

일심으로 조국해방 위해 싸우는
김장군님 령도하는 조선인민혁명군

작품에서는 우리 인민들이 실생활을 통하여 뜨겁게 체험하였던 실재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인민의 군대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애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조국해방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참모습을 시적화폭에 담아 열렬히 찬양하고있다.

시가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좌우명으로 삼고 항일전의 전기간 인민의 리익을 지켜 싸우던 조선인민혁명군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굽이치고있으며 그러한 참다운 군대를 가진 우리 인민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 찬양의 정서가 정서적으로 습배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찬양의 열정은 《장군님유격대》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파릇파릇 봄풀은

봄비 오기만 기다리고요
압박착취받는 백성들은
유격대 오기만 기다린다네

뒤동산의 딱따구리는
나무의 벌레만 잘 잡구요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유격대
왜놈의 대가리만 잘라낸다네

앞동산의 함박꽃은실바람에 방긋방긋 웃고요
우리의 유격대원들은
인민들에게 웃음만 준다네

차마끝의 제비는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구요
김일성장군님의 유격대는
언제나 백성들을 사랑한다네

보는바와 같이 시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찬양의 열정이 자연의 서정적화폭과의 대비속에서 생활적으로 생동하게 표현되고있다.

작품에서는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친숙해진 《봄꽃》, 《봄비》, 《앞동산의 함박꽃》, 《제비》 등 여러 자연현상들에 의탁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용을 찬양하고있을뿐아니라 언제나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들을 손꼽아 기다리며 락관적으로 살아가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밝고 희망찬 정서를 통하여 강조해줌으로써 인민들과 혈연적으로 맺어진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높은 기대를 진실하고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열렬한 찬양과 기대의 사상감정과 정서는 시가 《까치》, 《해방가》에서도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까치》에서는 동구밖 나무우에서 아침부터 우는 까치의 울음소리가 일상적으로 레사롭게 울리는 울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는 **김일성**장군님의 승전소식이라고 생활적으로 감명깊게 노래하고있으며 《해방가》에서도 자연현상과의 상징적비유속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진군앞에 왜놈들이 녹아나고 조국이 해방되었다고 기쁨에 넘쳐있는 우리 인민들의 격동적인 심정을 노래하고있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지향과 열정을 감동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이러한 사상감정과 정서는 시가작품들인 《도토리묵》, 《봄나물 곱게 무쳐》, 《떡타령》, 《매돌노래》에서 인상깊게 흘러넘치고있다.

《도토리묵》에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정을 안고 온갖 지성을 다 바쳐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의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을 생활적인 화폭에 담아 진실하게 보여주고있다.

...
도토리묵 하여보세
아버님 먼저먼저
어머님 먼저먼저
랑군님 먼저먼저
선참으로 보내가세
백두밀림 보내가세
구국영웅 장군님께
선참으로 대접하세

작품은 항일의 전구들에서 승리만을 이룩해가시는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그리움을 안고 소박하지만 도토리묵을 정히 해가지고 선참으로 백두밀림에 계시는 구국영웅 **김장군**님께 대접하려는 평범한 한 가정의 순결하고도 구김살없는 진정의 마음을 끝없는 걱정속에 받아안게 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고 따르던 우리 인민들의 강렬한 지향과 념원의 분출로서 일제의 살벌한 파썸적폭압속에서도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진정한 인민의 군대인 조선인민혁명군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원호하던 항일혁명투쟁의 벽한 현실을 집약적으로 뚜렷이 보여주는 생동하고도 감명깊은 시적화폭이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안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은 《떡타령》, 《매돌노래》에서 생활적이며 랑만적인 정서를 타고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떡타령》에서는 모진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깊이 간수하였던 쌀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음식의 하나인 여러가지 떡을 성의있게 만들어 **김일성**장군님께 올리기 위하여 백두밀령으로 찾아 떠나는 흥겨운 정경을 민족적흥취가 나게 랑만적인 정서에 담아 노래하고있으며 《매돌노래》에서도 **김일성**장군님께서 부대를 이끄시고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모두가 떨쳐나 쿵을 갈아 모두부도 안치고 두부장도 지지며 분주히 서두르는 인민들의 희열에 찬 모습을 생활적이며 랑만적인 정서에 담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항일혁명투쟁에 참가하였던 한 녀투사에게서 수집한 작품으로 알려져있는 시가 《봄나물 곱게 무쳐》에서도 **김일성**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제일가는 행복으로 여기던 투사들의 정신세계가 뜨겁

게 반영된것으로 하여 참으로 깊은 감동을 주고 있다.

시가에서는 꿈결에도 그리던 **김일성**장군님을 자기들의 밀영에서 맞이하게 되는 투사들의 한없는 기쁨과 환희의 감정을 시적화폭에 담아 선명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봄나물을 정히 캐여다가 씻고씻고 살짝 데쳐 소금간장 곁게 무쳐 장군님께 올리려는 녀투사들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마음안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적극 원호한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지향을 뜨겁게 반영하고있는 시가작품들은 원군열의로 들끓던 항일혁명투쟁의 벽찬 현실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불러일으키였으며 급속히 파급될수 있었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가운데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민족시가형태의 하나인 시조작품들도 이채를 띠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혁명적시가유산가운데서 처음으로 발굴된 시조작품들은 전통적인 민족시가형식의 우수한 특성을 잘 살려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로 일관되어있던 당시의 주도적인 감정을 소박하고 진실하게 형상하고있다.

시조 《산첩첩 천봉에도…》, 《이 몸이 죽어지면…》, 《창피에 화초심고…》, 《심곡은 험준하고…》들은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의 감정과 그리개서 이끄시는 항일전에 적극 펼쳐나서려는 우리 인민들의 굳센 의지와 지향을 간결하고도 함축된 시구에 담아 소박하면서도 재치있게 반영하고있다. 이처럼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는 시가전반의 사상정서적바탕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열정이 뜨겁게 굵어치고있으며 모든 형상요소들이 위대성을 부각시키는데로 지향되고있다. 이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을 집대성하고있는 시가작품의 중요한 특성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 뜨겁게 반영된 시가작품들은 그 형상력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다.

이번에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의 하나는 혁명적락관주의를 형상적으로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이다.

시가작품들에는 일제의 암흑통치밑에서도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가는 인민들의 생활이 그려져있지만 거기에서는 비애와 절망의 흔적이란 찾아볼수 없으며 아무리 어렵고 준엄한 환경에 처

했다 할지라도 오직 신심과 락관에 넘쳐 투쟁해나가는 인민들의 생기발랄한 생활정경과 혁명적 락만, 전투적기백만이 차넘치고있다.

《장군님만 믿고서 싸워나가자》, 《맺힌 가슴 다 풀리오》, 《물방아》를 비롯한 여러 시가작품들에서는 서정적주인공들이 처한 간고하고도 심각한 시적정황을 펼쳐보이면서 빠져리고 피맺힌 원한을 분노의 불길, 항거의 불길로 바꾸어가지고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이끄시는 항일전에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펼쳐나서려는 우리 인민의 지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시가작품들에 반영되어있는 혁명적락관주의정신은 일제의 식민지폭압정치하에서도 우리 인민들이 절망을 모르고 곳곳이 살며 싸워나갈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예술적으로 확인하고있다.

시가작품들에 형상된 혁명적락관주의는 **김일성**장군님을 수령으로 모시고 싸우는 최상의 영예와 민족적자부심, 혁명의 길이 아무리 간고하고 험난할지라도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반드시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과 절대적인 신뢰심에 기초하고있다.

밝고 명랑하며 유쾌한 정서적색깔이 맥맥히 흐르고있는 《매돌노래》, 《떡타령》, 《도토리묵》을 비롯한 여러 시가작품들에서도 퍼내고 퍼내도 마를줄 모르는 샘과도 같이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흠모의 정을 안고 항일전에 적극 펼쳐나서려는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락만을 절절하게 보여주고있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다른 하나의 특징은 모든 시가작품들에 전투성과 호소성이 결합된 깊은 서정의 세계, 특히 민족적정서가 깔려있는것이다.

전투성과 호소성은 혁명적시문학의 중요한 요구이며 그것은 서정성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그 사상미학적감화력을 강화할수 있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은 혁명적시문학의 이러한 사상미학적요구를 훌륭히 구현하고있다.

시가작품들에서는 생활의 본질적인 계기들에 대한 생동한 시적일반화를 통하여 반제혁명사상과 계급의식을 절박한 시적정황속에서 힘있게 고취하고있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전민투쟁으로 펼쳐나서도록 힘있게 호소하고있다.

이 시가작품들에서의 전투성과 호소성이 그토록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상미학적공감을 불러일으키는것은 그것이 당시 인민들의 생활체험과 사상정신적높이가 정서와 결합되면서 시적화폭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또한 시가작품들은 강한 전투성과 호소성이 풍부한 서정성과 결합되어있을뿐아니라 민족적정서

도 진하게 풍기고있다.

문학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는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언어와 풍습을 비롯하여 생활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것으로서 주체성과 함께 작품창작에서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시문학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적성격을 깊이있고 풍부하게,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내는것과 함께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지고 굳어진 민족생활과 우리 인민들과 친숙하여진 아름다운 자연풍경도 풍만하고 생신한 정서에 담아 실감있게 노래하여야 한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 주목할만 한 문제는 우리 인민들의 민족생활과 그들의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는 자연풍물에 의거하여 민족적색채가 짙은 풍만한 시적화폭을 펼치고있는것이다.

거의대부분이 민요로 되어있는 시가작품들에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새롭게 형성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열정을 우리 인민들의 고유한 민족생활과 밀접히 련관시켜 민족적흥취가 나게 형상하고있다.

시가작품들에서는 오랜 력사적과정에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민족생활의 일단을 보여주는 《떡》, 《매돌》, 《물방아》, 《도토리묵》을 비롯한 고유한 민족풍습이 스며여있는 시적화폭을 통하여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고 민족적색채가 짙은 시형상들을 창조하고있다. 시가작품들에서 보게 되는 이러한 시적화폭은 고유한 조선적인 향취와 정서를 자아낼뿐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이 발산하는 민족적성격을 새롭게 느끼게 하고있다.

시가작품들에서는 또한 우리 인민에게 낮익은 자연현상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장군님유격대》, 《가치》, 《봄나물 곁에 무쳐》 등 여러 시가들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착되어있는 자연현상들과의 대비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마음을 민족적향취가 풍기

게 형상하고있다.

민족적특성이 훌륭히 구현된 실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가형식을 새롭게 탐구한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에서는 전통적인 민요와 시조형식의 리듬을 통하여 선조들이 사랑하며 즐겨 읊어온 가치있는 민요들과 시조를 혁명적현실에 맞게 더욱 세련되고 아름답게 꽃피우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민족생활을 반영한 시적인어표현들과 능숙한 운률의 활용을 통하여 간결하고 세련된 시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짙은 민족적정서와 생활감정을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새로 발굴한 시가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특징은 또한 반복, 상징, 비유, 강조, 대비 등 다양한 표현수법들을 능숙하게 활용하고있으며 그 위력한 형상수법들에 의거하여 정서적형상의 진실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고있는것이다.

시가작품들에서는 여러 형상수법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한것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다함없는 칭송과 흠모의 열정을 다채롭고 풍부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짙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이번에 새로 발굴된 시가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하고 혁명적수령관으로 사람들을 교양하는것을 첫째가는 사명으로 삼은 항일혁명시가문학의 귀중한 재부이다.

이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적인민들이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격찬한 다함없는 충정의 송가였으며 원쑤격멸의 예리한 무기였고 승리와 미래를 앞당기는 전투적호소였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주는 혁명적시가작품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일떠선 천만군민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선군시대 문학예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귀중한 사상정신적량식으로 될것이다.

상식

나무 한그루의 가치

어느 한 나라의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50년간 정상적으로 자란 나무 한그루는 인류에게 약 19만 6천여 US\$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한다. 생산한 산소의 가치가 약 3만 1천 2백 US\$, 대기오염을 방지한 가치가 6만 2천 5백 US\$,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토양의 비옥도를 높인데서 창조된 가치가 3만 1천 2백 US\$, 물을 축적하고 보존하며 수

분의 재순환을 촉진하는 면에서 거둔 수익의 가치가 약 3만 7천 5백 US\$, 조류 및 기타 동물의 서식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얻는 가치가약 3만 1천 2백 50US\$이며 이밖에 2천 5백 US\$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생산한다고 한다. 여기에 목재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뜻깊은 아침형상에 비긴 위인의 한생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을 보고-

신성민

수령형상작품일수록 하나에서 백을 보여주는 고도의 집중력이 있어야 한다. 수령형상에 바쳐지는 소설화폭은 하나의 인간관계, 하나의 사건토막, 지어 하나의 생활세부에 이르기까지 무심히 스쳐 볼수 없는 의미심장한 암시와 여운으로 압축되어 있어야 한다. 천길깊이와 천근무게가 실린 집약된 형상만이 시대를 대표하고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수령의 격과 품위를 재현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신용선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7(2008)년 9호)은 수령형상문단에 귀중한 경험을 시사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젖빛안개 피어오르는 이른 새벽.

아직은 알뜰한 주부의 칼도마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손에 호미를 드신 우리 수령님 찬이슬에 옷자락 적시며 시험포전으로 나가신다.

《수령님! 생신날까지 포전에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성근이 걱정에 어깨를 들먹이는데 이 나라의 새벽을 남먼저 맞으시는 우리 수령님께서 먼동이 터오는 동녘하늘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신다.

행복한 인민의 나라에 새아침이 밝아오고있다.

소설은 이처럼 어느날과 다름없이 흘러간 수령님의 생신날 아침으로부터 첫운을 떼고 바로 그 아침일과에 형상의 초점을 겨누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수령님의 한평생을 생신한 생활화폭으로 보여주려고 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수령님의 혁명활동과정을 깊이 연구하고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인간적품모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위인에게는 위인의 생활이 있다. 그 생활은 한없이 평범하면서도 그지없이 비범하다. 우리 수령님을 위대한 평민이었다고 말하게 되는것도 그때문이다.

작가는 세인을 경탄시킨 우리 수령님의 한생의 위인상을 수령님 생신날 하루아침의 소박한 생활에서 찾았다.

한생과 하루아침.

아득한 시간적공간을 사이둔 이 두 관계속에는 헤아릴수 없이 장구한 력사와 방대한 생활이 비약되어있다. 그러나 그 두 사이는 결코 아득히 멀기만 하거나 별개로 떨어져있는것이 아니다.

문학에서는 인간의 한생을 한생이라는 긴긴 화폭으로만 그릴수 있는것이 아니다. 한점에서 천하를 비쳐내고 한순간으로 백년세월을 주름잡아 보이는것이 문학적일반화의 힘이다. 그 힘으로 위인의 하루아침을 통해서도 위대한 한생을 얼마든지 폭넓게 안겨줄수 있다. 그러나 하나로 백을 보여주는 그런 형상결과는 단순하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루아침에 한생을 압축할만 한 고도의 형상적집약력, 집중력이 요구되며 그를 위한

작가의 고심어린 탐구와 심오한 발견이 있어야 한다.

아침형상에 무엇을 담고 어떻게 꾸며나가야 그런 거대한 집약력을 지닐수 있겠는가.

작가는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에서 가장 경사스런 민족최대의 명절아침이 우리 수령님한테는 가장 레사로운 보통날 아침이었다는 심각한 대조적형상을 펼쳐보았다. 이러한 대조자체가 보통상식을 초월하여 위인생활에서만 생겨날수 있는 비상한 극적정황을 조성하고있다. 벌써 조성된 정황에서부터 독자들은 수령님의 아침일과를 무심히 볼수 없는 위대한 수령으로서의 한생의 거룩한 자욱으로 뜨겁게 받아안지 않을수 없게 된다.

소설에 펼쳐지는 아침생활은 하나의 무대 위에서 외줄기로 이어지는 평면적인 흐름을 초월하여 상당한 정도로 입체화되였다. 수령님의 저력을 무대로 하면서도 무대밖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생활선들과 이야기토막들이 동시에 꺼물어나오고 부관을 비롯한 몇몇 인물이 등장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가 한데 엉켜돌아가고있으며 오히려 그 관계에서 기본사건의 실마리들이 풀려나오고있다. 아침생활형상은 무대위와 무대밖, 현재와 과거가 립체적으로, 다각적으로 편쇄되면서 수많은 생활과 이야기들을 함축하고있다. 작가는 아침형상의 시공간을 한껏 늘이고 넓힘으로써 그 아침을 한공간속의 한줄기 시간흐름이 아니라 어제생활과 오늘생활, 온 나라 각지의 각계층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데 묶은 명실공히 생활의 축도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비록 짧은 하루아침이지만 그속에 온 나라를 안고사며 전체 인민을 보살피시는 우리 수령님의 한량없는 세계가 집중되고 시간흐름을 뛰어넘어 기나긴 한생의 자욱들이 폭넓게 비칠수 있었다.

문학형상은 세부화될수록 수많은 내용을 압축하고 련상시키는 집약화의 밀도를 가지게 된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시는 아침일과를 가장 감동적인 전형적세부들로 고르고 골라 진지하고 섬세하게 파고들었다.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즐거운 경축분위기로 끓고있는데 수령님께서는 농사일이 걱정되시여 기상수문국에 날씨를 알아보시고 시험포전으로 나가신다. 우리 수령님에겐 생신날 아침도 인민을 위해 바치는 헌신의 한순간이었을뿐이었다. 심싱하게 자라는 강냉이모를 보시면서도 농민들의 땀의 무게를 헤아리시는 수령님께서는 강동다락밭에서 만났던 처녀분조원들의 모습을 회억하신다. 물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도 뜻밖에 닦친 감격에 기뻐 어쩔줄 모르던 정겹고 사랑스러운 얼굴들을 그려보시며 입속으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보시던 수령님께서는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속눈썹이 류달리 긴 프락포르운전수의 딸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리나, 수령님께서는 속눈썹이 긴 처녀에게 그 무슨 죄라도 짓는듯싶어 마음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 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이 지닌 인간적품도의 위대성을 보여주는데서 형상을 격식화하거나 기정사실화하지 말아야 한다.

작품에서 수령과 주위인물들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깊이 파지 않고 공식적인 관계로 그리면 수령의 형상이 딱딱하고 격식화되어 무미건조하게 안겨온다.》

《작품에서 수령의 인간성은 행동이나 대사에서도 나타나지만 보다는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는데서 뜨겁게 발현된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보여주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도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까지 무거우시여 꼼꼼히 이름을 생각하신다. 그러시다가 《박헌회》라는 이름을 기억해내시고서야 마음이 개운하신듯 입언저리에 웃음발을 띄우신다. 한 나라의 수령이 그 많은 인민들의 이름을 어찌 다 기억해낼수 있으랴만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한 농장원처녀의 이름을 미처 기억해내지 못한것을 죄스럽게 여겨 마음이 무거워하신다.

참으로 가슴을 찡 울리는 여운깊은 세부이다. 작가는 명절날아침에 있을수 있는 수많은 세부 이야기들중에서 고귀한 인덕을 집중적으로 보여줄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감동깊은 계기들을 선별선택하였다. 인상에 깊이 남는 값진 생활세부로 하여 자신보다 인민을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인상이 매우 충격적으로 안겨올수 있었다.

작가가 아침형상에 부여한 특징과 의미도 매우 인상적이다.

아버이수령님께 있어서 그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는가?

작가는 우선 아침이라는 짧은 순간을 수령님의 로고가 련이여지는 과정으로 형상함으로써 이 아침이 바로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오신 친아버이의 헌신적 한생의 축도였음을 뚜렷이 강조하였다.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생신날 아침에도 호미를 드시고 시험포전으로 나가셨고 포전에서 가꾼 몇가지 남새로 만든 요리로 소박한 아침식사를 하시면서도 해산한 풍산녀성을 위해서는 자신께서 드셔야 할 보약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신다. 가물이 들면 농장원들의 어깨에 물지게가 놓이는것이 가슴에 걸려 관개용잠판을 만들 착상까지 하신분이시기에 비가 내리면 농민들의 옷이 젖을가 녀려하시며 비옷과 장화를 가지고 농장을 찾아가신다.

생신날에 비내리는 농장길을 걸으시다니?!

박성근이도 책임부판도 안타까이 만류하건만 자신께서 가야 농장원처녀들이 더 기뻐한다고 웃으시며 떠나시는 우리 수령님.

그렇다.

인민의 기쁨을 찾아 눈비내리는 험한 길을 헤치시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락이었으며 한평생이었다.

작가는 우리 수령님의 생신날 아침을 로고만아니라 기쁨이 덧쌓이는 즐거움의 시간이기도 하였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세쌍둥이가 태어나 나라에 경사를 가져왔고 관개용잠판시험생산이 성과적으로 끝났다는 반가운소식이 수령님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농장원들에

게 공급할 비옷과 사출장화생산이 끝났다는 보고가 들어오는데 가물든 땅에 약비까지 내린다.

이렇게 덧쌓여지는 기쁨은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하나하나 가꾸어오신 로고의 열매였다.

작가는 이러한 형상을 통하여 언제나 인민을 위하여 사색하고 행동하시는 수령님의 로고속에 인민의 행복이 꽃피었고 그 행복이 곧 우리 수령님의 기쁨이고 락이었다는 형상적결론을 끄집어내고있다.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아침과 행복의 열매. 소설을 읽으면 읽을수록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아침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쁨과 랑만, 삶의 희열을 안겨주는 조국의 아침.

1년 365일,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아침은 지구의 자전운동에 의해 저절로 찾아오는 아침이아니였다. 위대한 사색과 고결한 성품, 뛰어난 지략과 크나큰 덕망으로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오신 우리 수령님의 품속에서 밝아온 조국의 아침이었다.

거창한 조국의 새아침이 시작되고있다.

조국의 새아침은 어디서 밝아오는것인가.

이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면서 하루아침을 통해 위인의 한생을 보여준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이야말로 작게 시작하여 크게 끝낸 작품이라고 말할수 있다.

경험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수령형상에서 매 생활형상은 하나가 백을 보여줄수 있도록 보통상식을 뛰어넘는 격과 무게와 깊이를 충분히 담보하고있어야 위인형상에 맞는 진실한것으로 된다.

하나를 통하여 백을 보여주는데서 기본은 백을 대신할만 한 무게를 가진 전형적인 하나를 면바로 찾아내고 심화시키는것이다. 이 소설처럼 하나의 물방울에 온 우주가 비끼듯 하루아침에 위인의 한생이 비끼게 할수도 있고 작품에 따라 그밖의 여러가지 계기에서 그 심오한 《하나》를 찾을수 있다.

그 모든경우에 명백한것은 그 《하나》가 생각과 비약으로 최대한 압축된 종자의 요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구현한 심오한 알맹이여야 한다는것, 치밀한 밀도로 묘사되는 가장 섬세한 세부와 세부의 련속이어야 한다는것 그리고 부여되는 의미와 특징이 다각적, 다층적이어야 한다는것이다.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이 남긴 깊은 인상과 여운은 여기에 있다.

취나물이야기

허균성

먼 현지 지도의 길
산발만 바라봐도
수령님 자주 외우시었네
취나물은 참 좋은 나물이라고
빨찌산의 제일량식이었다고

얼마나 감칠맛 있었으면
오늘도 못 잊으실까
얼마나 좋았으면
량식으로 대응했을까
못내 그려보던 일군들 뜻밖에
취나물 앞에 마주앉았네
수령님의 추억을 되살리며
간소한 식탁위에
이 고장 인민들 놓아드린 취나물

수령님 반가우시여
넉적한 그 잎새 손에 드시고
이게 바로 취나물이라고
참 별맛이라고
일군들에게 권하셨네

수령님 따라 일군들
취나물향기 맡으며
저저마다 한잎씩 들었네
허나 어이하랴
그 씹쓸하고 짧은 맛

넘기지 못해
모두들 입에 문채
두눈만 서로 마주치는데
수령님 달게도 잡수시었네
쌈도 싸서 맛나게 드시었네

참나물처럼 데치지도 않고
고사리처럼 우려내지도 않고
행군길에서도 그냥 먹는 이 나물로
우리는 어려운 고비를 많이도 넘겼다고
수령님 뜨겁게 말씀하실 때

아 수령님 우러러 일군들
가슴 쩡 저려오는 생각
얼마나 간고한 항일전이었던가
얼마나 고난에 찬 길을
수령님 헤쳐오셨던가

그것으로 추위와 굶주림을 이겨내며
수령님 찾아주신 조국
풍성해지는 인민의 식탁
허나 인민은 다 알수 없었던 취나물

아 취나물이야기
오늘도 전설처럼 길이 전해지는
생각만 해도 목이 메는
취나물이야기

오 만경대

정동찬

만경대를 찾을 때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생각에
봄날의 대지처럼
내 가슴 부풀어라

한그루 꽃나무앞에 다가서도
티없이 밝은 마음 지니고싶고
한그루 소나무앞에 마주서도
굽어들줄 모르는 강직함
가슴속에 엮어지는 만경대
그 무슨 맥박의 느낌인가
커지고 다듬어지는 생각속에
만경대의 그 모든것 다 담고싶어
한결음 또 한결음

찾을 때마다 새로이 안겨지는
오, 봄의 만경대
빼앗겨 스러져가던 민족의 가슴에
첫 맥박의 혈기를 준 고귀한 혈통의 흐름이어

여기서 줄기차게 뻗어오른 만경대 피줄기
백두산악에 년륜처럼 휘감긴 그 년대로부터

이 땅에 만경대의 산아들 태어났고
내 또한 그들속의 한 아들로 자라난것 아닌가

이 땅 그 어느 골짜기를 걷고
이 땅 그 어느 강변길을 걸어도
그대의 자장가속에
내 조국의 아이들 곁에 자라고

한채의 집을 짓고 거창한 기념비를 세워도
만경대의 반석을 주춧돌로 앉히고
크게 자란 세대들 가슴마다에
총을 안겨줄 때
만경대의 두자루 권총으로부터 시작된총번호
새겨주나니

오, 만경대
그대 뿜는 녀의 혈기와
활력이 없다면
내 나라 인민이 어이 숨을 쉬며
내 나라 민족의 녀를 어이 지켜내랴

만경대 만경대여
그대는 내 조국의 피줄에
생을 부어주는 심장
김일성민족의 혈통 천만대로 이어주는
내 조국의 위대한 심장이노라

영원



안동춘

말은 벌써 거품을 물었다. 숲의 장벽은 여전히 앞을 막고있었다. 최현은 뜨끈한 말의 목덜미를 어루쓸며 뒤를 돌아보았다.

젊은 부관은 말잔등에 비끄러매인듯 붙어앉아 간신히 뒤쫓아오고있었다.

《빨리!》

최현은 다급스레 웨치고 다시 말고삐를 채었다. 분비의 따끔거리는 침엽들이, 붓나무의 휘친거리는 아지가 얼굴을, 불을 쬔으나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신비로운 정적속에 조울던 수림은 수선스럽게 설레며 이 뜻밖의 래방자들의 출현을 놀라움속에 맞고있다. 갑자기 무성한 숲 한복판이 뭉칭 갈라지면서 가리마같은 길이 나타났다. 갓 닦은 길이라 다짐이 잘 안된 가운데로 자동차바퀴자리가 두줄기 발고랑처럼 지나갔다.

그 길에 들어선 최현은 길neck 표식비에 《백두산 정 14km》라고 새긴 빨간 글씨를 보자 《길이다!》하고 환성을 올리듯 웨치었다. 그러나 최현은 얼마 더 못 달려 말을 멈춰세웠다.

숲과 길이 하나로 어우러진 둔덕에 파란 승용차가 나타났던것이다.

이마에 한손을 얹고 차를 확인한 최현은 굴러내리듯 말에서 뛰어내려 급히 길neck으로 물러섰다. 길도랑에 문어발처럼 건너질린 나무뿌리에 걸쳐 넘어질뻔 했다가 젊은이처럼 날래게 몸을 일으켜세운 그는 차에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았다.

가느스름한 눈시울밑에서 두눈은 애타는 기대에 차 번쩍였다.

그러나 단 한대뿐인 차가 지척에 이르렀을 때 최현의 얼굴은 락심천만하여 흐려지고 입술에서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늦었구나.》

탄력있게 곧추 세웠던 몸매가 흐트러지며 늙은이의 상심이 된 모습을 서글피 드러냈다. 달려오던 차는 뒤집을 진채 거의 무표정한 상태로 굳어져있는 그의 앞에 이르러 갑자기 급제동을 쓰며 멈춰섰다. 차에서는 40대의 장령이 텅긴듯 뛰어 내려 놀란 소리를 쳤다.

《최현동지 아십니까?》

경례를 하는동안는등 달려온 장령은 묵묵히 서있는 최현을 보다가 모든것을 알아차린듯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래 떠나셨나?》

최현은 조용히 물었다. 장령은 최현의 땀에 젖은 얼굴을, 수북한 흰 장미에 붙어있는 파아란 나무잎사귀를, 장화에 붙어있는 풀줄기들을 보다가 역시 나직한 소리로 대답했다.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못 만나셨군요.》

《응, 숲속으로 질러오느라고.》

최현은 손바닥으로 땀에 쓰린 눈을, 얼굴을 오래도록 문질렀다.

장령은 송구스러운 눈길로 보다가 불만인지 하소연인지 모를 소리를 안타까이 터뜨렸다.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왜 전달을 못 받았습니까?》

최현은 침묵하고있었다.

세월의 모진 비바람과 다난한 싸움의 불길이 한번 빠짐없이 그 자취를 남겨놓아 얼기설기 주름이 가득하고 거뭇게 탄 그의 얼굴은 침통하게 굳어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량강도에 현지도도를 내려 오시자 자기 역시 이곳 사업을 돌아보려 뒤따라와 거의 매일 아침마다 수령님의 건강과 사업일정을 수행일군들에게 알아보던 최현은 오늘 아침도 굳어진 관습처럼 사격훈련장을 돌아보고 들어와 늘 하던 식으로 전화를 걸었다가 의외에도 위

대한 수령님께서 일군들을 데리시고 백두산으로 떠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백두산엘?》

그때 최현은 전기에 맞은 사람처럼 한참이나 굳어져있었다. 부관에게서 자기를 찾은 일이 없었는것을 안 그는 밖에 나가 담배 두대를 댕겨퍼 태웠다.

그러나 세대째 꼬나물었다가 핵 집어던지며 일어섰을 때 그의 입에서는 옛날 부대를 돌격으로 부를 때의 호령과 같은 웨침이 터져나왔다.

《차를 대라!》

시속 90키로메터의 속도를 나무람하며 달리던 차의 앞길에 《도로수리중 X X로 돌아갈것》이라는 표말이 산더미같은 흙을 밀어제끼는 불도젤과 함께 막아서자 최현은 주변구분대의 말을 끌어냈다. 구분대 지휘관의 라침판으로 《직선행로 40리》를 계산한 그는 덤불이건 골짜기건 관계없이 백두산으로, 수령님께서 오르시는 산정으로 말을 짓쳐몰았다. 그러나...

늦었다. 수령님께서 산에 오르셨다가 돌아가신것이다. 말을 타고 달려가 《아, 최현동무가 왔구만. 보오, 동무네가 로인치부하는 최현동무가 동무네로선 엄두도 못낼 기마행군을 했소.》라고 기뻐하며 호탕히 웃으시는 얼굴을 보일 행복스런 기회는 사라졌다. 백두산정에 함께 서서 유격대시절을 추억하며 옛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잃었다.

혁명의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수십만 리길을 걸어온 이 로병의 심장은 지금 이튿날수없는 비애와 고통에 놀리워 아팠다.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역세인 손이 자기의 생명이자 기쁨이고 희망이자 행복의 전체인 위대한 수령님과 남다른 친분관계에 장벽을 치는듯한, 그로 하여 자기의 삶은 가차없이 몽근히 타다 사라지는 재불처럼 스러지게 된다는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젊은 시절을 고스란히 바쳐 피와 땀을 뿌린 백두산, 추억도 많고 굵이굵이 눈물과 환희의 자취가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성함과 더불어 전설로 빛나는 그 성산에서 장군님따라 싸운 자기가 그이께서 오늘 이 산에 오르실 때 떨어졌다는것이 야말로 이즈음 젊은 사람들의 태도에서 간혹 느끼곤 하는 《이젠 늙었으니 쉬십시오.》라는 사형선고 다름없는 암시에 대한 확증같이도 생각되었다.

늙어지면 노염이 많아진다고 내가 좁은 선입견으로 옥생각을 하는것이 아닌가. 최현은 이렇게도 생각을 뒤쳐봤으나 가슴에는 짜늘한 재가 들어찬듯 하고 온몸의 피가 서서히 식어들며 외로움이 울고싶게 만들었다. ...

《그래 수령님께서 기본은 좋으셨겠지.》

짧은 순간이지만 최현의 가슴속에서 고래치는 복잡한 감정의 회류를 엿보며 송구히 서있던 장

령은 그 물음에 저속 활기를 띠었다.

《최현동지때문에 약간 언짢아하셨습니다.》

《뭘라구?!》

최현의 눈섭이 꿈틀하며 찌를듯 일어서고 당황해진 두눈이 초점을 잃고 장령의 얼굴에서 헤엄쳤다.

장령은 이제 절망과 환희의 어느 한 극단으로 떨어질 최현의 심증을 엿보며 흥분을 애써 누착히며 침착히 말했다.

《장군봉에 이르시였을 때였습니다. 안전최사슬을 늘이려고 박아놓은 말뚝앞에까지 이르신 수령님께서 내도산을 가리키시며 지난 기간 싸운 이야기를 하시다가 문득 〈왜 최현동무가 보이지 않소?〉 하시는데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현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숨까지 멈췄다. 얼굴은 회여지기도 붉어지기도 하였다.

《결에서들 말쑤올리더군요. 연락이 미처 못된것 같다고.》

《연락조직을 안했지, 못한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하라구.》

최현은 거칠게 말을 받고는 황황히 타는 눈길로 장령의 입을 지켰다.

장령은 미소를 머금고 또박또박 침착히 말했다.

《수령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없이 천지를 내려다보시다가 〈최현동무가 없이야 백두산 불맛이 없지.〉라고 하시고는 한참이나 생각에 잠겨계셨습니다.》

《음!》

최현은 웅글은 신음소리를 터치었다.

목을 꺾은채 한동안 급한 호흡을 묵새기던 그는 말을 매여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다가 장령을 향해 고개를 돌린 그의 입에서는 거의 통명스럽다고 할 말소리가 뿜겨나왔다.

《왜 그러고있소? 빨리 가서 동무의 임무를 수행해야지.》

최현은 장령이 차를 타고 같이 가자고 했으나 손을 흔들뿐이었다. 말갈기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장령이 차에 오르는것을 보던 최현은 문득 장령의 이름을 부르며 호기어린 소리로 웨쳤다.

《내길 할가. 차가 빠른가 말이 빠른가.》

장령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최현은 히죽히 웃으며 《따라보라구.》하고 말잔등에 올라서는 말의 궁둥이를 손바닥으로 철썩 갈기였다. 말은 네굽을 치며 내달았다. 발동을 건 차가 뒤따르자 최현은 꺾꺾 웃으며 더욱 기승스레 말을 쳐물았으나 얼마 못가 차에 선고를 주고말았다. 차가 먼 등관의 숲속에 잠겨버렸을 때 최현은 말을 멈춰 세우고 헐썩거리며 숨을 토했다. 옆에 온 부관에게 머리를 저어보이고 《좀 쉬자구.》하면서 말에서 미끄러지듯 내린 그는 길녘의 숲으로 피곤한

다리를 무겁게 끌며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들쭉이 있겠는데—》하면서 주위를 살피며 걷던 최현은 커다란 붓나무앞에 이르자 아아하게 높이 치솟은 꼭대기를 한참이나 올려다보았다. 곁에 와선 부관이 의아스럽게 보자 최현은 웃음어린 눈길을 주었다.

《목이 마르지?... 칼을 좀 내라구.》

부관은 만약을 생각하여 가지고왔던 손칼을 내밀었다.

최현은 그 칼로 붓나무의 밑둥에 T자를 새겼다.

그리고는 천진스런 어린애의 장난기어린 미소를 담고 나무를 보다가 하면 부관을 보기도 했다. 좀 있어 칼로 벤 자리가 축축히 젖어들더니 한방울 송진같은 물방울이 맺혔다.

최현은 랑패한 기색으로 머리를 저었다.

《지금 8월이란걸 잊었군. 이른봄이라면 한모금 잘 추길 수액이 나오는데—》

하면서도 최현은 그 커져가는 물방울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드디어 물방울이 흔들흔들하다가 주르륵 흘러내리자 최현은 벌어진 꺾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눌렀다.

그리고는 자기의 행동을 이상스럽게 지켜보는 부관에게 싱그레 웃어보이며 말을 이었다.

《옛말에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애처롭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고 했는데 이 나무는 말이야 칼을 대니 죽는줄 알고 맑은 눈물을 흘리지더냐.》

부관은 두눈이 휘둥그래져서 그 말뜻을 가늠하느라 최현의 낮빛을 유심히 살폈다. 최현은 나무밑둥에 기대앉으며 소리내어 웃었다.

《뭐 별소리 아니야. 늙으면 이런저런 얼튼 생각이 많은 법이지.》

그리고는 사뭇 감개무량한 얼굴을 쳐들고 다리를 쭉 편채 숲에 가려 거울조각처럼 내민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다가 머리마져 나무에 기댄채 눈을 감았다. 개미들이 손잔등에 기여오르자 싱그레 웃었다.

《저... 제가 먼저 가서 차를 가져오겠습니다.》

《왜?》

최현은 한쪽눈만을 찌불서 뜨고 부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리해서요. 앓지 않겠습니까?》

《동무가 나보다 쎄다고 생각하냐?》

《저야 젊지 않습니까?》

《허허—》

최현은 속궁근 웃음을 웃었다.

《동무까지 날 늘그테기로 치부하는가. ... 안될 소리!》

최현은 느닷없이 말끝에 어성을 높이고는 입을 껍 악문채 숲의 한곳을 뚫어져라 쏘아보았다.

사실 최현은 며칠전 간부사업을 하는 한 일군

과 불쾌한 담화를 하였다. 그 일군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일정한 주견을 세운 태도로 현재 나이에 맡겨진 사업이 힘부치지 않는가고 물었다. 년로한 간부들속에 도태가 있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최현은 그 일군에게 하등 화를 낼 근거가 없었던만 매우 푸짐없는 태도로 씩 잘라말했다.

《나는 사복을 입고있지만 나서 죽을 때까지 군인이요. 이제라도 군복을 입고 다시 군단을 지휘할수도 있소.》

생각해보면 얼마나 피백스러운 동문서답같은 대답이였는가. 그러나 더 다른 말도 없지 않았는가.

늙으면 자리를 물려주는것이 법칙이란것을 안다.

모든 꽃은 과일이 될것을, 모든 밤은 아침이 될것을, 열매는 떨어져 땅에 묻힐것을 바라듯 시작이 있고 종점이 있는것이요, 영원이란 없는것이다. 그런 면에서 자기야말로 훌륭한 출발과 행복한 결말로 한생을 달려온것으로 여한이 없다. 그의 혁명 1년은 보통사람들이 10년, 20년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광과 위훈으로 새겨졌다. 그러나 그렇다 하여 전호에서 일찍 떠나란 법은 없지 않은가. 팔다리에 아직 힘이 있고 머리는 옛날처럼 예민하고 눈도 밝은데 어찌하여 수령님의 친위전사로서의 위치에서 물러나야 한단 말인가. 수령님께서 오늘 이 시각도 자신을 잊지 않고계시는데—

최현은 가슴 답답하여 우쩍 일어났다.

《가기요.》

순 시간은 15분도 되나마나하였다. 이날 최현은 점심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오후 종일 근처의 적위대사격훈련장에 나가있었다.

실탄사격을 보다말고 직접 자동보총을 가지고 200미터거리의 구보형목표를 런발로 사격하기도 하였다. 30발에서 두방만이 빗나갔다. 모든 사람들이 귀신같은 사격술에 혀를 두를 때 최현은 진정으로 수치를 느끼며 피롭게 뇌였다.

《이젠 늙진 늙었군.》

옆에 서있던 열두발에서 네발밖에 맞히지 못한 젊은 적위대원은 이 로투사의 평범하게 울리는 말속에 얼마나 많은 번민이 담겨있는가를 몰랐다.

이날밤 최현은 일찍 누웠으나 잠들지 못했다. 홍범도의 청산리전투에 소년전령으로 뛰어들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복잡다단한 한생이 화면처럼 눈앞에 흘러갔다.

맥박이 높아지면서 심장이 쿵쿵 흥벽을 울리고 눈곱으로는 뜨거운것이 자꾸 맺혀올랐다.

이런 기분상태는 좀해 없었다. 《민생단》에 몰린지 얼마뒤 열병에 걸려 쓰러졌을 때 피창박에서 올려오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러움과 반가움에 목메여 마초로 몽

그런 베개에 머리를 묻고 눈물을 쏟던 때의 심정이었다.

자기는 한생을 장군님을 위하여 바쳐싸우노라고 했지만 받아안은 사랑에는 다 보답을 못했는데 이제 와서 세상은 자기같은 늙은이는 수령님께 없어도 된다고 믿는것 같다. 다만 수령님께서만이 이 최현이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중히 품어주신다. 높으신 의리, 고귀한 덕으로 하여 따듯한 추억속에 품어 관심하고 사랑하시는것이다.

그렇다. 이제 내가 뒤자리에 물러설 때다. 하나 그 최종시간이 오기 전까지 나는 더 일을 해야겠다. 번거롭고 흥분된 생각에 잠 못 이루게 된 최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크지 않은 수첩 하나를 꺼내 펼쳤다. 군복을 벗은 이후부터 틈마다 기억을 더듬어 적곤하던 전투경험비망록이었다. 폐지마다 글자란 별로 없고 산과 강따위의 그림과 부호표식들로 가득찬 수첩이었다. 마디굵은 손에 연필을 쥔 그는 등고선이 복잡한 산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적의 참호를 한창 표식할 때 무슨 소리인가 들렸다. 처음에 그는 바람소리로 착각하였다가 고개를 들고 그 소리의 출처를 알리고 방안을 더듬었다. 그러다가 전화기에 시선이 몇자 혹시나 하여 송수화기를 들어보았다.

《징—》하는 전류흐르는 소리가 났다.

(헛들었군.)

막 송수화기를 놓으려는데 애된 처녀의 다급한 목소리가 진동판을 울렸다.

《최현동지십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으셨습니다.》

《뭐라구? 정신있어?! 무슨 호출을 그렇게 해.》

《최현동지, 수령님께서는 딱 한번만신호를 짧게 울리라고 해서—》

《으음.》

최현은 대뜸 목이 꺾 막히며 마치 상대가 애된 교환수가 아니라 그의 생사여탈권을 틀어쥔 존재라도 되는듯 거의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빨리 대주오. 처녀동무, 응.》

그가 급한 호흡을 채 진정시키기도 전에 우렁우렁한 음성이 고막을 짹 채웠다.

《최현동무요?》

《최현이 전화받습니다. 안녕하셨습니다.》

수화구에서는 잠시 징—하는 전류흐르는 소리만 들리다가 폭 같았던 근심어린 음성이 무겁게 들려왔다.

《난 그래도 동무가 잠들어서 이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했는데— 왜 아직 자지 않고있습니까?》

벽시계를 보았다. 1시 30분이다.

《잠습니다. 아니, 저… 자다가 방금전에 깨었습니다.》

최현의 얼굴에는 서툰 거짓말을 할 때의 어린애같은 미소가 흘렀다.

《자단 말이지요?》

이 순간 최현은 빙그레 웃으시는 수령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뵈옵는것만 같아 자기 역시 싱그레 웃었다. 그런데 음성이 커지고 엄해지셨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오. 잠 깨었을 때의 동무목소리를 내가 모를줄 압니까.》

《수령님, 두루 잠이 오지 않아서—》

《무슨 생각때문에 못 잡니까?》

최현은 등줄기에 땀발이 서는것을 의식했다. 말을 할수가 없었다. 입만 벌리면 울음이 터져나올것 같은 심정이였다.

문득 수령님의 음성이 낮아지며 탁하게 울리였다.

《최현동무답지 않습니다. 동무가 자지 못하면…》

말씀이 끊어지셨다.

최현은 무엇엔가 탁 밀치운 사람처럼 몸을 흠칫했다. 목이 짹 잠겨들고 숨이 가빠올랐다. 벽시계가 흐릿하게 멀어진다. 1시 30분이라는 수자가 떨고있다.

《자시오. 그리고 래일 아침 특별한 사업조작이 없다면 나에게 오시오. 올 때 군복을 입고 오시오. 군복은 가지고 다니겠지요?》

《네…》

《그럼 래일 만납시다. 그런데 자지 않고서는 생각을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최현은 두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동안 굳어져있었다. 《수령님!》가느다란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새어나오고 붉어진 눈시울밑에서 고드름처럼 맺혔던 눈물방울이 지도우에 툭 떨어지였다.

×

백두고원의 일기는 변덕스럽다.

새벽부터 비꼬치가 떨어지며 광풍이 일더니 아침은 마치 일식때처럼 어두워지고 해는 짙은 구름장속에서 솟을념을 못했다. 비가 증증해 이제 개이는가부다 하면 다시금 우—하는 소리와 함께 수림을 뒤집을듯 하며 질풍이 들이닥쳐 한바탕 역수를 퍼붓고는 그 광란이 멎적은듯 잠시 조용해진다.

최현이 탄 차가 호수가를 에돌 때 비발은 더욱 사나와졌다.

운전사는 최현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차를 수령님 계신 숙소에서 30여미터 떨어진 곳에 세우고 최현이 뛰다싶이 달려가 현관정문에 이르렀을 때 벌써 얼굴엔 비물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최현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마중나온, 전날 만났던 장령에게 은근히 물었다.

《무슨 일로 찾으셨는지 모르겠나?》

《이제 들어가시면 압니다.》

장령은 어딘가 심상치 않은 근심에 사로잡힌 얼굴이었다.

최현은 어느때없이 딱딱하고 불친절하기까지 한 그의 태도에 야릇한 불안과 초조를 느끼며 뒤따라 들어갔다.

그가 이끄는대로 원손권의 응접실에 들어선 최현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치의사가 있는것을 보고 속이 섬찟했다. 간부사업담당 일군과의 담화가 있는 후부터 잔뜩 신경이 날카로와진 최현은 분명 누군가가 자기의 로쇠를 과장하여 보고드림으로써 수령님께 걱정을 얹어드린것이라고 넘겨짚었다.

아닐세라 의사는 인사를 나누기 바쁘게 이런 사람들이 늘 하는식대로 식사는 제대로 했는가, 잠은 잘 드는가 하고 물다가 《혈압을 재야겠습니까.》 하며 원탁우에 놓인 혈압계뚜껑을 열어젖히었다.

최현은 터져오르는 불만을 꼭 누르고 장령을 쳐다보았다.

《수령님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서 재야겠습니까.》

《재야지. 한데 어느놈이 나를 약골로 보고했나?》

그 저명한 음성에 청진기를 목에 걸던 의사는 흠칫하며 굳어졌고 유격대시절의 옛상관의 성미를 잘 아는 장령도 어리벉벉해 어색한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약골이라고 한 사람은 없었소.》

우렁우렁한 명쾌한 음성이 긴장된 방안의 공기를 탁 날려버렸다.

그 누구보다 놀라 고개를 돌린 최현은 문가에 나타난 승마복차림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보자 흐렸던 얼굴이 활짝 밝아지며 힘있게 거수경례를 하였다.

《수령님, 최현 명령대로 왔습니다.》

수령님께서 잠시 아무 동작 없으시고 서계셨다. 애뜻한 정이 담기신 부드러운 눈길은 최현의 전체를 품고 애무하러는듯 따듯이 빛났다. 《좋습니다. 군복을 입으니 더욱 젊어보이고—》

수령님께서 재빠르신 동작으로 다가와 최현의 손을 잡아내리우며 어깨를 쓸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최현의 붉게 핀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시다가 물으시었다.

《잠을 잘 잤습니까?》

《잘 잤습니다.》

《잘 잤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몹시 기분이 상했지요?》

《원, 아니 무슨 말씀을... 조금은... 그러나 이젠 없습니다.》

최현은 허둥허둥 말을 얼버무렸으나 두눈은 비

릿긴 뒤의하늘처럼 맑고 황홀할 정도의 행복감에 취해 번쩍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빙긋이 웃으시었다.

《그럼 혈압을 재어봅시다.》

최현은 당황해서 수령님을 우려했다. 구원을 청하는 눈길로 의사를 보기도 하였다. 얼굴은 더욱 붉어졌다.

그러다가 팔소매를 걷어올렸다. 소매를 접지 않고 당기는 바람에 팔굽까지도 못 올라갔다.

《덤비는군. 그러면 혈압이 더 오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최현이 얼굴이 빨갛게 질려 소매를 취올리는것을 보시다말고 손수 그 팔을 잡으시여 팔소매를 다시 접어 끌어올리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의사가 최현의 팔에 혈압띠를 감고 바람주머니를 누르는 몇개 동작을 유심히 살피시다가 혈압계의 수은주가 오르자 긴장된 시선으로 지켜보시었다.

최현은 마치 예방주사를 맞을 때처럼 그쪽은 보지 않고 이마살을 찌프린채 입을 악물고있었다.

《일없구만, 그렇지?》

수령님께서 기쁘신 음성으로 의사를 향해 물으시는것을 듣고서야 최현은 맑은 얼굴로 혈압계의 의사를 동시에 쳐다보았다.

그런데 알뜰게도 의사는 《수령님, 한번 더 재 봐야겠습니까.》 하며 또다시 바람주머니를 풀썩거리였고 마치 최현의 병을 알아내어 보고드리는것이 제일 큰 소망이런듯 혈압계의 수은주를 열심히 쳐다보는것이였다.

최현은 속이 불끈거렸으나 이런 때 신경을 쓰면 혈압이 오른다던것을 상기하며 눈을 내리깐채 꼭 참았다.

팔을 죄이던것이 스르르 풀렸다.

그때까지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혈압계의 수은주를 눈여겨보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초조하신 안색으로 의사의 입을 지켜보시었다.

의사는 정중한 자세로 마치 큰일을 해낸 사람처럼 보고드렸다.

《일없습니다, 수령님. 90—140은 최현동지에게 정상입니다.》

《좋구만. 난 선생이 다시 보는 바람에 가슴이 다 섬찟했소.》

수령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얼굴이 불그레해진 최현에게 기쁜 미소가 담긴 눈길을 보내시었다.

《그렇습니다. 전 건강체인걸요.》

최현이 막혔던 숨을 뿜으며 온 얼굴이 웃음꽃으로 환히 피자 수령님께서서는 못내 만족하신 빛으로 장령을 찾으시었다.

《떠날 준비를 하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올리는 장령의 얼굴에는 역시 좀전과 같은 시름어린 빛이 감돌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최현이를 이끄시고 바깥현관으로 나서시었다.

누기찬 바람이 확 안겨들었다.

검은 구름장들이 엉켜선 수림우 뽕안 비안개에 휩싸인 백두산의 거대한 웅자가 한눈에 보이는 현관계단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발치아래 쏟아지는 락수물을 보시다가 최현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어떻습니까? 멋진 날씨지요.》

좌— 수림우에 비발을 휘뿌리며 산바람이 거세게 지나갔다.

최현은 의문서린 눈길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수령님께서서는 매우 유쾌한 미소를 머금으며 계속하시었다.

《난 오늘 오전은 최현동무와 함께 휴식하려고 합니다.》

《?!...》

《우리 둘이서 백두산에 오르자는것입니다. 옛날의 빨찌산 사령관과 사단장으로... 가서 옛싸움터들을 보며 옛말도 하고 피곤도 쏘시다. 어저께 동무가 없어 싱거웠습니다. 동무의 혈압을 쟈것은 이때문입니다. 재지 않고 올라가면 의사나 다른 사람들이 의견이 있을수 있지 않습니까.》

최현의 눈엔 몽롱한 안개가 피여올랐다. 그는 일체 감각도 사고도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입술이 그리고 눈시울만이 푸들푸들 떨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감격에 휩싸여 굳어진 최현이를 넘치는 정과 사랑에 가득찬 눈길로 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날씨는 사실 썩 신통치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릴수 없습니다. 난 어저께 최현동무가 없는것으로 하여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최현동무 역시 그랬을것입니다. 나는 오늘 날씨는 신통치 않지만 이 길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가져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최현은 몸을 떨었다.

바람소리, 비소리... 지금쯤 백두산에서는 광풍이 일어 눈과 돌이 날리고 천지가 뒤번져질것이다.

최현의 얼굴색은 점차 비참하게 흐려지고 눈길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장령의 얼굴에 비낀 수심과 걱정의 원인도 이제야 알았다.

최현은 두손을 맞잡고 비틀었다.

《수령님, 제가 로망했습니다. 제가, 아... 저야 항상 수령님과 함께 산 사람인데...》

최현의 음성은 갈리고 미구에 격렬한 부르짖음으로, 열띤 울음으로 터져나왔다.

《이 험한 날씨에 저때문에, 이 날씨에 저때문에 백두산에 오르신다면 수령님앞에, 인민앞에 이 최

현이가 무슨 낫을 들 면목이 있습니까.》

최현은 그대로 쓰러질것만 같았다. 후들후들 떠는 그의 손을 수령님께서 꼭 잡아주시었다.

《최현동무, 내가 동무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고 싶어 그러오. 동무와 함께 다시 짧은 시절로, 빨찌산시절로 가보자는것이요.》

《수령님.》

세상은 이 최현을 무서운 싸움군, 격전의 용장으로만 알고있지 얼마나 사랑에 주리고 정을 갈망하는지 다는 모른다.

일찍 부모를 잃고 소년의 몸에 룽혈포를 차고 피투성이 싸움판에 뛰여든 그는 그 용맹과 슬기로 일찍부터 지휘관이 되었다.

하여 그는 젊어서부터 옷사람으로 받들리였지 내리사랑이라는것을 받아보지 못했다. 세상은 그를 존경하였으나 한편 어려워했다.

대원들의 동지적사랑은 있었으나 아버지의 사랑은 없었다.

사람에겐 한생에 줘야 될 사랑과 받아야 될 사랑의 한도량이 있다. 최현은 항상 육친의, 부모의 사랑을 갈구했다.

사랑에 주려 황량한 마음의 광야에 첫 해별이 쏟아진것은 1933년 소왕청 마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은 때부터였다. 첫 상봉에서부터 최현은 이상스러운 인력에 끌려 수령님께 매혹되었고 수령님의 미소, 음성, 그 말씀속에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사랑의 샘을 찾았다. 하여 그때로부터 이제 반백이 넘는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러서까지 수령님을 못내 그리였고 수령님앞에 서면 먼 옛날의 어렴풋한 기억속의 소년으로 돌아가 어린애로, 건주정하는 로인으로 되여 그 무궁한 사랑의 별에 취해 행복의 극경에 서보기도 하는것이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수령님께서서는 거칠고 과격한것의 외피속에 숨겨진 최현의 성실과 정직, 참되고 깨끗한 마음을 아끼시였으며 그에 그들이 질세라 돌보고 아껴주시었다.

그이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열과 밝은 빛을 가지고 이 충직한 로투사의 주위에서 맴돌았고 투사의 정신과 마음이 영원한 청춘과 활력속에 기쁨만이 충만하기를 바랐다.

차는 백두산중말기 조금 더 올라가 멈춰섰다. 그이상은 아직 길이 채 안되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봄가을의투를 걸치신채 바람이 지동치는 밖으로 나오시었다. 봄가을의투 자락이 기폭처럼 날리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모자를 깊숙이 내려쓰시고 취면 잡힐듯이 진한 검회색 비구름이 모였다가는 흩어지고 흩어졌다가는 모이는 컴컴한 산정을 한동안 깊은 명상속에 바라보시다가 옆에 와 송구히 선 최현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최현동무, 매우 상징적인 날입니다. 우리의 반

생은 이런 비바람속을 헤쳐온 길이 아닙니까. 남들은 이런 날의 등산에 진미를 모를수도 있으나 동무와 나에게는 이런 날이 좋습니다.》

수령님의 거연하신 모습을 우러르는 최현의 얼굴에는 비물인지 눈물인지 모를것이 가득 덮였다.

《그런데 수령님, 풍세가 너무 사납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수령님, 옛날과는 다릅니다. 이젠 년세도.》

《허, 최현동무가 무슨 소리 그렇게 합니까. 동문 늙었다고 하면 싫다고 하면서 나보고 년세타령을 하면 어쩍니까. 나도 싫지 않습니다. 나이로 보면 오히려 동무가 더 많지 않습니다.》

수령님께서 호탕히 웃으시고 면구해하는 최현의 어깨를 가볍게 다치시었다.

《최현동무가 겁을 먹은건 아닙니까?》

《원 별말씀을, 수령님, 제사 겁내는것이 있습니다.》

《암, 그래야지요. 그렇다면 갑시다.》

수령님께서 최현과 무산지구전투며 보천보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며 장군봉에 이르시었을 때 갑자기 까맣게 흐렸던 하늘이 씻은듯 개이였다. 바람은 분화구의 안개를 어디론가 날라갔다. 노란 만병초며 분홍바늘꽃따위의 백두산식물들이 또렷또렷 모습을 드러냈다.

최현은 너무나 놀랍고도 반가운 이 자연의 조화에 얼떨떨해졌다.

수령님께서서는 젊은 호위병들이 앞질러 달려올라가 만세를 부르는것을 유심히 보시다가 최현에게 웃음어린 눈길을 돌리시었다.

《어떻습니까. 난 오늘 날씨가 이럴줄로 믿었습니다. 저 아래에서는 여기서 활짝 개여있는줄은 모를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런 모진 날씨에 최현동무가 백두산에 올랐다는것을 알면 깜짝 놀랄것입니다. 정말 날씨를 봐도 최현동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최현은 머리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는 검붉은 백두산 부석흙이 그리고 깊이를 모를 파란 천지의 호심이 안겨들었다.

문득 이 백두산을 우러러보며 싸우던 날들이, **김일성** 동지를 받들어 싸우는 혁명의 한길에서 일편단심 변함없자 맹세다졌던 전우들의 얼굴이 삼삼히 눈앞에 실려왔다.

천지의 고요한 수면위에 그들의 모습이 비껴올랐다.

최현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 제가 너무 혼자 복을 받습니다. 오중흙이, 최춘국이, 김책, 강건 다 중도에 갔는데 나는 이날이때까지 살면서 그 동무들이 받아야 할 장군님사랑까지 다 독차지하고있습니다.》

최현의 목소리는 떨리었고 불의 근육이 움찔거

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아픈 구석을 다치우신듯 안색을 흐리셨다. 그이께서는 검은 구름장을 뚫고 쏟아지는 해발에 우중충히 드러난 먼 북쪽의 산발들을 침중한 눈길로 바라보시었다. 이름없는 골짜기와 산중에 묻힌 옛전우들의 모습을 그 산발에서 찾아보시려는듯싶었다.

그이께서는 길게 숨을 들이그으시고 침중한 빛이 채 가지지 않은 눈길로 최현을 보시었다.

《그렇소. 거의 다 가버렸소.》

최현은 그 비통하신 어조에 흠칫했다. 그이의 가슴속에 항시 고여있는 전우들의 희생에 대한 아픈 비애를 덧없어드렸다는 죄스런 감정이 채찍처럼 후려쳤다. 최현은 수령님의 흐리신 안색을 더 보기 어려워 눈을 내리깔았다. 파아란 천지의 호심에 시선이 가닿자 몽클하고 가슴뜨거운 격정이 이상스런 흥분으로 그를 충동했다.

《수령님!》

어찌보면 어리광섞인듯한 음성으로 찾았다. 수령님께서 축축히 젖으신 눈길로 돌아보실 때 최현은 뜨거워오르는 눈을 섬벅거리면서 어린애처럼 천진스레 미소를 담고 말씀올렸다.

《전 지금 천지에 뛰어들고싶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수령님께서서는 아직도 안색에 어린 비감을 거두지 않으시고 나직이 물으시었다. 최현은 싱긋 웃었다.

《옛말에 무슨 혼백이라던가 신령에 대한 얘기가 있잖습니까. 전 정말 그런것이 있어서 여기에 신령으로 남아있었으면 합니다. 저야 이제 무얼 더 하겠습니까. 이 산의 신령이 되어 늘 수령님을 뵈옵고 위한다면 더 바랄게 뭇 있겠습니까.》

최현으로서는 좀해 하지 않는 룡담이였다.

《신령이라?!...》

수령님께서서는 나직이 한마디 뇌이시며 눈물이 맺힌 최현의 불그레한 눈시울을 보시다가 급급히 외면하시고 먼 남쪽에 시선을 주시었다. 안개의 바다위에 도드라진 섬같은 산봉우리들이 련이어 남으로 남으로 흘렀다. 남으로 뻗은 조선의 지맥은 이 백두산에서 뿌리뻗은것이다. 수령님께서서는 어딘가 비분에 찬 표정으로 그 망망한 안개의 바다를, 그밑에 깔려흐르는 산줄기를 보시다가 최현에게 고개를 돌리시었다.련련한 정이 굽이치는 안팎에는 심각하면서도 절절한 호소와 꾸중의 빛이 평곳거리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약간 갈린 음성으로 말씀을 터치시었다.

《최현동무! 어저께 나는 바로 여기서 동무를 찾았습니다. 그때 동무가 늙었다고, 늙었기때문에 백두산에 오르지 못할것이라고 여겨 알리지조차 않았다는것을 들었을 때나는 몹시 섭섭했습니다. 아니 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어찌 그럴수 있는가

고, 사람을 볼줄 모른다고... 그래서 난 동무가 늙지 않았다는것을 보이자고 그리고 최현동무는 어제 오늘도 앞으로 나와 함께 험한 길이건 좋은 길이건 함께 걷는다는것을 세상에 알리자고 오늘 또 백두산에 오른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보니 늙었습니다. 마음이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동무가 벌써 립종직전에 이른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보시오, 우리는 아직 통일도 못하고있는데... 오중흙이, 최춘국이... 그 먼저간 동무들의 부탁을 절반도 아직 실현하지 못하고있는데 동문 늙은이의 세계로 도피해가려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행동하는 최현이 아니라 마음만 고이는 최현이가 되겠다는것이지요. 동무의 정신에도 늙음이 찾아올수 있습니까.》

《수령님!》

최현은 울먹거리며 웨쳤다. 그의 눈은 마치 20대의 젊음이 되돌아온듯 생기롭게 비상히 반짝였다. 행복과 환희가 피로움과 뒤섞여 최현의 온 가슴에 폭풍을 일으켰다. 최현은 흥분으로 팔다리가 떨리는것을 간신히 억제하며 눈물에 목메어 뿔어 내듯 말씀올렸다.

《수령님, 최현이 몸은 늙어도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아니, 몸도 늙지 않습니다. 전 수령님께서 요구만 하시면 지금도 소대를 데리고 돌격전에 나설수 있습니다. 곰사냥도 할수 있습니다. 기마경기도 나갈수 있고...》

적당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아 가슴을 마구 쥐어뜯을듯 안타까움에 차 모지름쓰는 최현을 아프신 눈길로 보시던 수령님께서 최현의 손을 꼭 잡아 약간 끄당겨 올리시었다. 그리고 그 손을 따뜻이 쓰다듬어보시며 물으시었다.

《어저께 젊은 동무들앞에서 시범사격을 하였습니다지요?》

《네, 시원친 않았습시다.》

《여전한 숨씨더군. 나는 최현동무가 어제 오늘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런 시범으로써 우리 혁명의 2세, 3세들을 억척같은 혁명가로 키우는 혁명의 로선배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전부터 생각한것이지만 나는 동무가 인민무력사업전반을 책임졌으면합니다.》

《네?》

최현은 놀란 나머지 어리둥절해지고말았다.

《제가 어떻게... 전... 현대군사과학과 리론에 밝지 못합니다. 그거야 수령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다.》

《군사과학과 리론으로는 우리의 모든 군사간부들이 잘 준비되고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군사학은 책상에서 배우지만 동무의 정신과 담력, 전쟁경험은 수십년의 혈전속에서 얻어진것입니다. 그 정신은 쉽게 배우고 또 배워주고 넘길수 있는 물건같은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위해서라

면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쓰러지지 않는것, 변심을 모르느것, 이것은 동무의 가장 큰 재산이자 우리가 넘겨줘야 할 귀중한 정신적재부입니다.》

수령님께서 심각한 기색으로 말씀하시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으시는듯 눈귀를 쪼프리고 계시다가 조용히 계속하셨다.

《동무는 소왕청 마촌에서 나를 처음으로 만났을 때 일본놈들을 없애기 전에는 죽지 않아야겠다고 하면서 그건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그 유언을 생각하면 총천 손에 더 힘이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옳은 말, 옳은 정신은 그렇게 이어지는것이지요. ... 그후 미혼진밀영에서 <민생단>협약에 걸렸다가 나를 만났을 때 동무는 나에게 뭐라고 하였었습니까.》

수령님의 말씀은 약간 떨리시었다. 빛나는 안광에는 짙은 감회와 흥분이 파동치고있었다. 최현은 눈물이 핑 고인 눈으로 수령님을 우러러보았다.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돌개물속에 자신을 잊고 그 때로 돌아간듯 띠엄띠엄 그 불같은 맹세의 말을 되었다.

《살아도 죽어도...장군님따라...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했지요. 수령님! 제가 그걸 왜 잊겠습니까!》

최현은 대범히, 밝게 웃어보인다는것이 비참할 정도로 얼굴을 찡그리였을뿐이다. 그 주름가득한 얼굴, 주름마다에 고여 떠는 물방울, 판자노리에 허영게 불린 머리칼... 세월의 팽담한 흐름이 인찍은 자취에 수령님의 시선이 멎었다. 눈시울이 알릴듯말듯 떨었으나 인츰 수령님께서서는 굳세인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리고 입가에 더없이 밝고 따사로운 미소를 그리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최현동무는 그 맹세와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혁명을 위한 이 길에서 나와 동무는 영원히 켈수 없는 의리와 우정으로 맺어졌습니다. ...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이리로 오른것이 아닙니까.》수령님께서 감회어린 눈길로 어깨를 떠는 최현을, 하늘과 맞붙은 산밭을 바라보시었다.

백두산은 높다. 하여 조선의 메부리라고 한다. 최현의 한생은 혁명의 아스라한 산봉, 이 절정을 향한 강행군이였다. 수령님께서 이 길을 앞장서 걸으셨다. 맨 앞장에서 빛을 뿌리시며 전사들의 걸음이 한발자국도 뒤질세라 비뿔어질세라 이끄시고 부축하시고 떠미시며 승리의 절정에 오르시었다. 그이께서는 한손을 최현의 어깨에 얹으시고 간곡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최현동무, 정말 늙지 말아야겠소. 동무가 보다 혁명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한다면 늙음을 잊어야 되오.》

더 높이, 더 앞으로, 오늘날 아니라 먼 래일까지 영광의 절정에 세워주시는 찬연한 후광이 최현의 온몸을 감쌌다.

최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길게 뻗친 눈썹

우리들이 떨었다.

《수령님! 제... 더는 늙지 않겠습니다.》

이때로부터 18년후 인민무력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최현대장은 국방전초선의 거대한 성벽이 되어 생을 마쳤다. 장례식이 끝나고 그 기억이 사람들 머리에서 점차 사라지던 어느날 고인의 집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 사진앞에 근 30분동안 말없이 앉아계셨다.

백두산에 오르셨을 때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었

다.

수령님께서서는 최현의 어깨를 안으시고, 최현은 수령님의 허리를 누가 땔세라 꼭 부여안고 환히 웃는 사진이었다.

마치 생의 영원성의 의미를 말하는듯 한 영원한 웃음, 영원한 포옹의 예술사진같았다.

1986

어머님 지피신 불

한승길

무슨 밥을 짓느라고

어머님 밤깊도록 불을 때시었던가

나무장작 꺾는 소리 들리지 않고

밥짓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궁앞에 어머님은 밤새도록 앉으셨다

뼈속까지 스미는

안도의 땀뺀 바람 창문을 흔드는데

때를 잊은 맏아드님 밤새는줄 모르시고

등불아래 책장을 번지셨거니

밥을 짓는 불길이야

시간이 가면 찾아들기마련이건만

시간이 흐를수록 뜨겁게 타오르는것

어머니의 사랑이던가

어린시절 아드님의 얼어든 손을

감싸안고 녹이시던 그 치마폭에

개암나무가지를 겹겹이 싸드시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히 꺾어

토막토막 불길속에 밀어넣고계셨나니

맞이하고 떠나보낸 혁명가의 밤길에

지으신 밥은 그 얼마이며

꾸려주신 행장은 얼마였던가

하지만 이밤은 나무불만때시며

생각도 깊으시여라

해방된 조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서

수령님 이밤도 잠 못 이루시나니

고향집을 멀리 떠난 타향에서도

어머님 계신 집을 늘 떠나 사시는

아드님과 함께라면 열백밤을 못 새울소냐

간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색의 등잔불은

새날을 밝혀 꺼질줄 몰랐고

부엌의 불은

아궁안에서 꺼질줄 몰랐다

장구한 싸움길에 필요한것을

어디서 마련해야 옳단 말인가

적의 무기 빼앗아 원썬을 치는

무장투쟁의 길 유격전에 있나니

12월의 명월구회를 앞둔

수령님의 가슴은 달아오르고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

두분은 이렇게 함께 계셨다

쌀익는 냄새가 없는 부엌에

어머님은 불을 때시고

끼니도 휴식도 잊으신 아드님은

무장투쟁방략의 위대한 구상을

무르익히고 계시었다

명가사들과 더불어 영생하는 시인

사람들은 오늘도 가요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들으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초병들을 생각하고있다.

하늘엔 파사론 해빛 넘치고
땅우엔 금나락 설레이네
농장벌 지나던 병사는
벼이삭 물결치는 소리를 듣네
아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소리
병사의 가슴에도 파도쳐오네

...

오늘도 노래가 우리에게 남기는 여운은 참으로 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들은 선행한 그 어느 역사적시대, 그 어느 사회에서도 누릴수 없었던 최상의 사회적지위에서 일하는 영예와 긍지, 자부심을 안고 자기의 성스러운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

주체63(1974)년 11월 어느날이였다.

조선인민군협주단 작가로 있던 김두일의 방으로 한 일군이 찾아왔다.

그는 흥분된 어조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작가가 가사를 쓴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를 록음으로 들어주셨다고 흥분된 어조로 말하였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을?...》

울렁이는 가슴을 작가는 진정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과연 그이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가사를 제대로 썼을까?...)

작가는 자기가 군부대에 나가 현실체험을 하면서 가사를 쓰게 된 사연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다.

사실 그 가사는 작가가 군부대에 나가 병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 병사가 고향에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보고 고향벌의 벼이삭이 막 무르익고 설레이는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다는 말을 듣고 시상이 떠올라 쓰게 된것이였다.

그가 가사를 처음 내놓았을 때 그 반영은 아주 좋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착상이 좋고 기발하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일부 창작가들은 제맛이 나는건 좋은데 종래의 가사들과 너무 대조적이고 톱 빼

여지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하여 작가는 제기되는 의견을 참작하면서 가사를 손대느라고 하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를 들어주시였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래를 들으시고 더없이 만족해하신 사연을 전해듣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보시던 문건을 밀어놓고 시고 노래를 들으시기 전에 먼저 가사를 보시면서 노래제목이 흥미있다고 하시며 들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깊은 사색속에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가고 물어주시였다. 그리고나시여 그이께서는 노래가 참 멋있다고, 들을 맛이 있다고, 가사도 잘되고 곡도 잘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특히 가사가 잘되었다고, 시적발견이 있고 작가의 확고한 주장이 있다고, 가사가 흠냄새가 나는것처럼 구수하면서도 내용이 깊은것이 특징이라고, 병사가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인민의 행복이 커가는 소리로 듣는다는것은 기발한 착상이라고, 우리 시대의 철학이 있다고, 깊은 연구가 없이는 이런 종자를 잡을수 없다고, 명가사라고, 명가사가 나오니 곡도 명곡이 나오지 않는가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다시한번 환하게 웃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또 들어보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나 이미 조직해놓은 협의회시간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다시 들으실수 없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못내 아쉬운듯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한 일군에게 협의회가 끝난 다음 다시 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날 협의회를 마친 다음 점심시간까지 바쳐가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래를 거듭 들어주시고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특별히 좋다고 하시며 자신께서는 이 노래를 여러번 들었다고, 최근에 창작한 노래들 가운데서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가 최고라고, 노래가 군민관계측면에서도 좋고 시기적으로도 맞는다고, 최근에 신통한 노래들이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번에 인민군협주단에서 아주 좋은 노래를 창작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시대의 요구에 맞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해낸 작가를 크게 고무해주고

싶으시여 대단히 훌륭한 노래이라고, 모든것이 만족하다고,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친필까지 또다시 남겨주시었다.

그 친필을 보며 작가는 솟구쳐오르는 크나큰 감격을 어쩔수없었다.

그러면서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이 우렁이 떠올랐다.

일찌기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을 창조할 때부터 그가 가극의 훌륭한 노래들을 많이 창작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시며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

이 나날은 작가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서 하나의 문학예술대학과정을 마친것과 같은 보람찬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이께서는 그후 작가를 만날 때마다 좋은 노래들을 창작해내도록 시적환상도 안겨주시고 창작된 작품들의 잘못된 부분들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 주체 19(1930)년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난 작가가 혁명의 군복을 입고 《김일성훈장》까지 수여받게 되었으며 《평양은 나의 심장》, 《만경봉은 제일봉》, 《수령님 높이 모신 내 조국 노래하네》,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신심드높이 가리라》 등 수많은 명가사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었다. ...

그로부터 얼마후 또다시 작가를 평가하시면서 이번에 인민군협주단에서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라는 노래를 지어왔는데 가사를 구수하게 잘 썼으며 곡도 잘 지었다고, 그 가사도 위대한 수령님의 덕성을 노래한것인데 소박하게 잘 형상하였다고, 바로 이러한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작품이라는 말씀을 주시었다.

작가는 다시금 커다란 감동에 휩싸이지 않을수 없었다.

그후 곧 출판보도물과 조선인민군협주단 예술인들의 공연활동을 통하여 널리 보급된 이 노래는 우리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열렬한 조국애와 어버이수령님 마련해주신 인민의 행복을 지켜선 충천 병사로서의 드높은 자각과 숭고한 사명감을 더욱 깊이 심어주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그때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은 한결같이 말하였다.

《참말 좋은 노래이다. 구수하면서도 서정적이고 소박하면서도 내용이 깊은 가사로 된 이 노래는 부를수록 많은것을 생각하게 한다. 이 노래를 부를 때면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와 끝없는 사랑이 뜨겁게 안겨와 정말 자기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다.》...

그렇다, 작가가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와 같은 우수한 노래들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던것도 전적으로 오래전부터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지도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로운 사랑을 받아안았기때문이다.

하기에 작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초상화를 우리르며 말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지도자동지께 조금이나마 기쁨드릴수 있는것은 일찌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세심한 지도,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오늘 작가 김두일은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그는 노래 《병사는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듣네》 등과 같은 명곡들과 함께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 살아있는것이다.

김정미

상식

학문과 관련한 몇가지 말

—력사는 인간을 현명하게 하고
시는 기발하게 하며
수학은 섬세하게 하고
자연철학은 심사숙고하게 하며
물리학은 심중하게 하고
물리학과 수사학은 논쟁할수 있도록 한다
—음악은 웅변적으로 사고하도록 우리를 자극

한다
—정밀과학의 두눈은 수학과 물리학이다
—음악은 감각의 수학이고 수학은 리성의 음악이다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다

선군시대 사회미학적리상과 진달래의 서정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최길상

해빛이 따스해 그리도 끝나
봄소식을 전하며 피는 진달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꽃송이
진달래야 진달래야 조선의 진달래

...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중에서)

체험과 시적환상

우리 문학에서 진달래는 다양한 색깔과 정서로 노래되어왔다.

그만큼 조선의 진달래는 우리 민족의 넋과 운명과 아름다움과 삶의 지향으로 상징되면서 끝없는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변함없이 곱게 피고 또 피었다.

참으로 조선의 진달래는 만물의 소생을 안아오는 이른봄의 상징으로 때로는 오가는 비바람 다맞으며 긴긴밤 찬서리에도 지지 않고 피고 또 피는 봄의 선구자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되었다.

이것이 진달래의 미학적속성이고 서정이다.

문학에 반영되는 진달래의 이러한 미학적속성이 다채로운 뜻과 양상을 가지고 서정화되는것은 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과 작가의 체험에 의하여 형상되기때문이다.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 [림금단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6(2007)년 7호] 는 선군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으로 조명된 진달래의 서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 사람의 능동적활동을 떠난 아름다운것이란 있을수 없으며 사물현상은 사람의 미적감정체험의 대상으로 된 조건에서만 아름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감정과 정서는 객관세계의 사물현상자체를 반영하는 인식과는 달리 사물현상에 대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심리현상이다. 감정과 정서의 기초는 사람의 지향과 요구이다. 사람의 지향과 요

구에 기초하여서만 감정이 발생하며 체험된다. 여기에는 고상한 정신적요구를 반영하는 미적감정이 있으며 그것은 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에 의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다.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에 반영된 감정정서는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진달래라는 사물현상자체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진달래에 대한 선군시대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의 굵이침이다.

장시에는 먼 세월의 눈비속에서도 시들지 않고 지지 않는 《포화속의 그 봄날/내 마음속에 피어난/백송리 진달래》가 노래되어있다.

온 나라가 전쟁의 시련을 겪고있던 주체 41(1952)년 봄날 백송리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뵈왔던 시인은 지금 반세기가 넘은 세월 푸른 언덕우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리러 발걸음 재촉한다. 너무나 그리워 꿈결에도 찾던 수령님의 품에 안긴듯... 그리고 목메여 심중으로 아뢰인다.

...

—어버이수령님, 저희들이 왔습니다
전화의 그 봄날 백송리에 오신 수령님께
진달래꽃다발을 드렸던
제대군인녀대학생들도 찾아왔습니다

...

여기서부터 장시는 진달래에 대한 감정정서의 실마리를 풀어놓으며 시적환상의 물결우에 서정의 물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전화의 그날 백송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셨던 그때처럼 밝게 웃으시며 그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고 그날의 단발머리녀대학생이 오늘은 조선의 녀류작가가 되었다고 대견해하신다.

시인은 끝없이 행복했다. 심혼은 행복의 무아경에 젖어 환희로 설레인다.

이것은 시적환상이다. 시적환상이면서도 생동한 실감의 세계이다.

시적환상은 체험하고 사색하고 탐구하는 시인에게만 그 아름답고 매혹적인 자태를 드러내길 즐겨한다.

시의 환상은 바로 시인의 깊은 탐구와 사색의 과정에서 시대가 시인에게 뜨겁게 귀뜸해주는 이야기이다. 시인은 이 시대의 이야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서정을 펴나간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백송리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셨던 그때는 우리 공화국의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미제와의 결전이 한창이던 때여서 그 누구나 전쟁 하나만을 생각할 때였다. 전호의 뜨거운 탄피를 밟으며 불에 끓는 강물에 젖고 또 젖으며 화선천리를 주름잡은 수령님의 군화, 그 군화를 신으시고 불비 쏟아지는 험한 길 헤치시며 이름없던 작은 마을 백송리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오신 수령님, 포연먼지 뽕양게 울랐던 수령님의 군화를 제 손으로 닦아드리지 못한 죄송스럽던 마음 지금도 가슴에 무겁게 어려있다. 하기에 시인은 추억의 하늘가에 푸른 가지 펼치고 역사의 증견자인양 수많은 사연을 년륜에 새기며 서있는 백송리의 밤나무와도 교감을 하며 그 년륜에 새긴 역사의 사연을 심장으로 더듬는다.

사람들의 마음에 강렬한 걱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이러한 시적환상은 책상머리속에서 또는 구태의연한 서재속에서는 결코 나올수 없다.

그것은 탐구하고 체험하고 사색하는 시인에게만 날개를 달고 깃을 치며 날아드는것이다. 하여 시인의 흥분된 심리, 령롱하고 우아한 맑은 리성에 의해 시에 생기를 불어넣는것이다.

얼핏 보면 이러한 시형상만을 놓고서도 시적환상의 의의를 충분히 감득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시인은 시의 모든 형상요소를 진달래의 서정으로 잔잔하면서도 맵시있게, 섬세하면서도 뜨거웁게 승화해가고있다.

여기에서 시인은 위대한 수령님의 심중의 세계로 환상을 무르익혀가면서 진달래에 대한 의미를 더욱 부각해가고있다.

한사람의 전투원이 것처럼 귀할 때에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을 대학에 불러주시고 멀리 산속의 대학으로 찾아오신 수령님께 그 대학생들은 너무나 아뢰고싶은 사연이 많았다. 《돌격전에 피흘리며 쓰러지면서도/마지막 수류탄을 넘겨주던/그 전우의 말없는 당부를/미국놈 줄폭탄에 숨진/고향집 어린 동생의 복수를》...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읽어보시며 한동안 말씀 없으시다가 소담한 진달래꽃다발을 연락우에 놓으시고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있다, 우리는 이제 재더미만 남은 이 땅우

에 인민의 지상락원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장엄히 선언하시고 연락우의 진달래꽃다발을 이윽도록 정겹게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으신다.

...

우린 그때 너무도 몰랐어라
수령님께서 어찌하여
진달래꽃다발을 받으시고
그처럼 기뻐하시였는지
연분홍꽃속에 어린 따듯한 미소
어찌하여 그리도 환하셨는지

우린 그때 알수 없었어라
조국진군의 길에서 빨찌산의 녀전사 삼가
드린 꽃
해방의 새봄을 안고 피어난 백두산의 꽃이어서
수령님 그처럼 깊은 추억에 잠기신줄

...

우리는 여기에서 진달래에 대한 시인의 심오한 체험에 의하여 정화된 심저의 설레임을 듣는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로 섬세하고 뜨겁게 분석해들어가는 시인의 주정이며 생생한 정서의 형상적유기체이다.

시인이 세월도 지울수 없는 그리움을 안고 전화의 그날처럼 아버지수령님께 달려가는 오늘 《어서 드려요/수령님께선 진달래를 몹시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볍게 떠밀어주시는 백두산어머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실로 이 시에서 진달래가 다만 봄을 먼저 알리는 선구자로서만 해석되기에는 시인의 리성이 너무나도 인상적이다.

진달래, 그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백두산3대장군의 숭고한 뜻이 어려 붉게 피는 조선의 녀의 상징이였고 녀원과 지향, 희망과 미래의 상징이였으니 어느해에 백송리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앉으셨던 야외강의실 통나무의 자에 앉아보시며 누구나 백송리에 와보면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예지, 무비의 담력에 탄복할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삭여주며 이 봄에도 백송리에 태양의 봄진달래가 만발하다고 주정을 한껏 터쳤을때 우리는 그 시세계에 매혹되는것이다.

실로 오가는 비바람 다 맞으며 긴긴밤 찬서리에 피고 또 피어서 때늦은 봄에도 사연을 담아 못 잇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듯 해빛밝은 강산에 피는 조선의 진달래를 노래한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심원한 뜻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시형상이다.

여기에 바로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에 나래치는 시적환상의 높이와 여운, 시형상의 빛나는 모습이 있다.

시인의 정서와 시대의 서정

시인의 정서는 사회미학적리상과 밀접히 결부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사회미학적리상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이며 그들의 헌신적인 정신력이다. 이것들밖에서 우리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발견할수 없으며 우리 시의 시적정서가 있을수 없다.

우리 시의 시적정서는 우리 당의 선군령도에 대한 절대적인 공감이며 여기에서 꽃피나는 인간개성에 대한 노래이다. 그것은 시인의 선군현실에 대한 미학적평가이다.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는 진달래의 형상을 빌어 표현한 시인의 사회미학적리상이다. 시인은 위대한 태양의 해빛아래 피여난 그윽한 진달래의 꽃향기에 심취되어 자기 리상의 실현을 확신하면서 서정을 펴나가고있다.

장시는 사상의 심오성뿐아니라 그 서정의 울림이 주는 강렬한 시대성과 형상의 명료성, 표상과 표현의 정확성과 명량성으로 독자들을 감동케 한다.

시인은 여기에서 진달래에 대한 섬세한 분석과 감흥, 그로부터 표상의 풍부성과 다채로움, 녀성적인 감각과 매혹적인 느낌으로 선군시대의 서정을 퍼올리며 자기의 개성을 발현한다.

장시도 서정시이다. 다만 긴 서정시라는데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는 시인자신의 풍부한 체험과 거기에서 얻은 열렬한 사상감정이 선군시대의 서정으로 일관되어 용융한 흐름을 이루고있다.

우리는 장시에서 시인이 전쟁의 그날 백송리에 오신 어버이수령님께 너무나도 소박한 진달래꽃다발밖에 드리지 못한 송구함을 금하지 못하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조국의 위대한 승리, 전승의 7.27을 앞당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감사의 정에 심장을 불태우며 만세의 환호성 터쳐오르는 전승열병광장에서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대학생종대, 최고사령부의 《특별병중》에 사색을 모으며 서정을 펴내는데 특별한 주목을 돌리게 된다.

...

아, 그날 어버이수령님
우리 대오를 사열하시며 얼마나 대견해
하시던가
목청껏 만세를 부르는 대오속에서
백송리에서 수령님께 헌시를 읊어드린
그 청년대학생의 림름한 모습도 알아보시는가
부대에서 대학으로 올 때
최고사령관동지 석고상을 모시고왔던
그 체대군관대학생의 목소리도
다 들으시는가

...

물론 이것만으로는 시인의 정서가 시대의 서정으로 달아올랐다고 말할수 없다. 여기에는 체험한 생활의 단면만이 소개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정서적초점은 전승광장의 《특별병중》에 모아진다. 화선천리 불바다를 헤치며 대학으로 온 포화속의 진달래—대학생종대의 열병식행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는 시인의 감정에는 벌써 선군의 기상과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다. 아직은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선군의 진달래가 망울져 아롱짐을 독자들은 감득한다.

장시는 체험된 생활에서 환기된 시적환상을 펼쳐던 세계에서 선군시대의 현실로 시형상을 대담하게 비약시켜 진달래의 서정을 감격적으로 펼쳐나간다. 《꽃잎마다 수령님미소 어려있고/송이마다 수령님뜻 지녔으니/세월이 갈수록 불타는 그리움속에/가지 않아라 백송리의 4월은/지지 않아라 백송리의 진달래는》... 시인은 그 진달래의 속삭임을 듣는다. 가렐쳐졌던 전화의 그날 어버이수령님의 축복안고 여기 백송리에 뿌리내려 포화속에서도 곱게 핀 진달래는 영원히 지지 않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선군혁명 한길에서 백발홍안의 청춘들로 더욱 만발하고있다.

얼마나 감동적인 조선의 진달래에 대한 레찬의 정서적화폭인가. 그래서 아마 시인은 백송리에서 어버이수령님을 모셨던 감격을 노래한 서정시 《진달래꽃다발아》가 적혀있는 시첩을 한생의 리정표로 마음속에 간직하였을것이다.

백송리의 진달래는 시인이었고 시인은 백송리의 진달래였다.

그러나 그 진달래는 시인 한사람의것이 아닌 선군조선의 기상으로, 시대의 녀으로 상징되었으니 여기에는 시인의 높은 일반화의 솜씨가 깃들

어있고 시인의 창작을 관통하는 서정이 있다.

시인은 아동너류시인이다.

무릇 시인들에게는 자기의 개성을 특징짓는 정서가 있고 그 정서에 의해 피어나는 서정의 흐름이 있다.

시인의 정서와 서정을 특징화한다면 그는 봄에 반한 시인이며 꽃을 사랑하는 시인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소냐. 그러나 그것이 시인의 사고와 심장에서 고동치는 감정의 총체로서 그의 미학관을 규정지을수 있는것으로 되려면 그를 입증하는 작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시인이 창작한 서사시 《새싹이 움틀 때》, 《백두산의 봄누나》와 같은 대표적인 작품들에서 봄과 꽃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미학관을 감수하고도 남음이 있다.

파릇파릇 봄바람이 불어오고 보슬보슬 봄비가 내려와 봄동산에 곱게 피어난 고운 애기썩, 여기에 따뜻한 해빛이 비쳐 이제 그 싹들은 자라고 꽃이 피어나 내 조국 강산에 만발하려니, 그 해빛은 바로 어버이수령님 파스한 사랑이며 그 해빛을 받아 풍기는 모든 봄의 훈향과 양기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자애로운 품이다.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에게 봄을 주시고 새싹을 키워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와 자애로운 어머님의 사랑을 서사시적화폭에 한껏 노래하는 여기에 봄과 꽃에 대한 시인의 정서가 넘치고있지 않는가.

시인의 봄에 대한 정서와 미학적분석은 서사시 《백두산의 봄누나》에서 더욱 확연하면서도 강한 서정으로 무르익어 시인의 개성을 특징지으면서 봄과 꽃의 철학을 더욱 뚜렷이 부각한다.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 드린 서사시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어 오늘도 봄동산이 있다는 매우 의미심장한 봄의 철학을 노래하고있다.

《백두산의 봄누나》라는 시제자체에 벌써 이 땅에 행복의 봄동산을 지켜주시고 가꿔주시는 위대한 어머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뜨겁게 안겨오는것이다.

봄과 꽃에 대한 시인의 개성적인모습은 다만 큰 작품에서만이 아니라 시인의 수많은 동요, 동시들에도 봄에 반하고 꽃을 사랑하는 모습이 형상의 화폭에 새겨져있다는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는 항상 우리 시대 아이들의 모습을 꽃으로 보며 노래하는것을 필생의 창작적지향으로 간직 한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의 시에는 봄과 꽃이 하나의 정서적감정으로 일관되어있다. 《학교갔다 오

는 길/꽃나비 팔랑팔랑/내 머리에 빨간 리본/꽃인 줄 아나봐요》, 그래서 소녀는 자꾸 달려가며 뒤를 돌아보건만 꽃밭에는 가지 않고 자꾸만 따라온다. 《원수님 보내주신/꽃리본 끈고고와/어디 한번 앉아보자/자꾸자꾸 따라》 오는 꽃나비...

얼마나 생동하고 수정같은 샘물처럼, 백옥같은 마음처럼 천진하고 순결무구한 동심의 세계에 비낀 꽃나비와 꽃리본인가. 이밖에도 시인의 작품들에는 어느 대상을 노래하건 이러한 아름답고 청신하고 새봄처럼 맑고 깨끗하게 감실대는 봄과 꽃에 대한 정서가 또랑또랑한 꽃봉오리의 목소리로 쉼없이 울려나온다.

그러면 다시 《백송리의 진달래》의 시세계로 돌아가보자.

진달래에 대한 시인의 시적정서는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게 하는 시의 작용과 기능의 견지에서만 고찰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생활의 내용과 시대의 의미를 가지고있다. 이것을 미학적범주에서 말한다면 아름다운것은 생활적이며 시대적인 내용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맨노전바닥에서 허물없이 학생들과 마주앉으시여 잉크가 핀 누런 학습장도 펼쳐보시고 견장자리가 또렷한 색날은 군복을 보시며 전쟁이 아무리 어려워도 대학생교복을 해주자고, 녀학생들에게는 솜포단, 내의도 비누도 보내주자고 말씀하시는 그 격정적인 화폭을 감동깊이 펼쳐놓는다. 그리고 전투에서 한팔을 잃고 박수를 치지 못하는 영예군인대학생을 가까이 부르시여 오른팔이 있으니 얼마든지 공부할수 있다고 하시며 병사대학생들은 승리한 조국의 아름다운 래일을 건설할 나라의 역군들이라고 고무해주시는 격정적인 장면도 펼쳐놓는다.

이것은 생활적이며 시대적인 내용이다.

장시는 여기에서 봄의 정서으로 시상을 모으며 주정을 터친다.

...

아, 봄이었다

정녕 봄이었다

마음에도 산천에도 질게 깃들던

전쟁의 그늘 다 가져준 화창한봄이었다

...

그래서 시인에게는 지나가는 바람결도 감격에 겨워 흐느끼는것 같고 어버이수령님 들리셨던 학생식당이며 《염수대근탕》이라 멋있게 이름을 지

은 락관에 넘친 식사당번대학생의 아뢰임을 들으
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을 따라서 어려움
도 있고 웃음소리 터치는 그날의 랑만적모습을
마음속으로 회억하며 백송리풀안은 더 밝아지고
망울졌던 진달래는 꽃잎을 펼치고 《우리의 모습
진달래로 활짝》 폼을 절절한 추억으로 갈마드
는것을 금할수 없다. 하여 수령님의 손을 잡고 작
은 오솔길을 걸으며 행복의 무아경에 젖어 한없
는 사랑과 미래의 세계에 가슴뿌듯이 잠기며 봄
에 대한 정서를 진달래의 서정으로 즐기치게 이
끌어간다.

...

아, 진달래 진달래
태양의 해빛 안고 만발하여 설레이는
사랑의 봄진달래
조선의 봄진달래

...

여기에 시인의 정서가 사회미학적리상과 유기
적인 통일을 이룬 형상유기체로서의 장시의 모습
이 있다.

선군현실과 진달래의 서정

시인은 선군시대의 현실과 이 현실속에서 사는
선군시대 인간들의 가장 양양된 정서속에서 살고
동시대인들을 격동시킨 의의있는 사건속에서 호
흡하고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시인들은 선군시대의 의의있는 사건
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는것을 시대의 요청으로
부과되는 본분과 영예로 삼고있다. 그렇지 않으면
참다운 의미에서 시가 태어날수 없다.

장시 《백송리의 진달래》는 비록 추억과 환상
의 세계로 진달래의 정서를 노래하였지만 여기예
는 선군시대가 맥박치고 강성대국의 봄진달래가
만발하고있다는것이 격조높이 노래되고있다.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의 축복 안고 여기 백송리
에 뿌리내려 포화속에서도 곱게 핀 봄진달래에도
시상을 펼쳐가고있다. 그 봄진달래가 선군시대에
더욱 억세게 꽃피나 백송리에 모였다. 거기에는
오늘의 대학교수가 된 야전병원간호장이었던 《그
더퍼리》도 있고 과학원책임일군이 된 제대군관,
수령님 펼쳐주신 대자연개조구상을 실현하기 위
해 한생을 뛰어다닌 유명한 지질학자도 있고 장
령도 당일군도 있다. 그야말로 강성대국건설의 주

축이 된 사람들의 축도이기도 하다.

이 백송리의 진달래들은 모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뜻을 받드는 한길에서 《백발홍안의
청춘》들이다.

시인은 백송리의 어제와 오늘이 한자리에서 이
어지고 이어지는 이 선군현실앞에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도 끝없는 사연을 담은 소중한 시첩을
펼치고 수령님 모셨던 감격을 노래한 서정시 《꽃
다발아》를 새겨보며 그날에 하셨던 어버이수령님
의 말씀을 심장으로 되뇌인다.

...

—오늘이 바로 내가 백송리에서 내놓은 구상을
김정일동지가 현실로 되게 한 날입니다

...

실로 감회로운 일이다.

백송리의 그날도 4월 13일이였고 봉화갑문이
준공된 그날도 4월 13일이였다.

여기에서 시인은 독자들을 선군시대에 펼쳐진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과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백
송리의 그 봄에 뿌리를 둔것이라는것을 가슴뜨겁
게 새겨보며 선군현실의 그 모든 장엄함을 심저
에 간직하며 선군령장의 뜻을 가슴깊이 안아본
다.

...

—오늘 우리가 강성대국이란 말을 할 때
그 강성대국의 기틀은 이미
백송리에서 우리 수령님 마련하시였습니다

...

그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확신에 넘치신 음성을
온넋으로 받아안는다.

...

—이제 두고보라구
김정일동지는 오래지 않아
세상에 으뜸가는 나라
강성대국을 이 땅위에 우뚝 세울것ियो

...

우리는 현실로 체험하고있다. 제국주의원썬들의
고립압살광풍이 휘몰아치고 포성없는 전쟁이 그

칠날 없었어도 이 땅우엔 날에 날마다 백송리의
봄이 꽃피고 설레이고있음을...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내 조국의 저 하늘가에 백두령장의
신념과 의지로 강성대국의 려명이 밝아왔고 그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위대한 력사의 시각이 다
가오고있음을...

참으로 백두산3대장군의 정서가 뜨겁게 깃들어
있고 민족의 향취와 기상이 풍기는 백송리의 진
달래, 조선의 진달래!

...

푸른 하늘 저 멀리 이 세상 끝까지

조선의 승리를 전하며
만발하고 만발하라
아, 승리의 봄진달래
사랑의 봄진달래
강성대국의 봄진달래여!

선군시대의 사회미학적리상이 세찬 퍼덕임으로
나래치며 피어나는 백송리의 봄진달래, 이제 주체
101(2012)년에 가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
어제끼며 더욱만발할것이다.

우리는 시인이 그 문어구에 백송리의 봄진달래
를 못 잊을 어머님의 그 모습이런듯 더 아름답고
억세게 피워놓으리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

가사

그 녀를 이어가리

권오준

내 삶의 언덕에 빛을 뿌리는
투사의 그 모습 잊을수 없네
혁명의 승리를 굳게 믿어 고동치던 그 심장
아 오늘도 래일도 내 안고살리라

락원의 봄 꽃핀 정다운 이 땅
투사가 그려본 미래이여라

세월은 흘러도 별과 같이 영생하는 그 녀를
아 오늘도 래일도 내 안고살리라

불굴의 신념은 미래를 본다
혁명의 철리를 새겨준 투사
승리의 해돋이 밝아오는 찬란한 래일로
아 장군님 따라서 그 녀를 이어가리

고전시

만경대에 오르며

리시항(1672—1736)

김정희 역

강변따라 우뚝하게
솟아있는 만경 봉
비취색 푸른 기운
만경을 돌렸구나

펼쳐진 자연경치
눈길을 끄당기니
신선배에 실리어
산마루로 오르는듯

갈매기 해오라기
배를 따라 돌아오고
푸른 시내 붉은 꽃물가
걸음 붙잡아세우누나

옛시인의 본을 따서
좋은 시를 지으려는데
강산빛 더욱 아름다워
이 마음 만족해라

열두시간



전창철

적후정찰병들이 피의 대가로 보내온 무선전보문을 읽어가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표정은 긴장되었다. 전보문의 마지막글자까지를 다 읽고나신 그이께서는 피곳 손목시계를 보시였다.

분침은 지금 막 오후 다섯시를 넘어서고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분침에 그냥 시선을 박으신채 《틀림이 없겠지?!》라고 짚막하나 엄격한 어조로 물으셨다.

《그렇습니다!》

그이께서는 무선전보문의 내용보다도 엄청나게 높은 대답소리에 놀라기라도 하신듯 언뜻 정찰국장을 바라보시였다.

《수고했소. 돌아가보오.》

정찰국장이 방에서 나간 다음 그이께서는 즉시 에 전화로 작전국장을 부르신다.

《다들 내 방으로 오오. 빨리.》

심상치 않은 전화를 받은 작전국성원들이 달려오는데는 1분이 되나마나하였으나 그이께서는 그 1분동안에만도 몇번이나 시계를 보시였다.

작전대 광견에 장령, 군관들이 정렬하자 그이께서는 한손에는 무선전보문을, 다른 손에는 지시봉을 잡으셨다. 단 한마디의 서두도 없이 직방 정황 설명으로 들어가신다.

《오늘 열일곱시 현재 적들은 바로 여기 (그이께서는 뽕죽한 지시봉끝으로 벽에 드리운 군용지도에서 철원서쪽의 어느 한 지점을 짚으시였다.) 257.9고지계선에 미제침략군 제7보병사단을 비롯한 3개의 정예사단들을 극비밀리에 집결시켰습니다. 수백대의 비행기와 그리고 탱크, 포들의 엄호 준비도 끝났습니다. 놈들의 공격개시 날자와 시간

은 래일 즉 25일 정각 다섯시요.》

작전일군들은 그 누군가의 구령에 따르기라도 하듯 일제히 자기의 손목시계들을 보았다. 그다음은 이미 정찰자료로서의 유효성이 상실된, 최고사령관동지의 왼손에 들려있는 그 무선전보용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들마다에서 뿜어지는 초긴장으로 하여 방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드는듯싶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팡이마냥 지시봉을 방바닥에 세워짚으시면서 지도를 등지며 돌아서시였다.

《현재 257.9고지계선에는 앞선 전투들에서 피를 많이 흘린 아군 한개 연대가 있을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고지를 건지하지 못한다면...》

그이께서는 자신의 말뜻을 어느만큼이나 감득하고있는지 가늠이라도 하시려는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좌중을 주—옥 둘러보시였다.

《그 작전적, 전술적후과에 대해서는 시간상 설명을 략합니다.

자, 다들 앉으시오.》

그이께서는 마치도 매 사람들의 어깨를 일일이 눌러앉히시듯 손바닥으로 거둑거둑 허공을 누르시였다. 의자를 차지하는 장령, 군관들의 소음에 방안의 공기는 한순간 탕개가 늦추어졌다.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신 그이께서 다시금 깃드는 납덩이같이 무거운 정적을 방안이 드르륵 울리는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깨치신다.

《얼굴표정들이 다들 왜 그 모양이요?》

다시한번 좌중을 휘익 둘러보신 그이께서는 어글어글한 두눈을 번쩍이시며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 우리가 하자꾸나 결심을 해서 못해낸 일

이 있었소?)

그것은 물음이 아니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캄캄한 먹장구름을 뚫고 내리비치는 한줄기의 빛을 보는듯 한 환희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비꼈다.

《어쨌든 정황은 정황이니만치 긴장한건 사실이에요.

자, 지혜들을 합쳐 하늘로 솟아날 구멍을 뚫어 보지요.》

적아간의 역량배치가 상세히 기입된 철원일대의 지도가 작전대우에 펼쳐졌다. 그 어떤 가설이나 《만약》이라는 전제조건도 허용치 않는, 오로지 절대치만을 요구하는 긴장한 머리싸움이 시작되었다. 담벽같은 주장과 비수같은 질문들이 어지럽게 엇갈리며 불꽃을 튀기었다. 량각기들이 팔자걸음을 하며 지도우를 부지런히 걸었다.

귀중한 분초초들이 사정없이 흘러갔다. 코잔등에, 이마에 쌀알같은 땀방울들이 내뿜었다. 했으나 그 누구의 입에서도 절대치는 좀처럼 나오지 못했다. 얼음판에 들어선 차바퀴마냥 일진일퇴의 공회전이 숨가쁘게 반복될뿐이었다.

그 자그마한 봉우리에 들이밀 예비대가 없었다. 아니, 필요한 예비대를 그곳까지 들이미는데 필요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랐다.

시간, 시간! ... 그 무엇으로 흥정할수도 타협할수도 없는 시간의 흐름에 맞설 그 어떤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이 모두의 가슴에 무쇠처럼 굳어져가는 그 순간에 문득 **김일성**동지께서 쥐고 계시던 붉은색연필 뒤등으로 푹푹 가볍게 작전대를 두드리시었다.

모두의 시선이 그 색연필에로 일제히 가닿았다. **김일성**동지께서 천천히 일어서시자 일동은 자리를 차며 일어섰다.

《257.9고지가까이에는 떼여낼만 한 예비대가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보병들의 도보행군으로는 제시간에 가낼수 없다는것이 우리가 찾은 답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기동수단을 가지고있는 포부대들을 동원합니다.

나의 결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통실의 화약과도 같이 한껏 압축되고 집약된 말마디들로 자신의 결심을 선포하시는 그이의 어조는 침착하시었다.

한분, 한초를 얻기 위하여 격식과 절차들을 뛰어넘었다. 그 자리에서 명령서가 작성되고 그 자리에서 해당 부대들에 명령이 하달되었다. 지적된 시간을 무조건 보장해야 한다는 단호한 명령을 련이어 하달하시는 **김일성**동지의 목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좌표 ○○...찾았소? ... 2지역의 사미봉기슭...옳—소. 바로 거기!... 래일 새벽 4시까지 무조건 진출하오. 포탄은 1.5정량! 복창하오!...》

명령하달이 끝난 다음 그이께서는 화기가 돌기 시작하는 장령, 군관들의 얼굴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다가 《작전국장동무.》하고 범상하신 어조로 부르시었다.

그의 굳어지는 표정을 띄여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국장동무, 257.9고지근방에서 한두군데 전투를 더 조직하는게 어떻겠소?》

그이의 말씀의 뜻을 대번에 알아차린 작전국장은 가슴속에 차오르는 감동을 누르기가 어려운데 경충 높아진 목소리로 《옳습니다! 알았습니다!》하고 힘차게 대답올렸다.

《시간이 없으니까 거 뭐 새로 조직하느라 하지 말고 이미 계획하고있는 전투들중에서 골라 해보오. 그러되...》

그이께서는 한순간 말씀을 끊으셨다가 마디마디에 그루를 박으며 계속하시었다.

《지점을 잘 선택해야 하오. 257.9고지와 너무 가까와도 좋지않고 너무 멀어도 좋지 않소. 알만 하오?》

작전회의를 끝마치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시한번 시계를 보시었다. 무선전보문을 받으신 때로부터 벌써 30분이 지나갔다. 그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계바늘을 쑥 돌려놓은듯한 느낌이 드시었다.

그이께서는 련이어 포병사령관과 통신국장을 부르시여 필요한 지시들을 세세히 주시고나서 작전국장파 서기, 부관을 따로 부르신 다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시었다.

《이 시각부터 30분에 한번씩 포병부대들이 어느 계선까지 행군해갔는가를 전화로 장악하오. 그리고 그 결과를 지체하지 말고 나에게 보고하시오.》

긴장과 흥분이 벌겋게 어린 세사람의 입에서 《알았습니다!》라는 대답소리가 일제히 울려나왔다. 그들이 바쁜 걸음으로 문가를 향하는데 문득 《부관동무는 좀 남소. 먼저 좀 갔다와야 할데가 있소.》라는 그이의 목소리가 나직이 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배람을 여시었다. 종이한장과 그리고 진박씨의 테를 두른 안경 하나를 꺼내시었다. 《높은 도수로 구하느라 했는데 맞겠는지...》하고 혼자말씀을 하시면서 안경을 끼고 책상우의 신문에 허리를 굽히시었다.

《어이구!... 내 눈엔 어지러워 아무것도 안 보이누만.》

그이께서는 제격 안경을 벗어드시며 부관에게로 다가가시었다.

《이제 곧 최할머니네 집엘 갔다오오. 여기 이… 종이에 할머니가 애타게 기다리는 손자의 주소가 있소.》

안경다리를 차곡차곡 접으면서 나직이 말씀을 이으시었다.

《전번에 보니 다리가 부러진걸 실오래기로 비끄러맨 안경을 끼고 바느질을 하더구만.

요새 내가 좀 바빠서 가보지 못했는데 나의 인사도 전해주오.》

부관은 그이께서 내어주는 종이장과 안경을 받아 들고 어리뻑해 서있기만 하였다. 자기 할바를 몰라서가 아니라 한순간에 펼쳐지는 너무도 대조가 강한 두 세계에 아연해진 탓이었다.

×

《무슨 놈의 날씨가 저 모양이누?》

부엌문에 붙어있는 손바닥만 한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며 최씨는 혀를 끝끝 찼다. 앞산이며 앞벌이 온통 호곡하는 눈보라에 새뽀얗다. 대한이 지나고 눈죽이가 시작되길래 이제는 겨울도 끝나는가보다 했더니 저렇게 앙탈을 부린다. 처마밑에 길다란 고드름들마저 눈가루를 뒤집어써서 팔뚝같이 실해졌다.

(저놈의 고드름 언제면 녹으려노?…)

바깥세상에 정신이 팔려있던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꼬덕! 꼬꼬꼬 꼬덕! 꼬꼬꼬 하는 닭의 울음소리에 《예구나!》하고 탄성인지 비명인지 애매한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다. 담벽모서리에 매달려있는 닭둥우리에 틀고앉아 우렁차게 울어대던 깡장닭이 부채살같은 날개를 퍼덕이며 부엌바닥으로 화르르 내려앉았다.

구부정한 허리에 네할개를 저으며 둥우리로 다가간 할머니는 물먹은 황새마냥 목을 뽑아들고는 기웃이 들여다보았다. 손을 들이밀어 조심스럽게 닭알을 끄집어냈다. 줌이 벌도록 실한 닭알이다.

짜리바구니의 보자기를 벗겨냈다. 하나같이 실한 닭알들이 가득차있다. 집계같은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닭알들을 옮겨 자리를 내고는 그 자리에 새 닭알을 채웠다. 닭알바구니를 점도록 내려다보는 할머니의 표정은 좋다는건지 나쁘다는건지 종잡을수가 없다.

며칠씩 때식거리가 떨어질 때에도 손을 대지 않은 닭알이다. 인생의 기쁨이, 희망이, 소원이 오로지 그 바구니안에 담겨져있는듯 아침저녁 때없이 그리고 먼길을 갔다와서도 그것부터 열어보는 닭알바구니다.

석유방등에 불을 켜다. 가마를 가져내고 물을 부었다. 꿀꿀거리며 그림자마냥 따라다니는 닭을 내려다보면서 《비켜라, 시끄럽다. 그러다 발 상하

면 니 고생하지 내 고생하겠니.》하고 욕설을 퍼붓는다. 아궁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을 피우느라니 닭이란 놈이 이번에는 화르르 날아 어깨우에 난땀 올라앉는다.

《쩌쩌… 어쩌나 보자. 나하구 놀자니?》

입으로 욕을 하면서도눈은 활짝 웃고있다.

《흐흐! … 아유, 요 팔알같은 눈알 좀 봐라. 아유!…》

어깨를 으쓱거리며 등개질을 한다. 어깨가 오르내리는데로 닭은 날개를 푸덕거리며 《춤》을 춘다.

《어어… 잘은 놀구있다. 내리지 못하겠니? 너하구 놀다가는 밥 굶겠다.》

그랬다. 이 지붕아래에 살아움직이는것이란 할머니와 깡장닭뿐이었다. 토지개혁때 반동놈들의 칼에 령감을 잃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전쟁이 일어난 첫해에 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벽돌공장에 다니던 머느리마저 미국놈들의 폭격에 잃었다. 이제 남은 피줄이란 군대나간 손자뿐인데 그마저 제 예미까지 잃고는 날강도 미제침략자들을 모조리 쳐죽이기 전에는 집문턱을 넘지 않겠노라는 편지를 띄운 후 한해가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누가 짐승을 미물이라더냐?… 천만에! 할머니는 닭과 《말》을 한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수틀리면 부지깽이로 화풀이를 했다가도 이내 용서를 빌었다.

사방은 쥐죽은듯 고요하다. 너울거리는 불빛을 마주한채 할머니는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참기 어려운 고독이 해일처럼 온몸을 덮쳐든다.

어려서는 새맛에 살고 젊어서는 혈기로 살지만 늙어서는 정으로 사는것이 인간인가보다. 사람이 그리웠다. 웃음이 그리웠다. 정이 그리웠다!…산악에 놀리우는듯 한 이 지붕밑의 고독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이라도 치고싶었다.

《할머니, 손자생각, 아들생각에 마음이 피로울때면 아무때든지 나를 찾아오십시오. …》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이 금시런듯 귀전에 울려온다.

…채진격이 시작되고 최고사령부가 이곳에 자리잡은 그때로부터 할머니는 가시는 길에, 오시는 길에 찾아주시는 장군님을 자주 뵈왔다. 토방돌에 걸터앉으신채 잠깐 얘기를 하다 가시는 때도 있었고 새벽참에 우정 내려오시여 터밭의 김도 매주셨다. 부관이나 운전사의 손에 들리워 장작단도가져다주셨고 요 일전에는 한말가량의 흰쌀까지 가져오시었다.

그날 할머니는 너무도 황송하여 몸돌바를 몰랐다.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백성들 생각에 잡곡밥을 드신다던데…》

《별말씀을 다하십니다. 산에서 왜놈들과 싸울 땐 잡곡은 고사하고 풀뿌리도 없어 생눈을 빚어 떡처럼 베어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 군대나간 손자한테서는 여적 소식이 없습니까?》

《예, 그녀석은 제 애빌 닳아와서 한번 아니하면 다입니다.》

《손자가 마지막편지를 띄운게 언제니까?》

그이의 표정은 무척도 진지하였다.

《그게... 그게... 아유, 이 정신이라구야!》

영금영금 네발걸음으로 앉은뱅이책상으로 다가간 할머니는 뺨람속에서 바로 그 마지막편지를 찾아내서는 장군님께 드렸다.

《이걸 제가 봐도 되겠습니까?》

《예예, 그야 뭐...》

그이께서는 봉투에 씌여진 이름과 주소를 유심히 들여다보셨다. 한참만에야 속지를 펼쳐들고 읽어가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점점 어두워지시었다.

첫돌생일날에 찍었던 가족사진을 조용히 꺼내 보느라면 사진속의 아버지, 어머니가 금방 웃으며 두팔을 벌리고 뛰쳐나올것만 같다는, 원썬놈들을 다 때려잡기 전에는 절대로 집문턱을 넘지 않겠다는 병사의 편지를 읽어가시는 그이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있었다. 그 모습을 멍히 바라보던 할머니는 뒤늦게야 자기의 실책을 깨닫고 황황히 장군님께서 보시는 편지를 마주잡았다. 《그만 보십시오. 이 할미두 너무 가슴이 아파 두어번 보고는 더 볼 생각을 못하는데... 인주십시오.》

《일없습니다. 보던 편지야 마저 봐야 할게 아닙니까.》

《제발 이리저 마십시오. 빙니다, 장군님.》

할머니의 애절한 모습을 대하시는 장군님의 어글어글하신 눈망울에 핑그르르 물기가 어리시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 최고사령관은 병사의 편지를 꼭 봐야겠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속에 서리고서린 슬픔이, 눈물이, 고독이 왈칵 동을 터쳤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앞에서도, 며느리의 시신앞에서도 참고참아오던 눈물의 호수가 터져내렸다.

할머니의 앙상한 두어깨를 꼭 부둥켜안으신 장군님께서서는 아무 말씀도 못하신다. 위로할생각마저 잊으신듯 저녁어스름이 깃든 방문가에 망연한 시선을 던지신채 굳어져계셨다.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분노에 떠는 그이의 두눈에서는 온 땅덩이를 짓태워버릴듯싶은 섬광이 번쩍이시었다.

집을 떠나시면서 그이께서는 할머니의 두손을 모두어 잡으신채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할머니, 억세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선에

서 싸우는 손자가 슬픔을 이겨내고 더 용감해집니다.》

《예예...》

《손자생각, 아들생각에 피로우실 때면 아무때든지 나를 찾아오십시오. 멀지도 않은데.》

꼭 그렇게 하라고 두번째번 곱씹어 당부하시며 떠나가시었다.

그이께서 떠나가시기가 바쁘게 할머니는 농작문을 열었다. 소중히 간직하고있던 옷가지 몇개를 싸가지고 장마당으로 갔다. 그것을 팔아 감장닭 한마리를 사왔다.

바로 그날부터 할머니가 자기의 두어깨를 잡으시고 그리도 비통해하시던, 수척해지신 그이의 건강을 넘려하며 애지중지 키워오는 닳이다. 그 한가지 생각으로 한알두알 쌓아올리는 닳알바구니다.

요즈음은 하루에도 열두번씩 장군님께로 달려가고싶은 생각뿐이다. 몇번이나 자리를 차며 일어섰다가도 아서라, 거기가 어디라구! 하며 주저앉았다.

하지만 이 저녁만은 못 견디겠다. 정말 못 참겠다! 할머니는 부지깽이를 손에 권채로 움쭉 일어섰다. 한다리를 쳐든채 어깨우에서 졸고있던 닭이 깜짝 놀라 꼬댁거리며 날아내렸다. 그러나... 할머니는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었다. 거기가 어디라구!... 백성된 도리가, 인간의 도리가 할머니의 발목을 칭칭 휘감았다. 맥없이 주저앉았다.

사그라져가는 불을 멀거니 바라보기만 하였다. 문밖에서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진다. 지나가는 발자국소리인줄 알았더니 문앞에서 멎어선다.

똑똑똑 문두드리는 소리. 《계십니까?》

웬 사람이누?... 길을 잃었는가.

《뉘시유?》

두손을 무르팍에 대고 굳어진 오금을 펴느라 꿈꿉거리며 일어선 할머니는 문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할머니의 두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게 뉘신가?!...》

황황히 손님을 맞았다. 방안으로 이끌었다.

《부판어른이 이 밤중에 웬 일이슈?》

×

김일성동지의 음성은 조용하였다. 하지만 조용한 그 밀바닥에서 늑실거리는 분노는 용암과도 같으셨다. 송수화기를 꼭 거머쥐시고 눈보라가 태질을 하는 창밖으로 근엄한 시선을 던지신채 말씀하시었다.

《전선에서 당장 필요한 식량과 피복들을 어째서 종심깊이에 집결시키오?... 왜 대답이 없소?

말해보요.》

떠들거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이께서는 숫구치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계셨다.

《…후퇴때의 교훈이라?!… 그만하오. 또다시 후퇴나 하자고 지금 온 전선이, 온 나라가 결사전을 준비하는줄 아오?… 우는소리는 그만하오. 제 힘을 믿지 못하면 혁명을 못해!》

《…》

《동무도 당원이니 이번에 당중앙위원회에서 전체 당원들에게 보낸 편지부터 다시 학습하오. 그리고 집결된 물동량들을 한시바삐 전선으로 내보낼 대책을 세운 다음 동무가 직접 나에게 보고하오. … 빠를수록 좋소.》

절박 송수화기를 놓으시었다. 그랬다가 다시 잡으시고는 전선군단을 찾으셨다.

《…아, 군단장동무요?!… 어디 상한데는 없소?… 음… 고맙소… 장하오! 군단의 전체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오. … 잘 싸운 전투원들에게 표창도 크게 하시오. …》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시름을 잊으시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회담밖에 마주앉아 말씨름이나 해가지고서는 이 전쟁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오. …아무렴! 미국놈들이 정신차릴 사이없이 동무가 결심한 계산까지 쭉—옥 밀고나가오!…》

그이께서는 불도젤마냥 손바닥으로 책상우를 주욱 내밀며 말씀하시었다.

전화가 끝나자 다시 시계를 보시었다. 심술궂은 그 누군가의 손이 이번에는 시계바늘을 붙잡고있는듯 30분이 되려면 아직도 퍼그나 있어야 하였던다.

이미 흘러보내신 시간과 이제 기다리셔야 할 시간에 대한 그이의 감각은 거의 모순에 가까우셨다. 벌써 두시간이나 지나갔는가?… 또 30분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시간에 대한 그이의 감각이시었다.

너무도 답답하여 밖으로 나오시었다. 모래알같은 눈가루가 찌르르 덮쳐들었다. 차거운 바람이 폐부에 흘러드니 정신이 번쩍 드셨다.

그이께서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지르신채 어둠과 눈보라에 파묻혀 아무것도 가려볼수 없는 동남쪽하늘가를 바라보셨다. 산과 강을 꿰지르며 조명등도 켜지 않고 질주해가는 포차들의 숨가쁜 발동기소리가 그 하늘가에서 들려오는듯싶으셨다. 연방 시계를 들여다보면서 《뒤로 전달, 속도 빨리!》하고 웨치는 지휘관들의 날카로운 구령소리가 메아리쳐오는듯싶으셨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크지 않은 프락의 한끝에서 다른 끝까지를 큼직큼직한 자욱을 남기시며 천천히 거니시었다. 한개 련대가 있는 그곳—숨가빠

달려가는 포병부대들이 가달게 될 그곳에서 벌여질 전투를 생각하며 걸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이 전투가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무선전보문을 읽으신 첫순간에 그 어떤 론리적인 판단에 앞서 피부로, 룡감으로 먼저 간파하셨다.

대규모의 상륙작전으로 한천—평양—원산을 련결하는 지역을 타고왔은 다음 지상전선의 공격과 배합하여 전선의 인민군주력을 포위소멸하는것—이것이 새 대통령자리에 올라앉기 바쁘게 꿈꾸는 아이젠하워의 《신공세》골자이다. 이를 위한 수십개의 사단과 비행기, 포, 탱크, 함선들의 전략적 기동과 전개가 이미 끝났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적아간의 인적, 물적, 정신적 총력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대결전이 박두한 때에 이름도 없는 자그마한 고지를 목표로 엄청난 력량상 우세로 단행하려는 적들의 이 전투가 단순한 전술적목적의 추구가 아니라 거대한 전략의 서막, 전주곡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으시었다.

위험천만한 놈들의 첫걸음을 단호히! 철저히! 무자비하게! —이것이 김일성동지의 결심이고 의지이시었다.

빠드득 빠드득 규칙적으로 울리는 발자국소리… 그 발자국소리와 더불어 포차들의 숨가쁜 기관소리가, 지휘관들의 엄격한 구령소리가, 대오를 휩쓰는 눈보라소리가 또다시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생사를 걸고 분과 초를 쪼개가며 눈보라속을 달리고있을 그 철의 대오의 앞장에 자신의 마음을 세우시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시었다.

…

천신만고 모두다 달게 여기며
피와 땀을 흘린자가 그 얼마나

…

눈보라, 눈보라… 노래를 부르시는 그이의 얼굴에, 온몸에 눈보라가 찌르르 찌르르 사정없이 쉬임없이 덮쳐들었다. 자신의 한생에는 봄도 여름도 가을도 없었고 이렇게 눈보라를 맞받아 헤쳐가는 겨울만이 있은듯 한 느낌이시었다.

조국의운명을 한몸으로 떠받들며 허리치는 숫눈길을 한치한치 초인간적인 힘과 의지로 헤쳐나 가시던 길아닌 길… 앞에도 뒤에도 좌우에도 강도일제 100만대군의 철갑도들로 가득찬 총검의 바다를 헤치면서 북대정자를 향해가던 그 고난의 행군은 얼마나 준엄했던가. …얼마나 처절했던가! …그때 빨찌산대원들은 얼어죽은 짐승의 고기를 익히기는커녕 소금조차 없이 날채로 씹어삼키며 걸었지. 키를 넘는 눈속에서 풀뿌리조차 켤수 없

어 생눈을 퍼먹으며 헤쳐갔지. ...그때의 그 습습하고 먼지냄새 풍기던 눈맛은 평생토록 잊혀지질 않는다. 온 대오에 한줌의 소금마저 없어 툭툭 부어오르던 갸름한 얼굴들... 적들이 들이민 독약섞인 소금을 먹고 온 대오가 쓰러졌을 때에는 아!...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던가. ...

운명의 30분들이 고삐치며 흘러갔다.

우우 들이치는 눈갈기에 그이의 옷자락이, 머리 카락이 마구 훑날린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크고작은 고드름들이 들쭉날쭉한 굴뚝모퉁이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손에 닿는대로 고드름 하나를 잡으셨다. 어찌나 세계 얼어붙었는지 막대기같이 꺾인다. 손에 힘을 주어서야 평 하는 소리를 내며 그나마 끄트머리가 부러졌다.

고드름토막을 꼭 잡으셨다. 손가락뿔으로 줄줄 흘러내린 물방울들이 눈우에 점점이 떨어져내렸다.

어둠은 새벽어둠이 더 캄캄하고 겨울은 눈석이 더 기승스럽다.

그랬다. 아이젠하워가 수십개의 사단들을 새로 편성하고 미국본토는 물론 영국과 일본, 장개석과 괴군을 비롯한 어중이며중이 침략무리까지 불러내면서 《조선전쟁을 영예롭게 결속》하겠노라 세계면전에 큰소리를 치고있지만 김일성 동지의 시야에는 그것이 숨겨가는 승냥이의 마지막몸부림이라는것이 력력히 안겨오시었다.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됐는가?... 그래, 됐다.

《어떻게 됐소?》

참지 못하고 다그쳐 물으셨다.

《스물한시 현재 모든 부대들은 최고사령관동지에서 예정하신 지점들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마치도 그 부대들을 자기가 이끌기라도 한것처럼 부관은 한껏 흥분에 떠있었다.

《중—아! 인원과 기재들에 사고는 없소?》

《...》

《무슨 일이요? 왜 대답을 못하는거요?》

어째서인지 부관은 울먹이면서 《아닙니다, 사고는 없습니다.》하고 간신히 말끝을 맺었다. 머리 카락이며 눈섭이며 옷자락할것없이 온통 허연 눈사람으로 변해버리신 그이앞에서 부관은 났을 잃은채 굳어져버렸다. 한순간이 지나서야 그는 아무말없이 께 돌아섰다. 종종걸음으로 달려갔다.

문여닫기는 소리가 세차다. 다시금 들려오는 발자국소리... 한쪽팔로 외투를 붙안은채 달려온 부관은 그이의 옷자락이며 어깨우에 수북이 쌓인 눈을 털어내기 시작하였다. 껌싸게, 조심스럽게 털어가는 그의 두볼이 눈물에 젖고있었다.

마치 화풀이라도 하는듯 한 부관에게 몸을 말

기신채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되젠 성이났군!

《나한테도 손이 있으니 그만하오.》

《...》

한순간 멈칫하는듯싶던 부관은 바지가랭이에 들어붙은 눈버캐를 비벼가며 탁탁 털기만할뿐 아무 응대도 없었다.

《그만하라는데. ...얼른 경찰국장에게 갔다오오.》

그제서야 마지못해 허리를 편다.

《경찰국장동무에게 내 말을 전하오. 257.9고지 일대의 적정을 잘 살피라고 하오.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즉시 나에게 알리라고 하오.》

《알았습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대답한 부관은 그이께 외투를 넘겨드리고나서 총총히 달려갔다. 빠드득거리며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가 유난스러웠다.

부관이 사라지자 비로소 그이께서는 몹시도 심한 추위를 느끼시었다. 밤아드셨던 외투에 팔을 껴시었다. 어찌나 꽁꽁 어시였던지 오금이 잘 놀려지지 않아 간신히 팔을 껴시었다. 외투를 입으니 몸이 훈훈해지셨다.

부관은 인차 돌아왔다. 그가 더 다른 말을 꺼낼 사이도 없이 그이께서는 엄격한 목소리로 지시하셨다.

《빨리 돌아가오. 작전국장동무에게 다음번 전화련계때에는 각 부대들이 기동의 은밀정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란다고 전하오. 그리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 방금 입으신 외투를 내려다보시었다.

《...병사들이 포차우에서 손발을 얼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나의 명령을 모든 부대장들에게 전달하란다고 하오.》

《알았습니다.》

걸을 주지 않으시려는 그이의 단호하신 태도에 부관은 감히 더 어찌지를 못하고 울상이 되어 돌아섰다.

고개를 숙인채 풀이 죽어 털썩털썩 걸어가는 부관을 보시려니 뜨거운 련민의 정이 꿈틀 솟구치시었다. 약해지려는 마음에 엎서기라도 하시듯 그이께서는 돌아서시었다.

×

늙으면 눈물이 해피진다고들 하지만 늙은이들의 눈물은 결코 해픈 눈물이 아니다. 한생을 살며 깨닫고 굳혀온 옹고그름을, 사랑과 증오를, 기쁨과 슬픔을 그 눈물 방울방울이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하거늘 어찌 함부로 해픈 눈물이라 하겠는가.

할머니는 안경을 쓰다듬으며 울었다. 그 안경으로 장군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손수 써보내신 손자의 주소를 읽고 또 읽으며 울었다. 손자의 아이적 사진을 그 안경으로 보고 또 보며 울었다. 고마와서 울었고 기뻐서 울었고 그리워서 울었다.

할머니는 세면을 하였다. 깨끗한 옷을 갈아입었다. 부엌으로 내려가 닭을 끄집어내려 발목을 비끄러냈다. 닭알바구니도 내리었다.

한손으로는 머리에 인 닭알바구니를 잡고 다른 손에는 닭이 든 바구니를 들고서 눈보라치는 문밖을 나섰다.

찬바람을 맞자 속이 궁근 기침을 한바탕 해댔다. 설새없이 들이닥치는 눈보라에 숨이 꺾꺾 막혀 자주 걸음을 멈추었다.

...

세상에 이다지도 막대기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덮어놓고 안된단다.

《장군님께 요 아래마을 혼자 사는 늙은이가 찾아왔다구 한마디만 여쭙어주시우.》

깔끔한 눈초리로 할머니의 아래우를 빗질해보고난 보초병은 먼산을 쳐다본다. 아예 상대를 안하겠다는건가?

할머니는 한걸음 보초병에게로 다가서며 《이보라구, 젊은이...》 하고 말꼭지를 애써 부드럽게 뺐다.

《셋!》

보초병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할머니는 와플 놀라며 그 자리에 못박혀버렸다.

어쨌면 좋을지 몰랐다.

《이보라구, 아까두 내 말했소만 장군님께서는 날더러... 아무때나 찾아오라구 하시었다우.》

《...》

《내 말이 미덥지 않거들랑... 알아보우.》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가당기라도 한듯 보초병은 드디어 고개를 돌리었다. 할머니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채 보초병의 입을 긴장한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할머니.》

보초병의 나직한 목소리.

《예...》

《제 한마디만 하겠는데... 사람들마다 다 할머니처럼 자기 생각만 할 내기를 하면 야단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 어느 하루...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시는줄 압니까?》

《...》

《돌아가십시오.》

말문이 막혔다. 어린 사람의 타이름이었지만 감히 엇서서는 안될 준절함이 있었다. 그러니 어쩌면 좋담?

그냥 돌아서자니 너무도 아쉬웠다.

할수 없지!...

할머니는 생각끝에 가지고온 그 바구니 두개를 보초병앞에 내려놓았다.

《내 그럼 가겠수. 변변치 않지만... 이걸 장군님 식찬에 보태주시우.》

《이건... 뭘니까?》

당황한 보초병이 뒤걸음친다.

할머니는 돌아섰다. 왈각 솟구치는 눈물을 웃고름으로 찍으며 걸어갔다. 가슴이 터질것만 같다. 이 럼치없고 미련한것아! 환장을 했니? 예가 어디라고 주책머리없이 발길질이나...

《할머니! 이걸 가... 가지구 가십시오!》

발이 어디에 놓이는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걸었다. 다급히 가까와지는 발자국소리...

웬 군관이 헐썩거리며 앞을 막아섰다.

《글쎄! ... 장군님판단이 옳으셨군요! 어서 가십시오. 장군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며 부관은 무작정 할머니의 팔을 잡아끌었다.

너무도 갑작스러움에 쾅해서 쫓아갔다. 장군님께서 내가 온줄을 어떻게 아시었누?

보초소에 이르러 바구니를 찾아들고 가려니 보초병이 병글거린다.

패썩한 녀석! 장군님께 일러바칠테다!... 하기가 예가 어디라구. 엄해야지!

부관이 할머니의 손에서 바구니들을 앗아들었다. 할머니와 어깨나란히 걸던 부관이 《할머니.》 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불렀다.

《예.》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

《지금 장군님께선 대단히 바쁘시답니다.》

《!...》

《오래지체하지 말아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할머니는 우뚝 멈추어섰다.

×

난로가까이로 의자를 당겨놓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황송해서 어쩔줄 몰라하는 할머니를 놀려앉히시었다.

《날씨가 보통이 아니지요?》

《예, 대한추위를 하느라 이러는 모양입니다.》

그이께서는 김이 문문 피어나는 난로우의 주전자에서 고뿌의 물을 따르시었다.

《웁습니다. 마지막추위입니다. ...자, 더운 물을 드십시오. 언몸이 녹을겁니다. ...이제 이 추위만 지나가면 봄이 시작됩니다. 립춘이 한...열흘쯤 남았지요?》

《예, 그런가봅니다. ...고맙습니다.》

그이께서 권하시는 물고뿌를 받아들이는 하였으나 할머니의 정신은 온통 장군님의 얼굴에서 떨어질줄을 몰랐다.

《요새 일을 핑계대구 찾아가봅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 식량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원… 원… 안하실 말씀을…》

할머니는 손을 내저었다.

《안경이 눈에 맞습니까?》

《예, 꼭 맞습니다. 바늘귀까지 험하니 들여다보입니다.》

《하하! 그럼 됐습니다. 할머니는 글도 아시니 내가 적어준 주소로 손자에게 편지도 쓰십시오.》

《예, 예.》

《손자가 어느새 공병중대장이라니 정말 대견합니다.》

할머니는 목이 메어 대답을 못 드리고 손가락에 웃고름만 한고래 감아쥐었다.

《내 그곳 련대장에게 부탁해서 편지도 쓰게 하고 사진도 한장 큼직하게 찍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진이 오거들랑 소문을 내서 손자며느리감도 미리 점찍어두십시오.》

그이께서 어찌나 허물없이 해주셨던지 할머니는 웃고름으로 눈물을 찍어내면서도 비죽이 웃었다.

《그게 할미가 골라주는 체널 가지자구 할게 뭇니까. 그냥 내갈려둬 두 저절루 하나 차구오겠는걸요.》

《하하하! 할머니말씀이 옳은것 같습니다. 우린 그저 구경이나 하다가 국수나 한그릇 받아먹으면 되겠습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시오.》

작전국장이 들어와 깡뚝이 보고를 드렸다. 그제서야 부관이 하던 꼭진한 당부를 상기한 할머니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냥 앉아계십시오. 일없습니다.》 하시며 그이께서 눌러앉히시었으나 《아닙니다.》 하고 겁먹은 목소리로 웅얼거리며 부득부득 일어선다.

《왜 벌써 가지자는겁니까. 오늘 밤은 여기서 나와 함께 지냅니다. 밤마다 혼자서 적적하셨을텐데.》

《원 무슨 말씀을… 이 늙은게 그만 망녕이 들어서…》

《할머니, 미안해할건 조금도 없습니다. 미국놈들과 싸우는 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할머니와 애기를 하는것도 이 최고사령관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하는수없이 그이께서는 차를 부르시었다. 그냥 걸어가겠다고 야단을 치는 할머니를 기어이 차에

앉히시면서 **김일성** 동지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나이많은신분에게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더 힘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이의 손을 붙잡은채 흐느끼기만 할뿐 아무 말도 못했다.

할머니를 내려우고 급히 돌아오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보고하오.》 라고 짹막히 이르시면서 작전국장을 똑바로 바라보시었다.

《알았습니다. 스물한시 30분 현재 ○○○부대를 제외한 모든 부대들이 예정계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그이께서는 한순간 침묵을 지키시었다.

《○○○부대는 얼마나 떨어졌소?》

《약 5키로메터가량입니다.》

《리유는?》

《눈덮인 산악도로가 너무 가파로워서 사슬띠도 맥을 못춥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생각에 잠기신채 방안을 거니시었다. ○○○부대 진출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의 모든 도로들이 협약해진다.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겠는가?… 진출로상의 주둔부대들과 인민들을 동원하여 눈을 치고 길을 닦게 하면 좋겠지만 은밀성이 파탄된다. …어쩌면 좋은가?… 무슨 수가 없겠는가?…

없었다.그이께서 줄수 있는것이란 그들—전투의 운명을 걸고 달리고있는 모든 병사들과 지휘관들에 대한 믿음밖에 없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대와 구분대들의 앞장에서 달리고있을 지휘관들의 얼굴들을, 항일의 혈전속에서 생사를 같이해온 투사들의 얼굴들을 한사람 한사람 눈앞에 그려보셨다. 그리고 …방금 다녀간 그 할머니의 손자와도 같은, 이 전쟁의 운명을 떠메고있는 그 매개 전사들의 얼굴들을 그려보셨다.

그이께서는 작전국장의 어깨너머에로 생각깊은 시선을 주시면서 자기자신에게 하시듯 나직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기다립시다. 그들은 기어이 가낼거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눈길도 아니라 하늘끝에라도 기어이 갈것지요.》

×

숨가쁜 30분들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 때 30분마다 눈보라치는 마당가에서 어김없이 보고를 받으셨고 빈틈없는 지시들을 주셨다.

…

《은밀정보장에 최대의 주의를 돌릴것!》

...

《고장나는 차들은 지체없이 포와 함께 떨굴 것!》

밤이 깊어갔다. 부관은 몇번씩이나 그이께 식사를 하시라고 간청하였다.

《고맙소, 먹고싶은 생각이 없소. 전투나 끝내놓고 보지요.》

그이께서는 매번 이렇게 대답하셨다.

...

시계바늘은 벌써 새날에 들어섰다. ○○○부대의 행군속도는 점점 더 빠지기만 하였다. 이제 남은 시간에 목적지까지 도착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설사 전투가 시작될 다섯시까지 가낸다 하여도 포사격을 준비할 시간은 어방없이 모자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작전실로 들어가셨다. 포병사령관과 작전국장을 불러 작전대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으시면서 《이거 무슨 대책이 없겠소?》라고 물으시었다.

대답이 없다.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한참만에야 포병사령관이 무겁게 일어섰다.

《이제 더는... 가망이 없습니다. ...》

기대를 품고 주시하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작전국장에게로 시선을 옮기시었다. 그 시선은 《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라고 묻고 계셨다.

작전국장이 일어섰다.

《○○○부대가 도착하지 못한다 해도 화력밀도 상으로는 놈들의 공격을 진압하기에 충분합니다.》

고심어린 사색끝에 힘들게 대답하는 두 장령의 모습을 번갈아보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설레설레 도리머리를 저으시었다.

《○○○부대는 떼버린단 말이지?!...》

자리에서 일어서시었다. 고뇌가 어린 나직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다.

《동무들의 말이 옳소. 그들 없이도 전투에서 이길수 있소. 그러나 전투가 끝난 다음에 말이요. 한쪽에서는 훈장수여식을 하고 다른쪽에서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어기었으니까 처벌을 주어야겠지?!...》

《...》

《...》

《그렇게는 안되요!》

그 어떤 불결한 물건을 쳐갈기기라도 하시듯 그이께서는 주먹으로 허공중을 내리그으셨다.

몇걸음 작전대에서 물러나 뒤집을 지시고 한동안 서계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작전국장을

똑바로 바라보시면서 《○○○부대가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면 늦어도 다섯시까지 는 가낼수 있겠지?》라고 물으셨다.

물음뒤에 달린것이 무엇인지 알수가 없어 작전국장은 《그렇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대답올렸다.

《이런걸 한번 생각해보요.》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지도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셨다. 지시봉을 잡고 철원 서쪽계선을 찬찬히 살피시다가 지시봉 끝으로 어느 한 지점을 짚으시었다.

《257.9고지 보병련대의 포병들을 동원해서 말이요. ○○○부대가 차지할 계선에 감시소들도 미리 준비해놓고 포사격에 필요한 제원들도 미리 구해놓고있다가...》 문득 말씀을 끊으시며 포병사령관을 바라보셨다. 그 시선이 미처 와닿기도 전에 웨치다싶이 하는 포병사령관의 엄청나게 높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됩니다! 포사격준비시간이 공짜로 생깁니다!》

《공짜라니, 그게 어디 공짜요? 하하하!》

호탕하신 웃음소리가 방안 들썩하게 울리자 두 장령의 환희에 넘친 웃음소리들이 그에 합세하였다. ...

...

때식도 피로도 잊으신채 초긴장속에 계시는 그이께 부관은 또다시 청을 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안으로 들어가시여 잠간이라도 눈을 붙이십시오.》

《자고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소. 싸움이나 끝내놓고 보지요.》

×

1953년 1월 25일 새벽 4시까지 ○○○부대를 제외한 모든 포병부대들이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하였다. 뒤늦게 도착한 ○○○부대는 빈틈없이 준비된 감시소들과 사격제원들을 받아가지고 즉시에 사격준비를 완료하였다.

...

정각 다섯시! 기세등등하여 공격을 개시한 적들의 전투서렬 여기저기에서 아군포탄들이 불기둥을 말아올렸다. 뒤이어 하늘땅을 통채로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포사격소리가 진감하였다. 놈들의 전체 공격서렬은 통채로 시뻘건 불바다에 잠겨버렸다.

무시무시한 포성에 한시간동안이나 철원일대의 땅덩어리가 흔들거렸다.

×

전투를 결속하신 김일성동지께서 어찌나 식사

를 달게 하셨던지 부관은 너무 좋아 식당아주머니의 손을 붙잡고 춤을 추었다. 식사를 끝내고 담배를 태우시며 마당가를 스적스적 거니시는 그이께 부관은 이제라도 눈을 좀 붙이실것을 청드렸다.

《그래, 자겠소. 오늘같이 기쁜 날에야 부관동무의 소원을 다 풀어주어야지.》 하시면서 그이께서는 부관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었다.

《밤새 힘들었지?!》

정겹게 바라보시는 그이의 모습을 마주하려니 눈앞이 흐려와 고개를 비틀었다.

《오늘은 마음놓고 푹 자라구.》 이런 말씀을 남기신채 침실을 향해 걸음을 옮기셨다. 그러시다가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부엌쪽으로 향하시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엌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다. 잔뜩 호기심이 내돋은 부관의 얼굴이 부엌문가에 빠르게 나타났다.

그이께서는 부엌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잠장닭앞으로 다가가시었다. 닭이 놀랄세라 조심스레 앉으시었다.

닭의 발을 맨 끈이 너무 짧아보였다. 그이께서는 주저없이 그 끈을 풀어버렸다. 푸시시해진 닭의 잔등을 조심조심 쓸어주셨다. 아닐세라... 움츠러들었던 닭의 입에서 골골골 하는 울음소리가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짜릿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며 흘러나왔다.

《빨리 동우리부터 만들어줘야겠군.》

조용히 말씀하신 그이께서는 일어서시여 부엌안을 휘이 둘러보시었다. 이것저것 단지뚜껑들을 열어보시다가 《그렇지.》 하고 만족하시면서 강낭쌀 한줌을 떠내시었다. 다시 오금을 꺾으시고 모이를 뿌려주기 시작하시었다.

《구구 구구구... 구구 구구구...》

전투의 운명, 전쟁의 운명을 두고 그토록 드세차시던 방금전의 모습과는 너무도 판이한 대조여서 부관은 우두커니 서있기만 하였다.

《부관동무, 전쟁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이 닭을 잘 키워야겠소. 우리 공병중대장이 돌아 올때까지 함께 키우자구. 어땡소? 닭을 길러봤나?》

부관을 바라보시는 **김일성** 동지의 모습에는 한 점 피곤도 없으셨다.

...

따뜻한 날씨가 며칠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눈덮인 도랑들에서 돌돌돌 물흐르는 소리가 정답게 들렸다. 최고사령부의 처마의 고드름들이 주르륵 주르륵 녹아내렸다. 이따금씩 고드름들이 통채로 철썩덕 떨어져내리며 산산이 부서져나갔다.

마당가의 눈을 끌어내던 친위중대의 한 병사가 비자루를 들고 처마밑으로 다가갔다. 비자루로 후

려치니 땡강땡강 잘 떨어져나갔다. 허리부러진 고드름 하나가 떨어지지 않겠다고 앙탈을 부린다. 애가 난 병사는 비자루를 꺼꾸로 모아잡고 후려쳤으나 자꾸만 빗맞힌다.

전선시찰을 위해 마당가의 승용차에로 나서시던 **김일성** 동지께서 문득 그 모양을 보시고는 빙긋 웃으시며 《국철이! 봐두오. 두어시간만 지나면 저절로 다 떨어지지 않으리.》 하고 소리치셨다. 그러시고는 바쁜 걸음으로 차를 향해 다가가시는데 정찰국장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가방속에서 얹박한 인쇄물을 꺼내 그이께 드리었다.

심중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이건 대체 뭐라는거요?》 라고 물으시듯 의아한 시선으로 정찰국장을 바라보셨다. 했으나 정찰국장은 평시의 그답지 않게 벌썩 웃기만 하였다.

그이께서는 푸른색바탕에 조선지도를 그려넣고 군사부호들이 표시된 인쇄물의 표지를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여섯페이지짜리 그것을 일일이 읽어가시는 그이의 얼굴에는 점차 미소가 질어가시었다.

마지막페이지를 넘기고나신 그이께서는 눈을 크게 뜨시며 《이건 어디서 난거요?》 라고 물으셨다.

《예, 전선을 넘어온 우리 정찰병들이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일성 동지께서는 인쇄물을 잡은 손을 높이 흔드시며 호탕하게 웃으셨다.

《이 희한한걸 나 혼자 봐서야 안되지. 부관동무, 이걸 제격 작전국장동무에게 가져다주오. 포병사령관동무랑 다들 보라고 하오.》

부관은 나는듯이 달려갔다.

그것은... 적들이 《정형고지》(철원서쪽의 바로 그 고지)에 대한 이른바 《모범전투》를 조직해놓고 미제침략군의 고위장성들과 고위장교들 그리고 여러 나라 기자, 공사, 령사들까지 전투현장에 초청해놓고 나누어주었던 《정형고지》전투씨나리오였다.

그이께서 다시 차에 오르시는데 문득 꼬댁! 꼬꼬 하는 닭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눈을 쳐내던 병사들도 정찰국장도... 모든 사람들이 때아닌 그 닭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울음소리는 **김일성** 동지께서 타신 승용차가 저 멀리 산굽인돌이로 사라진 다음에도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주체87(1998)년

집단부락에서의 대담한 정치공작

항일의 피어린 나날 백두산너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발휘하신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주체28(1939)년 5월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정치공작임무를 받으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두만강가에서 10리가량 떨어져 있는 한 집단부락으로 들어가시었다.

당시 일제는 이 부락에 경찰들을 파견하여 마을청년들로 《의무자위단》이라는것을 만들어놓았다.

일제경찰들과 《자위단》원들이 옥실거리는 속을 뚫고 적후활동을 벌린다는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 몇명의 유격대원들과 함께 촌장의 집에 이르신것은 깊은 밤이었다.

그때 그 집 옷방에는 많은 《자위단》원들이 모여있었다. 혁명조직성원인 촌장은 부락에 들어오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공작소조활동에 지장이 될것 같아 구실을 붙여 그들을 모이게 하였던것이였다.

그들은 모두 가난한 농민의 자식들로서 일제의 강박에 못이겨 《자위단》에 들어간 마을청년들이였다.

이 사실을 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위단》원들속에서 정치사업을 벌릴것을 결심하시였다. 그들을 혁명의 편에 돌려세우지 않는다면 멀지 않아 백두산동북부로 진출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앞길에 위험한 장애로 될수 있기때문이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자위단》원들앞에 나서시였다. 그이의 모습은 언제나 가렬한 전장들마다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담성으로 원썬들을 쓸어놓히시던 모습그대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령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입니다라고 침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순간 《자위단》원들은 굳어진채 그이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녀성의 몸으로 군복을 입고 산에서 싸운다는것도 놀라운 일이였지만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놓으시는 그이의 도고한 기상앞에 기가 질리였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진정이 넘치는 어조로 여러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같이 가난한 인민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분이 《자위단》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썬들의 강박에 의한것이치마음이 있어 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망국노이며 착취와 압박에 시달리는 여러분이 갈길은 오직 한길, 혁명의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자위단》원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김정숙동지께서는 나라없는 망국노의 신세가 되어 이국땅에 와서까지 기를 펴지 못하고 말 못할 고생을 다 겪고있는 그들의 피눈물나는 처지에 대하여 차근차근 이야기해주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진정에 넘친 말씀은 끝끝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놓았다.

한 청년이 가까스로 일어나 자기들은 모두 일제의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왜놈들이 시키는대로 했다고, 정말 미련하게 살아왔다고 말하였다. 다른 청년들도 일제의 개노릇을 더는 하지 않겠다고, 자기들도 혁명군을 도와 같이 싸우겠다고 결의해나섰다.

이렇게 되어 그날 밤 김정숙동지께서는 《자위단》원들의 보호를 받으시며 마을의 여러곳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정치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시였다.

집단부락에서의 적후공작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자위단》원들은 김정숙동지께서 정치사업을 벌리시는 전기간 그이를 보호하였을뿐아니라 공작소조가 철수할 때에는 원호물자까지 지고 따라나섰다.

그후 《자위단》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도와 집단부락을 혁명화하는데서도 큰 역할을 하였다.

강철남

백두의 메아리

김승제

드디어...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시각이 왔다.

봄의 미소속에 소백수물가에는 우리들의 마음처럼 함초롬히 물기를 머금은 버들개지들도 한껏 부풀어 다투어 피고있다.

일시에 터져오르는 《만세!》의 환호소리에 백두산이 제일 먼저, 제일 우렁차게 화답하는가.

기슭에는 봄빛이 무르녹건만 정일봉마루에서는 천년수림길이 간직했던 하얀 눈가루를 하늘높이 휘뿌린다.

천년수림도 크나큰 걱정을 못이겨 쉼—쉼 끝없이 설레이는데 장군봉의 하늘가에서는 장쾌한 봄우뢰소리가 울린다.

아, 백두산이 어찌 무심할수 있으랴.

머리들어 바라보니 하늘공중 가득히 눈부신 햇빛에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눈가루들은 꽃보라마냥 흩날려내리고 한점 티없이 정갈하고 광활한 백두의 은빛세계는 이 순간따라 더더욱 찬연하구나.

또다시 봄우뢰소리가 더 크게 울려왔다.

우리들의 기쁨과 감격의 환호소리에 백두산이 온 세상을 향해 메아리치는듯싶었다.

백두대산줄기가 뽕뽕히 뻗어내린 내 조국 삼천리강토가 들썩하게 터치는 백두의 저 메아리...

나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높이 추대하였다고 격조높이 울리던 방송원의 목소리가 언제 끝났는지도 의식하지 못한채 그냥 흥분되고 격동된 심정에 휩싸여있었다.

그러다가 옆에 서있던 박동무가 문득 나의 어깨를 와락 그러안아서야 자기 세계에서 깨어날수 있었다.

박동무의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있었다.

평소의 그답지 않게 목소리도 격정에 넘쳐있었다.

다름아닌 여기 백두산기슭에서 오늘의 경사를 맞고보니 우리가 618건설돌격대원이라는 긍지감과 자부심에 눈곱이 막 젖어드는구만. 자네도 들었지, 저 백두의 봄우뢰소리를... 그건 우리 장군님을 향해 터치는 백두의 환호소리, 백두의 메아리란 말일세.》

백두의 메아리!

나는 퍼그나 파묵한 축인 그를 새삼스럽게 다시 쳐다보았다.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었을가?...

모든 동무들의 얼굴에도 박동무와 똑같이 바로 여기 백두산기슭에서 이 커다란 민족적경사를 맞이한 자랑과 희열이 짙게 어려있었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강성대국건설의 영예로운 참전자로서 더우기

백두성지건설자라는 남다른 긍지로 온몸을 불태우고있는 우리일진대 그 누구인들 백두의 메아리에 심장이 높뛰지 않을수 있으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 삼지연못가로 달려나와 백두산을 우리러 목청껏 《만세!》를 웨치고 또 웨치던 우리들이었다.

백두의 메아리!

그것은 곧 21세기 태양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령장, 내 나라, 내 조국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드리는 백두산의 다함없는 축하이다.

우리의 혁명주권, 인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고 선군조선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천만군민에게 보내시는 백두산의 열렬한 축복이다.

그것은 또한 오로지 아버지장군님의 안녕과 건강만을 바라는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소원의 아뢰임이며 용암같이 끓어번지는 가슴속 진정의 분출이다.

그것은 50여년전 어버이수령님의 그 걸음으로 강선을 찾으시여 온 나라에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이 땅에 더욱 활짝 나래펼친 천리마를 타고 2012년까지 기어이 강성대국대문을 열어제끼려는 선군조선의 거세찬 총진군의 북소리, 힘찬 발구름소리에 비약과 혁신의 박동을 더해주는 진군나팔소리이다.

그렇다.

백두의 메아리!

지금 나의 귀가에는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주를 진감시키며 끝없이 울려퍼지는 영원한 위인칭송의 노래소리가 들리어온다.

강성대국 조선의 무궁변영할 창창한 앞날이 환히 보이여온다.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온 세상이 보란듯이 백두산의 아아한 메부리에 우리 기어이 이 세상 제일 크고 빛나는 강성대국의 문패를 달고야말리라.

아버지장군님 쉬임없이 걷고걸으시는 멀고 험한 전선길을 뜨겁게 새겨안은 나의 마음속에 다시금 백두의 환호소리가 메아리쳐온다.

선군조선의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강성대국 승리의 날에 온 세계를 진감시킬 경축의 축포소리, 만복의 축포소리로...

굳은 맹세와 각오가 담긴 눈길들을 마주보며 나도 박동무도 우리모두는 다시 역세계 일손을 틀어잡았다.

온 건설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처럼 끓어번지고있었다.

백두의 메아리에 뜨겁게 호응하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서 뿜어져나오는 열정의 활화산인양...

딸애의 물음앞에서

최용호

해빛밝은 봄날의 아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이 밝아왔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선지 맑게 개인 하늘은 류달리 푸르르고 해빛도 눈부시다.

우리 가족은 선거장으로 나가기 위하여 이른아침부터 서둘렀다.

우리의 아버지 **김정일** 장군님을 받드는 마음으로 고마운 인민정권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찬성의 한표를 바치기 위해 선거장으로 달리는 이 마음.

안해가 옷매무시를 보아달라고 부탁했다.

치마저고리를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선 안해의 모습, 처녀시절로 되돌아간듯 밝은 웃음이 어리고 흥분으로 팔기우리하니 달아오른 얼굴, 나의 마음도 저도 모르게 흥그러워졌다.

《그렇게 차리고 나서니 당신도 괜찮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곱지.》

제김에 들떠서 돌아가던 어린 딸애가 나에게 매달리며 말했다.

《그래, 어머니두 곱구 너두 곱구 다 곱구나.》

《아버지두.》

웃음이 터졌다. 안해도 웃고 딸애도 웃고 나도 웃고... 나는 딸애를 번쩍 안아올렸다.

《아버지, 나도 선거장에 갈래.》

《그래, 너도 선거가 가자구나.》

《아버지, 대의원선거라는건 뭐냐?》

딸애가 고개를 기우뚱하며 묻는 말이다.

나는 선뜻 대답할수 없었다.

대의원선거, 너무나 크나큰 의미를 담고있는 이 말을 아직은 철없는 딸애에게 어찌 한마디로 설명해줄수 있으랴.

우리의 행복한 오늘과 밝은 래일까지도 다 마련해주고 지켜주는 고마운 아버지품에 드리는 우리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니, 어린 딸애가 이 말의 뜻을 다 이해할수있을가.

나에게는 문득 얼마전 취재를 위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갔을 때 들은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는 강선땅,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높은 로력적성파로 맞이하기 위한 뜨거운 열의로 불도가니마냥 달아오른 용해장.

용해장에 들어서니 마침 출장이 한창이었다.

용암마냥 끓어번지는 쇠물, 축포마냥 튀어오르는 은백색불꽃, 장쾌한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나에게 한 용해공이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한차지, 한차지의 쇠물은 그저 단순한 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바치는 우리 용해공들의 충성의 마음이 어린 찬성의 한

표, 한표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생각이 깊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리는 찬성의 한표.

어찌 강선의 로동계급이 끓여낸 저 쇠물뿐이라.

김철과 무산, 홍남과 라남, 대안과 락원 온 나라 방방곡곡 우리 장군님께서 령도의 발자욱을 찍어가시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혁신의 창조물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진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하늘땅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깨끗한 충성의 한마음이 어려있는것이 다.

생각에 잠겨있는 나에게 용해공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것이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초고전력전기로 돌아보시고 용해공식당에 들리시였다.

식사칸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식사칸이 춥다고, 로동자들이 추운데서는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강철생산에만 마음을 쓰면서 용해공식당의 온도보장에는 미처 낮을 돌리지 못한 자신들을 자책하며 머리를 들수 없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동자들이 추운데서 식사를 하게 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소 지배인과 당책임비서가 로동자들을 모여놓고 사죄하여야 하겠다고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리하여 강선땅에서는 기업소책임일군들이 로동자들앞에서 사죄하는 류례없는 모임이 벌어지게 되었다.

사연을 알게 된 로동자들은 뜨거운 격정에 잠겨 눈물을 흘리였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로고에 비하면 저희들이 좀 추운데서 식사를 하는 것쯤이 뭐라고 그토록 마음쓰신단 말입니까.

장군님은 진정 우리 로동자들을 세상에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해주는 우리들의 친아버지이십니다!—

눈물없이 들을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해 한겨울의 눈보라, 삼복철의 피약별도 달게 여기시며 끝없는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인민들의 자그마한 불편을 두고 마음쓰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이런 사랑의 전설이 어찌 강선땅에만 깃든것이라.

어느해 북변의 한 발전소건설장을 찾으시여서

는 침수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근심하시며 철거세대 주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앞세우는 조건에서 발전조건설을 끝내고 전기도 생산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어디에 가시여서도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시고 자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의 제품을 보시고도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물으시고 인민들에게 먼저 돌려주시는 우리의 장군님.

정녕 인민을 위해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은 쫄는 쇠물의 열기보다 더 뜨겁고 저 하늘의 봄별보다 더 은혜롭고 따사로운것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의 모든것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장군님과 뜻과 운명을 함께 하고있는것이다.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는 한결같이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 운명의 진정한 수호자로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우리 인민모두의 열화같은 심정의 발현인것이다.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은 더욱 반석같이 다져지고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것이다.

이런 생각을 더듬던 나는 대답을 기다리는 딸애에게 말했다.

《대의원선거라는건 우리의 아버지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 경사중의 가장 큰 경사란다.》

딸애의 초롱초롱한 눈이 반짝 빛났다. 《아버지 장군님을... 그럼 나도 선거할래.》

나는 웃음을 지었다. 그 애에게 선거는 공민이 되어야 할수 있다는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을가. 어린 그 애의 마음속에도 자기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고 희망찬 앞날을 지켜주시는 우리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가득차있는데야...

우리 부부는 딸애의 손을 잡고 선거장으로 나갔다.

선거장앞에서는 흥겨운 춤판이 벌어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기쁨과 환희를 안고 너도나도 춤판에 뛰어드는 사람들.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의 태일은 저 맑은 하늘처럼 활짝 열리고 더 휘황찬란한것이니 어찌 춤이 저절로 나오지 않을수 있으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춤추랴요.》

《그러자꾸나.》

나는 수집어하는 안해를 이끌고 춤판에 뛰어들었다.

나의 두손으로 바친것은

박영호

봄빛을 한껏 물고
부풀어 부풀어
산천도 기쁨에 설레이는가
선거장을 나서는 병사의 이 가슴에
샘솟는 격정이며
한없는 긍지여

설레이는 이 가슴속 환희에
더더욱 힘차게 휘날리는듯
푸른 하늘가에 나뭇기는
우리 공화국기를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두손을 들어
가슴에 대어보노라

톡 톡—
심장이 가슴벽을 두드리며
크나큰 자부심을 속삭인다
위대한 장군님을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한 찬성의 한표를
총잡은 이 손으로 바쳤다고
이 땅에 태어난 첫날부터
사랑만을 받아안은 이 손으로
그 행복을 지키라고 믿음높이 안겨준
선군의 총대를 틀어쥔 이 손으로
내 바친것은

내 바친것은 찬성의 한표건만
나의 삶 나의 운명
나의 한생을 다 기울여
온 세계를 통채로 만들어올린듯
마음은 진정할수 없구나

저 멀리 철의 도시
내 고향의 선거장에서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도
가슴 벅찬 환희에 못이겨
춤판에 뛰어들었으리
용해장의 쇠물은 더 세차게 끓고있으리

온 나라
일심的大가정 그누구와 다름없이
나는 바쳤다
선군조국의 총잡은 공민의 자격으로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다 바칠 맹세를!
영원히 운명을 맡기고 따를 신념을!

오, 나의 조국
강성대국의 하늘가에
영원히 빛나는 태양아래
무궁할 번영의 그 세월을
나는 만들어올렸다

강선의 붉은 노을

강선의 노을은 어찌하여 언제나 붉게만 피는 것인가.

여기에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펼쳐나선 우리 천만국민의 가슴에 불을 달아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를 커다란 만족속에 돌아보신데 이어 용해공식당으로 향하시였다.

용해공들이 《우리 집》이라고 정답게 부르며 찾는 식당은 그들의 정서에 맞게 어느모로 보나 순색없이 꾸려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식당으로 안내해드리는 기업소일군들의 가슴은 장군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으로 부풀어있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순간이었다.

식사칸에 들어서시는 순간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동안 굳어지신듯 서계시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일지.

방금전까지만 하여도 기쁨속에 계시던 그이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고 시선에는 근엄한 빛이 어려있었다.

그이의 심중의 깊은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기업소의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싶은 심정에서 취사장에서 약수가 샘솟는다고 말씀 올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종업원들이 좋아하겠구만라고 혼연하게 말씀하시고나서 주방에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과 과일들에 눈길을 돌리시였다. 그러시고는 용해공들의 하루 영양제기준량이 얼마인가고 물으시였다.

그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기업소일군은 내심 흐뭇하였다. 한것은 용해공들의 식사질을 이만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로 생각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전혀 반색을 하지 않으시였다.

추운 식사칸에서 음식상을 마주할 용해공들을 그려보시는듯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용해공식당의 식사칸이 좁다고 하시면서 심각한 어조로 노동자들이 추운데서는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하여도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제서야 자기들이 큰 실책을 범하였다는것을 깨닫게 된 기업소일군들은 죄책감으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가정의 따끈한 온돌방에 비해볼 때 식사칸의 온도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용해공들은 그것을 탓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초고전력전기로를 제힘으로 빨리 일떠세워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고 더 많은 강철을 생산하려는 오직 이 한가지 열망으로만 심장을 불태워온 그들이였다.

그러한 용해공들의 생활을 보다 따뜻이 보살피주지 못한 가책으로 일군들은 머리를 푹 떨구고 있었다.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실 때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은 줄곧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낮은 온도에 가있었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가 낮다고, 노동자들이 추운데서 식사를 하게 한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못내 준절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와 관련하여 기업소지배인과 당책임비서가 노동자들을 모여놓고 사죄하여야 하겠다고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일렁이였다.

로동계급에게 기쁨을 주고 리익이 되는 일을 보실 때면 무한히 기뻐하시고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현상을 대하실 때면 더없이 괴로와하시는 위대한 우리 아버님 김정일동지!

자연에는 추운 계절이 있어도 노동자들을 위한 마음에서는 절대로 추운 계절이 따로 있어서는 안되며 그 마음은 항상 열화같이 불타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관, 정녕 그것은 끓는 쇠물의 열기를 초월하는 뜨겁고 위대한 사랑이다.

계속하여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를 양력설 전까지 정상상태로 올려놓아야 하겠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장내에 울리였다.

력사의 12월 로동계급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선언으로 온 강선땅에 세차게 울려 퍼진 그이의 《명령》이였다.

즉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용해공식당 식사칸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기업소 책임일군들이 용해공들앞에서 사죄하는 류례없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그날 강선땅에는 온통 눈물의 바다가 펼쳐졌다.

온도가 좀 낮은데서 식사를 하는것이 당장 죽고살고하는 심각한 문제도 아닌데 기업소책임일군들이 용해공들앞에서 사죄까지 하게 하시다니!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은 1950년대 혁명적대고조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선구자의 구실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강선땅에 굽이친 그날의 걱정은 가장 위대한 아버이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계급의 크나큰 환희와 영광의 분출이었으며 아버지장군님의 뜻이라면 산악을 통채로 떠올려서라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활화산처럼 거세차게 지퍼올리려는 강선로동계급의 신념과 의지의 폭발이었다.

로동계급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그 열원을 두고 언제나 붉게 피는 강선의 노을.

철의 기지 로동계급에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끝이 없기에 강선의 노을은 선군조선의 휘황찬란한 앞날을 축복하며 영원히 붉게 피는것이다.

김동철

오, 강선이어

문동식

지동치는 전기로의 동음속에
펼 펼쳐 끓는 쇠물의 붉은 화광
조국의 하늘에 노을로 비껴가는
오 강선
대고조의 봉화 불타는 곳이어

그대에겐 순간의 정적도 없다
다만 공격전 강력한 타격전
전극의 번개로 무쇠덩이 녹여내는
그대의 열도를 화산에 비기랴

원썬들 봉쇄의 광풍속에서도
마음속에 차넘치는것은
장군님 그리움 불타는 그리움
그 정을 쇠물처럼 기울여
그대는 기어이 제힘 제손으로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웠거니

그대가 높이 추켜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우리 장군님 오시였던 그날
강철로동계급의 가슴마다 불타오른
그 걱정의 불길이 아니냐

그대의 열풍과 푸른 섬광은
아버지장군님만 받들고 따르는
그 열화같은 정신력의 분출
폭풍치는 창조의 불바람
강철재부의 빛발이 아니더냐

그래서 좋다

그대의 불타는 용해장에 서기가
그대 선구자들의 용감성과 자존심
창조의 대담성이 박동치는 심장을
내 가슴 뿌듯하게 안아보는 때가

그래서 좋다
창공에 비껴가는 붉은 쇠물빛을
그대 용해공들 맨 천창 펼쳐가는
강성대국의 붉은 노을로
내 마음속에 뜨겁게 안아보는것이

세월은 멀리 흘러왔어도
미제를 타승하고
폐허우에 오늘의 락원을 일떠세운
그 자력갱생 불굴의 정신력
대를 이어 내 몸에 혈액으로 이어주는
천리마의 기상 빛발치는 강선이어

엄혹한 시련의 눈보라를 녹이며
우리의 사회주의화원을 꽃피우는
그대는 비약으로 불타는 애국의 땅
발악하는 원썬들의 도전을 짓부시며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계급의 분화구

그래서 그대에겐 정적이 없다
다만 공격전 강력한 타격전
오 강선이어 자력갱생의 봉화여
내 어데 가나 그대와 함께 그대와 함께
강성대국건설의 불길이 되련다

나는 강선사람이다

문선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은 더욱더 깊어지고 자기가 살아온 한생— 자기가 맞고보낸 나날들에 대하여 되돌아보게 되는것은 어쩔수 없는 일인것 같다.

나는 요즈음 내가 살아온 한생을 때없이 돌이켜보곤 한다.

그럴 때면 실로 많은것들이 생각된다.

나는 강선에서 태어나 강선에서 소꿉시절을 보냈다. 강선에서 군복을 입고 미제를 죽치려 전선으로 나갔으며 제대되어선 또다시 강선으로 와서 쇠물을 뿜어낸 강선사람이다.

아마도 나처럼 강선과 인연을 맺고 사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강선은 그대로 내 삶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의 터전이기도 하다.

어쨌든 나의 삶은 강선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 옛날에는 신선이 내린 곳이라 하여 강선이 라고 불렀다한다.

강선은 산수도 수려하다.

뒤에는 달마산, 천진산이 병풍처럼 둘러서있고 앞으로는 유서깊은 대동강이 흐르고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것은 강선의 노을이다. 우리 강선사람들에게 있어서 강선의 노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천하절경으로 안겨온다.

그렇다고 해서 강선의 노을이 언제나 아름다웠던것은 아니다.

나라를 잃고 민족이 수난의 피눈물을 흘리던 그 시기에 강선의 노을은 그대로 천대와 멀리, 억압과 고역에 시달려 전기로앞에 피 토하고 쓰러지던 우리 아버지들의 원한과 설움의 상징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으시고 고향집보다 먼저 우리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주신 그날부터 강선의 노을은 환희의 노을, 열정의 노을로 타올라 우리 희망의 나라로 하늘가득 펼쳐지기 시작했다.

참으로 강선의 노을은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노을이며 우리 강선로동계급의 보답의 노을이며 우리 운명의 노을이기도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때처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진군의 나팔을 불며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강선의 노을을 두고 자력갱생의 노을, 주체의 노을이라고 한다.

그것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피여날수도 아름다울수도 없는 노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의미깊은 강선, 이처럼 희망찬 강선에서 일하며 사는것도 나의 인생에서 두번다시 없을 행운이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나는 제대되어온 첫날부터 강선제강소(당시)에서 심장부라고 할수 있는 강철직장에서 일하였다.

내가 제대되어 강선제강소에 왔을 때 우리는 직장배치되어 일하기 전에 로동안전교양부터 받았다.

로동안전교양기간 나는 기업소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내용을 감동깊게 받아안았다.

그중에서도 온밤 잠 못 들게 한 이야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눈내리는 어느해 겨울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강선을 찾으셨다가 가실 때의 일이었다.

만세를 부르며 따라나선 용해공들을 멈춰세우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불앞에서 일하는 사람은 추위를 더 타는 법이라고, 동무들이 들어가야 나도 마음놓고 가겠다고 세찬 눈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오래도록 눈발속에 서계시였다는것이 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뻘근해지고 그 무엇이 가슴을 자꾸만 뿜뿜 두드리는것만 같았다.

나는 북받치는 걱정을 참지못하여 종이를 펴놓았다.

우리들이 뭐라고
오래도록 눈발속에 서계신
어버이이시여!

어버이께서 다녀가신 그밤
우리 용해공들은
평양길을 우러러
내리는 흰눈을 맞고 또 맞았습니다

수령님 어깨우에 쌓였던 이 흰눈
백년이요 천년이요 맞고싶은 이 눈
정녕 이 눈은

수령님 주고 가신 불이옵니다
용해공이 안고살 불이옵니다

나는 어느날 저녁 용해공거리를 지나다가 한 설계원을 만난적이 있었다.

그는 나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로 기업소로 좀 나와달라는것이였다.

나는 그가 현대적인 새 전기로의 설계를 맡은 당사자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돋보기안경을 두세개씩 바꾸어 끼면서 일한다는것도...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새 전기로를 우리 식으로 개조하고있는 지금과 같은 때에 선전사업을 한 경험있는 내가 시를 써가지고 와서 힘을 주면 좋을것 같다는것이였다.

그는 용해장에 나가 경제선동으로 내가 읊는 시를 몇번 듣고 흥분한적도 있었다.

그는 나를 진짜 시인으로 알고있은것 같다.

《재경동무, 난 그런 시재가 못돼.》

《왜? 이젠 늙었다는건가. ...》

사실 내가 아니면 설계할 사람이 없겠소? 그래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품속에서 한생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인생말년이라고 마지막길을 그냥가면 되겠소. 그래서 뭔가 보답을 하다가 매듭을 지어야 떳떳하겠는데 잘 되지 않아 그러우.

우리야 다르게는 살수 없는 강선사람이 아니요.》

나는 레사롭게 하는 그의 말에서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강선사람, 강선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강선에서 나서 자랐다 하여 강선사람인가, 강선에서 쇠물을 끓이면서 한생을 살았다고 하여 강선사람인가.

아니였다. 그것이 아니였다.

강선사람이란 받아안은 은덕에는 보답할줄 알고 못다한 보답은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이 할 신념을 안고사는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나는 뜨거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수십년을 제강소에 함께 있으면서도 알수 없었던 강선사람의 참모습이였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께서 재경동무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신것이 아닌가.

오늘날 영광의 절정에 오른 그를 볼 때마다 그것이 강선사람의 높이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불러도 강선의 노래를 부르고 글을 써도 강선에 대한 글을 쓰며 사랑을 해도 강선사람들을 제일 사랑한다.

이제는, 20대, 30대의 젊은 새 세대들이 50년대, 60년대 아버지들의 아들딸답게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새 전기로를 몇달동안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광광 쇠물을 뽑고있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 진정을 이렇게 터놓아본다.

젊은이들아, 이제는 너희 차례다. 강철로 우리 장군님을 받드는 강선의 진짜 주인들이 되여다오. ...

우리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이며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앞장에 선고장이기도 하다.

이번에 우리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또다시 지펴주심으로써 강선의 어깨는 더 넓어졌다.

나는 어제까지만 해도 후대들을 위해 무엇인가 남기고싶어 많은 말을 해주는것이 《로병의 당부》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은 로병의 당부가 아니라 강성대국 건설대전의 참전자로서 젊은이들결에 섰다.

강철전선의 결전장에서 심장의 나팔을 불어 최후승리로 그들을 고무하라고 시대가 나를 부르고있다.

이제 강성대국의 큰 대문을 보란듯이 열어제끼는 그날 나는 자랑스럽고 긍지롭게 세상을 향해 떳떳이 말할것이다.

《나는 강선사람이다!》

이것은 나의 자서전이기도 하다.

쇠물입니다

최성국

쇠물입니다

황황 불기둥을 솟구며

남비가득 차오르는 붉은 뜨거운

장군님 보아주신 새 전기로

현대화의 동음속에 태어난

강선의 쇠물입니다

늘 끓이며 보던 쇠물이건만

장군님 보아주신

새 전기로로 끓여낸것이어서

더 뜨겁고 더 붉게만 안겨오는 쇠물

진정 얼마나 높고도 깊으신 뜻이

이 쇠물에 비껴있는것입니까

어려웁니다

수령님의 건국사가 비낀 이 땅에

《강선의 노을》을 더 높이 올려주시고

마음속엔 언제나 강선땅을 안으시고

천리전선길을 달리셨을 그 심중

오시여서는

용해공 우리 손을 잡아주시며
새로운 대고조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영예로운 참전자, 위훈자가 되라 하신
쇠물보다 더 뜨거운
장군님의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

언제나 그 마음속에

안고 품이신 쇠물이어서
한차지 한차지 쇠물폭포 쏟아지고
강철의 메부리 날마다 높아갈수록
더더욱 간절해지는 그리움입니다

또다시 우리 용해장에
장군님 모시고싶은 용해공의 마음입니다

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의 영광
오로지 이 쇠물로 전하여가고
내 나라 선군조선에
용해공은 이 쇠물로
강성대국의 문패 높이 달아놓으려니

쇠물

장군님의 구상 꽃피울 뜨거운 쇠물
이 쇠물에 끓고있습니다
강철로 당을 받들 용해공의 한생이
그로 하여 아름다운 용해공의 삶이

용해장의 《긴급지령》

위명철

출강! 출강!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경쟁으로 치열한 용해장에
오늘도 로장의 투박한 목소리 울리는데
젊은 용해공을 찾아
새처럼 날아든 소식
—철영동무, 오늘 학부형회의 오래요

와하—

사나이들의 호탕한 웃음
젊은용해공은 얼굴 붉히고
통계원치너는
재촉하듯 눈만 깜박이고...
방금 쇠물 쏟은 전기로는
산갈은 파철더미 부르고
식지 않은 쇠물남비들은
날렵한 일손들 기다리는데

전기로 앞마당 속보관엔
직관원이 흐뭇한 모습으로
붉은색감 듬뿍 찍어
경쟁의 줄을 긋는다

다른 로에 뒤지면 어찌랴
분초를 다투는 일터에
서로의 눈빛들 부딪치며
말없이 로장만 쳐다보는데
또다시 짧게 웨치는
로장의 목소리
—왜 멍청히들 섰어?
학교로 출강!—

와하—

다시 터지는 용해장의 웃음폭포
뒤따라 울리는 목소리들
—학교로 출발이겠지.
우리 로장은 출강밖에 몰라—

멀어지는 젊은 용해공을
흐뭇이 바라보며
로장은 경쟁에서 벌써 이긴듯
출강때처럼 팔을 휘— 젓누나
—이 멍에 쇠물을 뺏지
학부형회의가 어떤 중대사라구...

쇠물은 무엇으로 끓는가

주 연

새 전기로를 앞히러
기초까지 송두리채 들어내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삽, 두삽—
깊숙이 땅밑을 떠내던 때
쇠부딪치는 소리와 함께
문득 드러난 총과 칼

순간

온 건설장을 일쿠는 침묵
누구를 겨누던 총이나
누구를 찌르던 칼이나

더 말해 무엇하랴
해방전의 그날
패망을 눈앞에 둔 왜놈들
남몰래 문었을 살인흉기들

박물관의 진렬장앞에서가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계획에 없던
계급교양모임이 진행되었다

머리 흰 영웅로장도
용해장의 오랜 고문아바이도
주먹을 부르짖고 말했다
왜놈의 총칼밑에 흘러간

상식

피에 젖은 그 나날을

흘렀다 새삼과 함께
줄달음친 경쟁도표와 함께

천리마를 타고 달리며
굳건히 다진 강철의 초석이어

용해장의 쇠물은 무엇으로 끓는가
사랑과 증오! 그래서 우리는 원한다
우리의 강철이
무엇보다먼저
대포의 포신이 되기를

그렇다
피땀한 옛세월을 눌러딘고
굳건한 초석우에 일떠선
우리의 강철로는 웨친다
—사랑과 증오로 끓이는것이
우리의 쇠물이다!

강철공업의 정수—초고전력전기로

지난해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초고전력 전기로를 훌륭히 일떠세우고 쇠물을 뽑아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였다.

초고전력전기로—이는 그 기술적특성의 우월성과 생산전망으로 하여 강철공업의 정수로 되고있다.

전기로는 로에 투입되는 전력수준에 따라 일반전력전기로와 고전력전기로, 초고전력전기로로 가르는데 강철 t 당 투입전력이 700KVA 이상인 전기로를 초고전력전기로라고 한다.

초고전력전기로는 일반전력전기로에 비하여 그 경제적효과성이 매우 높다.

초고전력전기로를 리용하면 제강시간을 훨씬 줄일수 있고 단열가열법을 도입할수 있으며 생산의 연속화, 로용량의 대형화를 실현할수 있다.

일반전력전기로에서의 제강공정은 용해기, 산화기, 환원기, 출강으로 나누어볼수 있는데 장입물을 녹이는 용해기, 쇠물속의 탄소, 린 등을 산화제거하는 산화기, 쇠물에 필요한 합금원소들을 넣어주는 환원기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일반전력전기로는 제강시간이 비교적 길지만 초고전력전기로의 제강시간은 매우 짧으며 전력소비는 근 절반이상으로, 전극과 내화물소비를 줄여들게 한다. 로벽과 로천정의 수랭화를 실

현하였으며 새로운 출강법을 받아들였다. 모든 구동장치들이 유압화되어있고 로체의 해체조립이 매우 간단하며 전극의 자동조종을 비롯하여 모든 생산공정들이 철저히 정보화되어있다.

일반전력전기로와는 달리 초고전력전기로에서는 용해기에 온도가 높은 쇠물이 빨리 형성되고 강한 전자기적힘의 작용에 의한 교반이 활발해져 탄소산화가 일찍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산화기가 용해기와 구별이 없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게 된다. 환원기정련행정은 남비정련공정에서 거품슬라크처리, 교반, 분말취입을 거쳐 진행되므로 생산되는 강철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다.

초고전력에 의한 강철생산체계에서 초고전력전기로에 장입된 원료는 빠른 시간안에 압연강재로 뽑아낼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전기로방식에 비하여 10배이상의 생산속도이다. 소요되는 에너지를 훨씬 줄일수 있다.

또한 초고전력전기로에서 생산하는 강종의 품종에는 제한이 없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높이 받들고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단 몇개월사이에 훌륭히 일떠세운 우리 식의 초고전력전기로는 지금 강철생산을 급격히 늘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있다.

쇠물꽃향기

안명애

세상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얼마나 많은가.
봄을 먼저 알리는 진달래, 여름철의 장미꽃, 가을철의 암전한 봉선화... 허나 나는 자연의 꽃이 아니라 우리 용해장에서 피워가는 쇠물꽃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쇠물꽃이라는것은 전기로의 출강구에서 펄펄 끓는 붉은 쇠물이 폭포처럼 쏟아져내릴 때 튀기는 현란한 불꽃들을 이르는 말인데 언제 누가 붙인 이름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리 강선사람들은 하나같이 꽃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쇠물꽃이라고하고있다.

그런데 나는 이 쇠물꽃도 자연에 피는 꽃처럼 향기를 풍기고있다는것은 철의 기지에서 태어나 자라면서도 미처 몰랐었다.

이제는 오래전에 있는 일이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소원대로 강철직장 전기로 배전공으로 배치된 다음날이었다.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서 가꾸던 꽃화분들을 새 일터인 배전실에 옮겨다놓았다.

내가 코노래를 부르며 화분들에 물을 주고있는데 현장을 돌아보던 로장아바이가 우리 배전실안을 휘돌러보고는 《허, 배전실이 꽃밭같구만.》 하며 빙그레 웃음짓는것이였다.

나는 로장아바이의 그 말속에 나의 소행을 칭찬해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신바람이 난 나는 그 이튿날엔 아릿다운 일일 초화분을 용해장의 음료수통결에 놓았다. 용해공들이 물을 마시며 좋아할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나 나의 이 《기발한》 생각이 줄지에 허물어질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잘 익은 쇠물을 출강한 후 나는 물을 마시려고 음료수칸으로 잡자리마냥 날아갔다. 그런데 웬일인가? 내가 가져다놓은 화분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만것이다. 의혹에 사로잡혀 못박힌듯 섰는데 용해공 영철동무가 목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오고있었다.

나는 다짜고짜 그에게 여기에 있던 화분이 왜 없어졌는가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그는 싱긋 웃더니 오빠가 뽀로통한 너 동생을 달래이듯 부드럽게 말하는것이였다.

《용해공들은 자연의 꽃보다 자기들이 피워올리는 쇠물꽃을 더 좋아하오. 동무의 정성은 고맙지만 그... 그 화분은 배전반실에 가져다놓았소.》

어쭙은 기색으로 돌아서려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동무도 용해공들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을 거요.》

나는 쇠물꽃을 더 좋아한다는 그 말에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섭섭하기 그지없었다. 내 마음을 너무나도 몰라주는것 같았다.

그래서 나도 한마디 내쏘았다.

《나도 쇠물꽃을 잘 알아요. 순간에 피었다지는 꽃인줄. 그리고 향기도 없잖아요.》

그러자 그는 대뜸 무뚝뚝해지더니 신중하게 입을 여는것이였다.

《잘 알아두오. 우리가 피워가는 쇠물꽃은 그 어느 꽃에도 없는 뜨거운 향기를 내뿜고있소. 순결한 향기를 사시절 풍긴단 말이요!》

나는 선뜻 그의 말이 리해되지 않아 또 한마디 내쏘았다.

《나를 조롱하는군요. 햇병아리라구. 뜨거운 향기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때 언제 곁에 와서 우리 두사람의 심경이를 듣고있었던지 로장아바이는 내 어깨를 다정히 두드리며 속삭이듯 말하는것이였다.

《영철이 말이 옳아. 뜨거운 향기, 순결한 향기가 없다면 쇠물꽃이 아니지. 그 귀중한 향기는 강철로 당을 받드는 우리 강철전사들의 녀이야. 알겠니?》

그때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렀다.

그러나 강철전사들이 지니고있는 이 쇠물꽃향기 《철학》은 오늘도 변함이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여 보아주신 초고전력전기로에서 폭포인양 쏟아져내리는 붉은 쇠물— 그속에서 피여오르는 눈부신 쇠물꽃향기, 그 향기는 온 나라 강산에, 온 나라 마음과 마음들에 진하게 퍼져가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아니겠는가!

상식

잠이 잘 오게 하는 음식물

- 과일향기를 맡으면 잠이 잘 온다.
- 더운 우유를 한교뿌 마시면 잠이 인차 온다.
- 흥분으로 하여 잠들지 못할 때 사탕물을 한교뿌 마시면 잠이 인차 온다.

불을 다스리는 처녀

김은희

처녀라는 말과 불을 다스린다는 표현은 잘 어울리지 않는감이 있다.

겨우내 두꺼워진 땅껍데기를 뚫고 움트는 봄날의 연연한 풀싹같은 애됨과 연약함부터 느껴지는 처녀라는 말과 불을 다스린다는 뜻은 강자와 약자간의 대결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잘 어울리지 않는것 같은 이 말은 선군시대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 비약의 폭풍이 타래쳐오른 오늘날에 우리 조국땅에서 평범하게 울리고있다.

강선땅을 찾으면서 나는 이 불을 다스리는 한 처녀를 알게되었다.

강선!

천리마의 고향 강선!

아버이수령님의 건국업적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있고 우리 당 혁명력사에 당당히 한페이지 기록되어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많다.

강선이라는 지명의 유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수령님께서 20여년만에 처음 찾으시게 될 고향집을 지나치시고 먼저 찾아주신 사연깊은 고장이라는 이야기, 천리마가 달음쳐 날아오른 전후 천리마대고조의 사변을 탄생케 한 곳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우리민인이 알고있고 우리 혁명력사에 기록되어있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나는 불을 다스리는 한 배전공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처녀는 너무도 평범하였다.

얼굴도, 키도, 몸매도.

묻는 말에 항상 숫저운 미소부터 가볍게 떠올리는 처녀의 얼굴은 쇠물의 화광에 비끼여 언제나 밟그스레한 빛을 띠고있었다.

강선땅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를 지펴주신 12월의 그날부터 처녀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항상 사람들속에 싸여있지만 처녀의 특징은 겸손한것이라고 나는 찾아보았다.

《전 별로 한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의 첫 말은 이 말이다.

하지만 처녀의 심장에는 수많은 말들이 간직되어있었다.

처녀의 나이는 24살, 처녀시절의 한창때다.

처녀는 유서도 깊은 고장 강선에서 태어났고 강선에서 자랐다.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범한 노동자들이

였지만 소학교, 중학교시절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를 배우면서 태어난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감부터 간직하게 되었다.

언제나 수령님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고 우리 당 력사에 당당히 한페이지를 차지하고있는 력사의 땅 강선.

전후복구건설의 파중한 로고를 지니시고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심려를 자기들의 어깨에 걸머지고 공칭 6만톤능력의 분피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낸 용해공, 압연공들 세대를 할아버지라 부르며 처녀는 자랐다.

강선은 천리마의 고향입니다라는 아버지수령님의 과분한 믿음의 말씀을 눈물속에 받아안으며 첫 천리마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고 천리마기수의 휘장을 앞가슴에 달고 으쓱거리며 강선읍내가 좁다하게 활개짓을 하며 다니던 그날의 첫 천리마기수들중의 한사람인 허아바이와도 한동리에서 자라고 한 용해장에서 기술전습을 받았다.

자라오는 그 나날에 처녀는 강선사람들이 노상 긍지담아 말하는 강선본토배기의 그 자부, 그 열정, 그 담을 지니게 되었다.

《임직한 첫날엔 불도가니같은 전기로가 어찌나 무섭던지, 그 불길이 말입니다. 또 웅— 하는 아크소리는 얼마나 제 심장을 놀래웠는지 모릅니다. 무슨 큰 용해사고라도 났는가 해서 옆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날 보고 글썽 눈도 크지 않은데 왜 그렇게 겁이 많은가 되려묻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 커다랗게 뜬 눈을 그냥 그렇게 하고있으니 그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치며 정상이야, 정상, 여기선 사자심장을 지녀야 해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무지 습관될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로얌을 지날 땐 로안에서 펄펄 끓는 시뻔건 쇠물이 금시 내앞에 쏟아지는것 같아 멀리에 돌아다녔고 웅— 소리만 들리면 흠칫흠칫 놀라곤 했습니다.》

나는 그 처녀의 말허리를 잘랐다.

《그런데 오늘은 내가 도리어 무서워 견딜수가 없군요. 이 불이며 저 소리가 말이에요. 동무가 정말 용해요.》

《어마나.》

처녀는 입을 가리며 웃었다.

《기자선생님도 여기서 한달만 사느라하면 사자심

장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여기로 현실체험배낭을 옮겨올가?》

처녀와 나는 한참 마주보며 즐거이 웃었다.

불을 다스리는 나날에 처녀는 정말 사나이들의 심장을 닳게 되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곳이기때문에 꼭 현대화를 하여야 한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을 받들고 온 강선땅사람들이 펼쳐나 단 몇달동안에 현대화공사를 다그쳐 초고전력전기로를 일떠세워 장군님께 보여드리는 그 과정에 처녀도 불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을 위해서라면 성난 파도처럼 일떠서는 강선사람들의 일본새를 온몸에 체득하였다.

수령의 결심이라면 한목숨도 서슴지 않고 내던져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정신, 이것은 강선의 전통이었다.

이 강선땅에서, 이 강선사람들속에서 성장하였기에, 첫 천리마작업반이 탄생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1강철직장 1호전기로의 배전공이라는 자각과 긍지가 있었기에 처녀는 초고전력전기로운영에서 우리 식 조작법을 내놓아 《하면 된다!》는 대명사와 함께 용감한 처녀, 대담한 처녀로 온 나라에 알려지게 된것이다.

평범한 이 나라 처녀들중의 한 처녀기능공 리금희.

철의 도시에서 태어나 불과 함께 성장해온 처녀.

한집안의 부엌에서 밥가마나 끓이는 범속한 여성들의 세계를 벗어나 나라의 커다란 쇠물가마를 끓이는 처녀.

처녀의 자그마한 손에서 전기로의 불길은 용해시간에 따라 잠잠해지기도 하고 펄펄 무섭게 타래쳐오르기도 한다.

이 돌리개를 돌리기도 하고 저 스위치를 누르기도 하며 능숙하게 조종하는 처녀의 모습은 정녕 불을 다스리는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용감한 참전자의 모습이다.

나는 그의 앞날을 의심치 않는다.

그는 할아버지세대가 아버지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는 길에 자기들의 전 생애를 빛냈듯이 그도 역시 경애하는 장군님께 우리 식 초고전력전기로를 조종하여 보여드린 그 자부심, 그 긍지감을 영원토록 간직하고 영원토록 불을 다스리며 살것이다.

헤여지기에 앞서 나는 처녀에게 물었다.

《앞날의 소원이 뭐예요?》

또 처녀는 숫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갑자른다.

《전... 전 장군님께서 오신 그날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뵙고 싶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이 일터에서 그날까지 일을 많이 하렵니다.

그러면 꼭 장군님께서 또 오실겁니다.》

바쁜 출근길

김춘식

철의 도시 하늘가에 새벽노을 붉었다
지금쯤 용해장엔 출강준비 한창이리
어서 가자 용해장 친구들아
이 아침 출근길은 드바쁜 길이어라

서둘러 출근길 나서는 이웃집 로장도
공장대학 교재를 옆에 척 끼고
젖은 머리 손뭉칠하며
달음치는 작업반의 막내도
걸음발엔 모두가 불이 일었다

새침데기처녀들도 이 아침엔
제법 성미들이 드세어진듯
련속출강 알리는 종소리처럼
까르르— 새날의 꿈을 안고 웃음꽃 날리며
네거리가 좁다하게 활개를 젓누나

그런들 어떠리, 그런들...
강선이 끓어야 온 나라가 끓고

강선이 소리치며 내달려야
온 나라의 발걸음이 더 빨라진다시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 불러주신 장군님
장군님의 그 부름안고 내짚는 강선의 큰 걸음
이 아침 출근길로부터 떼여지기에...

걸음만 바쁘랴 마음도 바쁘다
머리 흰 로장의 성큼한 걸음새에
마음 절로 바빠 따라서는 길
방송차에 올리는 혁명가요에
발걸음 맞추며 마음도 끓는 길
활개치기 맞춤형 드넓은 거리는
용해장 한끝까지 곧추 뻗었거니

철의 도시 하늘가에 노을이 붉었다
지금쯤 용해장엔 쇠물이 폭포치리
어서 가자 나의 일터 용해장으로
이 마음 바쁘게 장군님 따라서는
오, 강선의 출근길이어!

날과 달에 대한 생각

변영옥

《…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나의 하루하루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충만되어있고 장군님 뵙고싶은 한가지 소원으로 일관되어있는 날들이다.

언제면 아버지장군님을 한번 만나뵈울수 있을까?…》

이것은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의 한 처녀의 일기장에 써여있는 글이다.

물론 이 글 역시 많은 취재지를 다니고 술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낀바와 다른 점은 없지만 나는 처녀의 일기장을 보면서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미곡협동농장 청년작업반을 찾았을 때에는 씨뿌리기가 한창이었다.

포전마다 힘있게 나뭇기는 붉은기들, 영농물자를 싣고 달리는 트랙토르들, 씨뿌리기에 필요한 부식토며 종자를 싣고 포전에서 포전으로 드바뻐 오가는 소형트랙토르와 산같이 쌓아놓은 진거름을 포전에 끌고루 뿌려가는 농장원들…

위대한 장군님의 지난해 12월 현지말씀과 올해 공동사설을 받아안은 미곡마을사람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다가오는 봄기운이 그 열풍에 합쳐지거나 한것처럼 포전에는 아지랑이 끊게 피어나고 논둑마다 봄샘을 시작한 노오란 풀싹들이 해묵은 풀검불을 헤집고 뽀조름히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봄바람에 실려 녀인들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목소리에 끌려 씨뿌리는 모판으로 다갔다. 그곳에는 삽질을 세판게 해대는 남정들, 부식토를 담아나르는 녀인들로 봄비였다.

한 녀인의 청높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새벽 모판 하나를 번개처럼 제격 만들어놓은게 보배아주머니의 아들 혁철이라면서?…》

《아니, 순덕이 그 처녀래요.》

《아유, 취사원일도 아릅찬데 언제 그걸 다…》

《차차, 모르누만. 요즘 청년작업반원들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온다는걸 모르시우?》

《하하하…》

《호호호…》

놀라움과 칭찬으로 엇갈린 녀인들의 말을 듣던 나는 이미 낮을 익힌 손순덕처녀의 이름이 나오는 바람에 절로 마음이 흥그러워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의 일터에 모시였던 청년작업반의 취사원처녀였다.

새해 첫 전투때에는 김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자급비료를 소형트랙토르에 싣고 농장길이 좁다하게 달리고달리어 숙보관에 이름이 대문짝만 하게 실리더니 오늘은 또 씨뿌리기전투장에서 새벽전투를 벌린 모양이다.

취사원인 그가 들에 나와 일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탓하랴. 허나 처녀는 자기가 맡은 취사원일이 성차지 않아 늘 일감을 찾았고 포전으로 달려나와 일하고있는것이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방그레 웃음을 짓군 하는 그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뵈왔던 그날의 감격을 또박또박 적어넣은 처녀의 일기장 글줄들이 삼삼히 떠올랐다.

《…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그려오던 아버지장군님을 내가 일하는 일터에 모셨던 그 기쁨, 그 흥분을 생각할수록 꼭 꿈을 꾸는것만 같다.

신문이나 텔레비존에서 아버지장군님을 만나뵈는 청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너무도 부러워 어떻게 하면 나도 장군님을 만나뵈울수 있을까 하고 늘 그리움속에 살아왔는데 정말 내가 장군님 앞에 서있으니 어찌 현실이라고 쉽게 믿을수 있으랴.

청년작업반 합숙호실과 식사칸을 돌아보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취사장에 들어서시여 내가 담그어놓은 절임단지들과 밥가마며 국가마도 열어보시고 인민군대처럼 일터를 잘 꾸리고 군대식으로 생활을 잘하고있다고 못내 기뻐하시릴 때는 정말 나 혼자만이 받아안은 행복같아 몸돌바를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관리위원장동지랑 농장을 돌아보시면서는 농장마을이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선경으로 변모되었다고, 오면 올수록 정말 정이 드는 곳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야, 정말 품었던 소원이 이렇게 옛말에서처럼

풀리는 날도 있는가.

밤늦도록 지금까지 우리 작업반 청년들은 장군님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나는 오늘 알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고픈 소원은 결코 이루어질수 없는것이 아님을.

그리움을 마음속에 품고 장군님께 기쁨드릴 일을 찾아서 하느라면 경애하는 장군님은 그곳이 천리, 만리 아무리 먼곳이라도 꼭 찾아오신다는것을.

나는 오늘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영원히.》

처녀의 일기장 구절구절이 그대로 그날의 감격과 흥분이였다.

처녀가 어찌 그 날과 달을 잊을수 있으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오시여 주신 사랑 너무도 크고 커서 온 마을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있는데 가시는 그길로 수십대의 천연색텔레비존과 새형의 트랙터, 종합탈곡기와 대형화물자동차를 또 보내주시였으니 정녕 그 사랑, 그 은정은 하늘과 땅에도 비길수 없었다.

청년들이 해놓은 일이라면 그리도 기쁘시여 찬바람을 헤치고 먼곳까지 오시여 선군시대의 농촌 선구자라는 값높은 평가도 주시고 마을을 더 잘 꾸릴데 대한 믿음도 안겨주신 아버지장군님.

그 사랑, 그 믿음 분초마다 새겨진 날과 달이어서 처녀는 그날을 마음에 안고 세월이 흘러도 오

직 그날만을 안고살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그때문이어서 처녀는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모르고이룩한 성과에 자만을 모르며 날과 달에 더 큰 비약의 날개를 달아가고있는것이 아닐가.

아니, 처녀만이 아닌 온 미곡벌사람들이 그날을 가슴에 새기고 새해부터 거름산을 높이 쌓으며 영농준비를 드세차게 벌러나가며 세월을 주름잡아 달리는것이다.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달.

그것은 정녕 미곡벌을 떠나시는 그 걸음으로 강계와 강선,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 사랑과 정을 주시고 뜻을 나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날과 달이였고 그것은 또한 그날의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맡은 초소에서 일자리를 푹푹 내며 세월을 앞당겨가는 보답의 날과 달이였다.

이들이 맞고 보내는 그 날과 달을 어찌 시간의 루적과 세월의 흐름만으로 계산할수 있으랴.

그렇다.

한갓 시간적개념이나 날과 달의 흐름만으로는 헤아릴수 없는 사랑과 보답이 오르고내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되여 이 땅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 환희의 그 날과 달은 반드시 앞당겨질것이다.

상식

수수께끼라는 말의 의미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과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그것을 알아맞히게 하는 구전문학의 한 형태이다.

지난날 수수께끼를 이르는 말로는 《슈지》, 《슈지겅기》 등이 있었다. 이 고어들은 수수께끼가 슈지와 겅기의 합성어로 이루어져있으며 슈지, 겅기가 그 음이 변하여 고착된것임을 알수 있게 한다.

여기서 《수수》는 숨은것이며 《끼》는 겨루기를 의미한것으로서 수수끼란 《숨은것을 찾아내는 겨루기》라는 의미로 해석되고있다.

수수끼기는 문답의 형식들로 재현한다.

수수끼기가 일반문답과 구별되는것은 질문을

제기하는 표현방식이 형상적이며 세련된 비유로 표현되며 해답 그자체에는 예술적형상이 없는데 있다.

· 걷지 않고 잠시동안에 천리 가는것이 무엇이냐?(전화)

· 죽은 나무가 서서 우는것이 무엇이냐?(전주대)

· 먹기 싫어도 먹는것이 무엇이냐?(나이)

· 먹을수록 늘어나는것이 무엇이냐?(주름살)



숲속의 나무 한그루

김흥익

《어때 석호, 비온 뒤의 숲이? 멋있지?》

금방 한소나기 지나간 숲속길로 차를 짓쳐물면서 물을 절반, 대답 절반처럼 던진 책임운전사의 말에 석호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다. 한바탕 퍼부어댄 소낙비에 말쑥하게 목욕을 한 숲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멋있는》 표현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종시 말귀가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비온 뒤의 숲의 다채로운 멋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누구나 어려운 법이다.

아무리 울창한 숲이라 해도 비온 뒤엔 울창하다거나 무성한 느낌보다는 청청하고 싱그러운 느낌이 더 강하게 안겨온다. 그런가 하면 나무가지 사이로 가득가득 비쳐드는 한결 더 진하여진듯싶은 햇빛과 나무들밑에 드리운, 역시 한결 더 어두워진듯싶은 그들이 던져주는 느낌은 자못 엄숙한 감을 자아낸다.

보조운전사자리에 앉아 차창너머로 흘러가는 비온 뒤의 숲을 내다보며 책임운전사의 물음에 대꾸할 말을 찾는 석호의 심정이 지금 그랬다.

차가 고개길을 멀리 앞두었을 때부터 갑작스레 퍼붓기 시작한 소낙비가 고개길중턱에 올라서자 시작할 때처럼 똑 몇더니 뭉게뭉게 엉켰던 구름더미가 별안간 짙 갈라지면서 금시 내린 소낙비에 씻기운듯 밝고 눈부신 햇빛이 함뿍 비쳐내리고 물냄새를 실은 싱그러운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일새며 가지우에 쌓였던 먼지(그보다는 더위라고 하는편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를 말끔히 씻어버린 숲이 구름잠이 터지게 쏟아져내

리는 햇빛을 일새마다 넘치게 받아안고서 좌—하고 불어오는 바람결에 즐거운듯 가볍게 춤을 춘다. 한결 가뿐하고 투명해진 해별아래 푸른 일새들은 더욱 질푸르러졌고 검푸른 아지들은 더욱 짙게어졌다. 숲우의 햇빛은 더욱 찬연하게, 숲속의 그들은 더욱 깊어보인다. 짙은 대조, 선명한 색조, 넘치도록 강렬하게 뿜겨져오는 생명의 힘, 뽕뽕조르르… 뽕뽕조르르… 딱따그르르… 딱따그르르… 귀엩귀엩—깃! 빠드득— 멀게 혹은 가깝게 들려오는 못새들의 소리마저도 더욱 뚜렷해져서 보지 않고 소리만 듣고서도 그것들의 서로 다른 생김생김이 방불하게 그려진다. 그리고 차가 움직이는데 따라 물씬물씬 풍겨오는 씩씩하면서 달크무례한 숲의 냄새마저 이건 무슨 풀냄새, 이건 무슨 꽃냄새… 하고 분명히 갈라낼수 있으리만큼 선명해졌다.

석호는 흥얼흥얼 코노래라도 부르고싶은 심정에 휩싸였다. 아니, 차창밖으로 목을 쭉 빼들고 《아아—》 목청껏 한소리 뽐고싶은 마음이였다. 그래 강진을 힐끗 쳐다봤더니 긴장한 자세로 차를 몰면서도 앞시창으로 물결치듯 달려왔다가 옆시창으로 얼쩡얼쩡 물러가는 정연한 숲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그가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숲이… 좋은 주인을 만난것 같애.》

《예? 무슨 주인 말입니까?》

석호는 강진의 말이 인츰 이해되지 않아 되물었다. 했으나 강진은 제 생각에 문힌채 그냥 숲을

바라보면서 차를 물뿐 대답이 없었다.

석호는 조금 멧적은 생각이 들어 다시금 숲에 눈길을 던졌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푸른 숲을 바라보느라니 또다시 마음이 절로 흥글흥글해졌다.

비온 뒤의 숲, 얼마나 멋있는 말인가. 그것은 청신함과 싱싱함을 이르는 말이고 신선함과 풍요함 그리고 깨끗한 젊음을 뜻하는 말이다.

석호는 고무풍선마냥 아니, 수리개마냥 뚱뚱 떠오르는듯 한 심정이었다.

정말이지 온 숲이 다 듣게 《아—》하고 한소리 뽐고싶은 심정이었다. 그럴밖에.

이제 시오리쯤 더 가면 석호네는 장거리운행을 마치게 된다. 마지막단계에 이른 발전소건설장의 발전설비를 싣고 나라의 서쪽끝에서 동쪽의 북변 한끝까지 달려온 석호네다. 무사고정시로 말이다. 그 말은 사실 철도에서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번 운행길은 석호로서는 첫 장거리수송이었다. 그런데 석호는 영예로운 그 임무를 빛나게 수행한 것이었다. (비록 책임운전사인 강진의 엄격한 지도와 협조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여 지금 석호의 마음은 한여름 오후의 소낙비에 한껏 씻기운 숲처럼 말쑥하고 개운했다. 그 어떤 완성을 이룩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환희의 폭풍같은 것이 숲을 휘젓는 바람결처럼 마음속을 풍구질하는가 하면 눈알이 속 빠져나올만큼 긴장하고 또 긴장해야 했던 장거리운행끝의 달콤한 잠에 대한 유혹이 숲을 쓰다듬어주는 따뜻한 해빛처럼 그의 마음을 다정하게 어루만져주는 것이었다.

(래일은 일요일, 휴식날이다.)

금방 생각해낸 새삼스러운 그 발견은 석호의 몸을 벌써 숙소의 근근한 잠자리로 실어갔다. 시원한 목욕끝의 달콤한 잠, 눈섭이 맞붙어 떨어지지 않을만큼 길고 긴 잠! 아, 잠...

삐익— 직!

그 순간에 무엇때문인지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멧었고 《비온 뒤의 숲》이 석호의 마음속에 불러낸 갖가지 알락달락하고 달콤하기 그지없는 모든 생각들이 홀연 사라져버렸다.

석호는 웬일인가 싶어 강진을 돌아다보았다.

금시 멈춰선 차의 제동변을 잡아당긴 강진이 앞창너머 좀 높은 곳에 눈길을 박은채 엉겨주춤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눈길이 건주어진 앞창너머를 석호도 바라보았다. 그러자 빙그르르 원을 그리며 돌아간 굽인돌이 웃견의 꽤 경사급한 흙벼랑이 곧추 쳐다보이는데 저런! 커다란 바위불이 그 흙벼랑 한 중간에서 비죽이 머리를 내밀고 금시 덮쳐내릴듯 위협스레 내려다본다.

석호는 그놈이 당장 목대우에 떨어져내리는 것 같은 착각에 얼른 목을 움츠렸다. 그랬다가 겁스

러운 모양을 드러낸 자신을 비웃는듯이 허거운 웃음을 웃고나서 다시 목을 빼들고 찬찬히 살펴 보았다. 도로를 넓히면서 안쪽의 흙벼랑밑을 바투 파들어갔는데 며칠째 내린 비에 바위불밑의 흙벼랑이 더욱 패워내리면서 그렇게 된 것이었다. 당장 떨어져내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크고작은 바위돌들이 바로 그 빨바위뒤에 한무지 잘되게 걸려있어 그놈만 꺼꾸러지는 날엔 길 한복판에 흙사태가 곧추 쏟아져내릴 판이었다.

(눈도 참... 꼳꼳이 앉아 차를 물면서 어느새 저런걸 다 올려다봤을가.)

차에서 내린 강진이 흙벼랑을 에돌아 바위불 있는대로 오르는 모양을 내다보며 석호는 속으로 감탄했다.

이윽고 바위불뒤에 이른 강진이 그놈을 발로 탁탁 차보고 손으로 군둑거려보고 하더니 소리쳤다.

《곡괭이, 지레대.》

그러지 않아도 석호는 강진이 의례 그럴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벌써 적재함에 싣고다니는 지레대를 찾아드는 참이었다.

몇년동안의 현장로동생활을 거친 후 운전사양성소를 졸업하고 수력발전연합기업소 산하 차사업소 보조운전사로 배치받아온지 얼마 안되는 석호는 자기의 책임운전사에 대하여 그리 잘 알지 못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 그가 제대군인운전사이며 석호네들이 아직 사업소에 배치받아오기 전에 이미 《ㅎ》강발전소건설에 동원되어 높은 국가수훈을 받았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을 뿐이었다.

그에 석호가 좀 더 들은 것이 있다면 강진이 련합기업소 지배인차운전사로 지목되고 있다는 소문에 그가 대단히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희한한 처녀와 곧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소문이었었는데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도 그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았다. (웬간한 산간도로는 딱 막다싶이 하는 중량급차운전사가 물매미같이 생긴 승용차를 성차할 것이냐 하는 의문에 누구도 그 《희한한 처녀》를 보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지만 석호는 그 소문에 믿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강진은 두 면에서 다 《합격》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지배인차운전사로도, 대단히 아름다운 처녀의 배우자로도... 적어도 석호 보기엔 그랬다.

총각금새를 따질 것 같으면 강진은 키가 쪽 빠진데다 단정하게 생긴 얼굴생김처럼 마음씨 또한 부드럽고 순결하다. 사람들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들으며 사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쓸데없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 많고 주의깊이 듣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운전사금새로 보면 사업소에 그만큼 운전솜씨가 맵시나고 차거듬새가 깨끗한

운전사는 많지 못했다. 그가 갖추고다니는 공구함 안엔 각종 규격의 스파나들과 뿔찌, 망치, 집게 등들과 차수리에 필요한 갖가지 부속품들이 없는 게 없는데다 군대에서 제대될 때 가지고왔다는 싸리나무를 깎아만든 차소제도구까지 한몫을 일식으로 갖춰져있다.

무기소제도구 비슷한것인데 강진의 보조운전사로 임명받아온 처음 얼마동안 석호는 그것을 《아이들 장난감》같은것 정도로 무심히 대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바로 그때문에 강진이한테 되게 편잔을 받았었다.

차정비숨씨를 한번 펼쳐보이려는 생각에 기관실뚜껑을 열어젖히고 올라앉아 땀을 뻘뻘 흘리는 데 《이건 뭐야?!》 하는 성난 목소리가 귀전을 찼다.

《쇠붙이로 그렇게 하면 기관이 굼하지 않겠소?!》

깜짝 놀라 돌아보는 석호의 손에서 차기관 구석구석에 얹은 기름먼지를 긁어내던 나사들개를 와락 뺏어든 강진이 이 사람이 운전사가 옳긴 옳은가 하는 눈빛으로 석호를 바라보며 하는 소리였다.

아차! 하고 뒤늦게야 자기의 짧은 생각을 깨닫고 머리를 치는 석호를 끌어내린 강진이 공구함에서 나사들개대신 그 싸리나무꼬챙이뭉음을 꺼내들고 오더니 차청소를 시작하는데 이런! 깊고 좁은 볼트나트째의 먼지는 길다랗고 끝을 뾰족하게 깎은 꼬챙이로, 좀 넓은데는 넓죽하게 깎은 꼬챙이로 순식간에 말끔히 닦아내는 날렵하면서도 깐깐스런 정비숨씨도 숨씨거니와 긴것과 짧은것, 끝이 뾰족한것과 넓은것, 곧은것과 묘하게 구부러진것... 등으로 규격도 갖가지고 모양새도 갖가지인 그 소제도구로 차의 어느 구석, 어느 먼 닦아내지 못하는데가 없는것을 보고 석호는 그만 입이 딱 벌어졌다.

《차거듭새를 보라. 그러면 운전사의 마음속을 안다. 아니, 차거듭새보다 먼저 수리공구갖춤새와 소제도구갖춤새부터 보라. 그러면 그의 차거듭새를 보지 않고서도 알수 있다.》

그날 석호에게 한 강진의 말이였다.

그날 석호는 강진에게 지배인동지차운전사로 소환된다는 말이 있던데 이 소제도구도 가지고 가렵니까 하고 룡조로 한마디 했었다. 그러자 가긴 어딜 가 하면서 받는 강진의 대답에 석호의 벌어졌던 입은 그 다음말에 절로 다물어졌다.

《하지만 가야 한다면 물론 가지고 가야지.》

말끔히 닦은 소제도구를 공구함에 넣으며 한 강진의 대답이였다.

방금 석호가 찾아든 적재함우의 지레대나 곡괭이도 마찬가지로였다. 적재함의 맨 앞쪽에다 만들어 놓은 함속에 삽과 곡괭이, 지레대를 항상 싣고다니면서 길이 좀 패웠거나 길가운데에 불쑥 돌아

난 돌 같은것을 보면 아무리 바쁜 길이라도 차를 세워놓고 그것들을 뽑아던지거나 말끔히 메워놓고서야 길을 이어가곤 한다. (《길우에 굴러든 바위돌을 예돌아가지 말고 치우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피해간 그 바위돌이 너의 발부리에 채운다.》 이것 역시 강진에게서 들은 격언같은 말중의 하나였다.)

강진의 보조운전사로서 지난 몇달동안 적지 않게 그것을 목격해오면서 매번 그 모범을 따라배워야겠다고 속다짐해보는 석호였지만 이 순간엔 조금 의견이 있었다. 공구를 가져다주면서 보니 당장 떨어져 내릴바위가 아니었던것이다. 게다가 이런 예방책이야 도로관리원들이 있고 또 도로담당구간표식말쪽에 이름을 꼭꼭 찍어박은 공장, 기업소들이 있지 않은가.

석호는 자기가 가져다준 지레대로 바위불뿔을 든장질하는 강진에게 그 불뿔을 터놓기 시작했었다.

《긁어부스럼 만든다고 이젠 당장 떨어질것도 아닌데 괜히...》

《당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해도 며칠 못 가. 길을 넓히느라 발파할 때 속에 금이 간 바위거든. 그러다 깊은 밤중에라도 지나가는 차에 떨어지면 어쩌겠어.》

첫마디부터 반박을 당했다. 했으나 다음불뿔을 또 터놓았다.

《그러게 도로관리원들이 있잖아요?》

《도로관리원 몇명이서 몇십리되는 길을 다 돌볼수는 없는거야.》

《그래서 도로담당기업소가 또 있구요.》

《그들이 늘 도로에 나와있을수는 없잖아. 그러니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게 옳지 뭐. 그러구 말이야, 차길의 주인은 무엇보다 운전사들이거든. 언젠가 말해준것 같은데, 길우에 가로놓인 위험을 피해가면 그것이 피해간 운전사의 머리우에 떨어지든가 발뿔을 판다구.》

(괜히야. 본전도 못 찾을 말...)

마디마디 코를 때운 석호는 강진에게서 지레대를 뺏아들고 바위돌을 든장질하기 시작했다. 강진의 말대로 발파때 금이 간 바위여서 그런지 뿔뿔의 가로질러간 짬에다 지레대를 들이박고 몇번 들썩들썩 흔들자 생각밖으로 쉽게 기우뚱하고 넘어지기 시작했다.

《가만!》

옆에서 지켜보던 강진이 다급하게 소리치며 석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그 서슬에 석호가 물러서는 순간 큰 송아지만 한 바위돌이 우당탕 탕—통탕! 하고 몇고래 굴러내리더니 길을 훌쩍 건너뛰어 저편 길옆에 서있는 나무밑둥아리를 힘껏 들이받고는 길아래로 떨어졌다. 그뒤로 뿔바위뒤에 무드기 걸려있던 크고작은 바위돌들이 와르르 길우에 쏟아져내렸다.

강진의 반박에 그만 말문이 막힌 석호가 꿈 하
고 힘을 준 단 한번의 든장질에 일어난 《돌사태》
였다. 《한밤중에라도...》 하던 강진의 말이 되살
아나면서 그가 옳았다는 생각이 뇌리를 쳤다.

길너머로 굴러떨어진 큰 바위돌이 아직도 그냥
굴러내리는 듯 우당탕, 탕탕 하는 소리가 골아래로
점점 멀어져갔다.

길에 내려와보니 퍼그나 되는 《돌사태》가 길
을 막고있었다. 둘이서 치우자면 한두시간은 실히
걸려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도 강진은 앞을 막아선 귀찮은 일거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바위돌이 골반이하는 바
람에 껌질이 벗겨져나간 나무밑등을 한참동안 어
루만져보더니 바위돌 굴러내리는 소리가 금방 멎
은 길 저편 아래쪽을 기웃이 내려다보며 그런 듯
이 서있었다.

(빨리 치우고 가야지 뭘 내려다볼까?)

산굽이 저쪽에서 소형버스가 머리를 내민것은
석호가 볼부은 소리를 막 뺄려던 때였다. 버스가
머뭇서고 앞문이 먼저 열리더니 나이지숙한
운전사가 내렸다. 다음 열린 뒤문으로 간편한 등
산복차림을 한 처녀들이 우르르 내리는데 석호보
다 조금 아래뜨래의 처녀들이었다. 이 길을 따라
가고 또 가면 가닿게 될 어느 바다가에 휴양이라
도 갔다오는지 길옆에 오구구 모여서서 풀이깊다
거니 산이 높다거니 경치가 어떻다거니 하고 떠
들어대는 처녀들의 몸에서 비릿한 바다냄새가 알
릴듯말듯 풍겨왔다.

《처녀동무들! 길을 열어야 집으로들 갈게 아니
요? 어머니가 보고싶지들 않소?》

비맞은 참대처럼 싱싱한 처녀들에게로 자꾸만
끌려가는 시선을 다잡으려고 애쓰면서 《돌사태》
를 치우기 시작한 석호옆에 다가오며 뺄스운전사
가 언저지 소리쳤다.

그제사 석호있는대로 와 물려온 처녀들이 크고
작은 바위돌들을 날라다 길옆너머로 던지며 무엇
이 그리 우스운지 깔깔 웃어댔다.

《가만!》

그러는 처녀들을 강진이 멈춰세웠다.

《돌은 굴리지 말고 나무밑에 쌓아놓으시오.》

명령조로 엄하게 울리는 그의 말에 처녀들은
손에 든 바위돌을 내려다보며 잠시 굳어졌다.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망탕 굴려서야 안되
지.》

《예?!》

《어린 잣나무들이 상할가봐 그러오.》

《잣나무요?!》

한결 누그러진 강진의 설명에 눈이 울롱해진
처녀들이 바위돌을 그냥 든채로 길옆에 주런이
다가섰다.

《잣나무는 없는데요.》

조약돌같이 반듯해보이는 얼굴에 류달리 속눈

썩이 길다란 처녀가 길아래쪽을 굽어보다가 손에
든 바위돌을 내려놓으며 강진에게 말했다.

《저 개암나무숲에 옷초리를 내민것들이 보이지
않소?》

강진이 길아래편을 손짓하며 대답했다.

《저것들이야 소나무가 아닌가요?》

속눈썹이 긴 처녀가 숲에 대하여 꽤 자신있다
는 투로 반박했다.

《소나무에 접해 키운 잣나무숲이요. 글썽 아직
은 숲이랄게 못되지만 이제 4,5년후면 동무들의
키를 넘게 자라서 잣을 따게 될게요.》

《그때 잣따러 오세요?》

어느결에 강진의 곁에 몰려와섰던 처녀들중의
눈이 울롱하고 귀밑머리가 고집스럽게 까부장하
니 안으로 휘여든 처녀가 그를 마주 쳐다보며 물
었다.

《글썽, 우리가 잣을 따라 말라 할 권한은 없지
만...》

《동지는 산림감독원이 아닌가요?》

귀밑머리 곱게 감겨든 처녀가 울롱한 눈에 의
아쩍은 빛을 머금고 강진을 쳐다보며 물었다.

《옐, 보면 모르니? 도로관리원 아니가!》

저쪽에서 어떤 처녀가 그의 말을 부정했다.

《애들은... 저 차를 못 보니?》

숲에 대해 좀 아는 듯 한 처녀가 저만치 아래편
에 세워둔 석호네 차를 눈짓해보이며 말했다.

《오, 운전사들이었구나.》

《그런데 운전사동지는이 숲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얼굴이 반듯한 처녀가 긴 속눈썹밑의 큰 눈에
호기심을 담고 물었다.

《저 나무들이 말해줘서...》

《어마나, 나무가 말을 해요?》

롱조로 하는 강진의 대답에 처녀들이 까르르
웃어대며 시까슬렀다. 강진이 무슨 대답을 하
나 하고 저도 모르게 귀를 강구던 석호도 속으로 픽
웃어버렸다. 그러나 강진은 한수 더 뺐다.

《그럼,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좋으면 춤도
추고 슬프면 울기도 하구...》

《어마나, 재미있대야. 나무가 말을 하다못해 춤
까지 춘대, 울기두 하구.》

《애, 못 봤어? 〈땅과 말하는 처녀〉. 영화의 주
인공.》

《그건 영화먼저 소설이야, 단편소설. 변... 변...
뭐든가, 작가가...》

속눈썹 긴 처녀가 눈살을 찌프리고서서 기억을
모으느라고 숨을 죽였다.

《변가면 어떻게 우가면 어쨌냐? 이젠 그만 가
자, 그러다 로상에서 해를 지우겠다. 저런, 벌써
꼴깍 졌구나.》

재잘재잘 말방아찡는 처녀들을 향해 석호네를
도와 《사태작업》을 끝낸 뺄스운전사가 손을 탁

탁 털며 재촉하는 소리였다. 그러자 처녀들은 석호네 《운전사동지들》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은채 우르르 몰려가 뺨스에 올랐다. 그리곤 뺨스가 굽인돌이너머 숲속으로 사라질 때까지도 저들끼리 그냥 웃어대며 뒤 한번 돌아보지 않았다. 석호는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жат팔 때 꼭 오겠어요.》

뺨스가 사라진 쪽에서 뒤늦게 들려오는 인사말이었다. 아까 《жат팔 때 오세요?》하고 묻던 눈이 울롱한 그 처녀의 목소리같았다. 한참 가다가서야 미처 인사하지 못한것을 상기하고 소리치는 모양만 메아리처럼 멀어지다가 아주 사라졌다.

《우리도 가지요. 동무들이 기다리겠소.》

귀여운 새들이 가득 든 새조롱을 통채로 잃어버린것 같은 기분에 잠겨 서있는 석호를 돌아보며 강진이 재촉했다.

차는 곧 떠났다.

이번에는 강진이대신 석호가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굽인돌이를 돌아설 때까지 어째선지 강진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다. 석호는 그러한 강진을 보면서 아까 속눈썹 긴 처녀의 물음에 그 나무들이 말해줬다고 룡조로 대답하긴 했지만 혹시 이 숲과 무슨 인연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깨지만 않으면 아침밥도 건넌고 오래오래 늦도록 잠을 자리라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누운 석호였지만 여느날과 똑같은 시간에 깨어났다. 화려한 꽃밭속에서 뛰놀며 좋아라고 웃어대다가 제풀에 놀라 깬것이었다. 어처구니없는 꿈때문에 너무 일찍 깬것을 내심 불만하게 생각하며 씹쓰무레한 쪽냄새가 풍겨오는 쪽베개를 베고누운채 다시 잠을 청하려 했으나 잘되지 않았다. 조금 늦게 도착한 자기네들을 반갑게 맞아들여서는 모두들 떨쳐나 짐을 부리운다, 차를 청소해준다, 목욕을 시키고 푸짐한 식사를 대접해준다, 식사가 끝나자 아늑한 침실에 《모셔》다 눈같이 하얀 새 백포에 베개잇까지 새것으로 갈아준다 하며 성의껏 《대접》해주는 바람에 기분이 흠족해져서 잠에 들던 어제 저녁의 일을 하나하나 더듬어보다가 옆자리를 살피던 석호는 벌떡 일어나앉았다. 옆자리가 비어있었던것이다.

강진이 어디 가거나 늘 그러하듯 모포만 군대때의 습관대로 규모있게 포개져있었다.

(언제 일어났을까? 어데 갔을까?)

순간 어제 저녁, 래일 오후쯤 해서 사업소로 떠나자던 강진의 말이 불쑥 떠올랐다.

(그러니 혼자서 차정비를!!)

석호는 허둥지둥 잠자리를 정돈하기 시작했다. 보조운전사는 늦잠을 자고 책임운전사는 차정비를 하고... 이건 안될 말이었다.

부리나케 모포를 개어놓고 나온 석호는 차를

세워둔 침실뒤쪽부터 가보았다. 강진은 보이지 않았다. 얼른 기관실뚜껑을 열어보니 아닐세라 기름 먼지 한점없이 말끔히 정비되어있었다. 공구함을 찾아보니 공구며 소제도구며도 깨끗이 정돈되어있었다.

(늦었구나. 그런데 차를 이렇게 정비해놓고 어딜 갔을까.)

부지중 마음이 조금해난 석호는 건물옆 샴터에 나앉아 땀나물을 다듬고있는 취사원처녀한테로 다가갔다.

《저... 동무, 우리 책임운전사동질 못 봤습니까?》

《좀전까지 차청소를 하고 정문쪽으로 갔습니다.》

처녀가 침실건물뒤켠에 세워놓은 차와 그리 넓지 않은 마당 저쪽끝의 나무로 해세운 가설정문을 번갈아보며 대답했다.

(정문은 왜 나갔는가?)

입밖에 내지 않은 그 의문에 대답이나 주려는듯이 취사원처녀가 한마디 덧붙였다.

《마대와 삼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대와 삼을 들고?!)

접쳐드는 의문에 쫓기우듯 마당을 가로질러 정문을 나선 석호는 책임운전사가 이 정문을 나선 다음 어디로 갔을까 하고 한동안 서서 생각을 굴리었다.

어제 《위험개소》를 처리해놓고 고개길을 내릴 때 무엇이 안심치 않은듯 자꾸만 뒤돌아보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길우에 굴러든 바위돌을 꼭 치우고 가라고 이르던 격언비슷한 그의 말도 떠올랐다.

(그래, 그렇다. 책임운전사동진 어제 길옆에 쌓아놓고온 《사태》를 마저 치우자고 갔다.)

의문이 이렇게 풀리자 속이 더욱 급해난 석호는 주저없이 고개길에 접어들었다. 등성이에 펼쳐진 강냉이밭을 량옆에 끼고 땀땀스름스름 울러뻗은 길은 밭이 끝나자 곧 울창한 숲에 묻혔다.

비온 다음날의 해뜨기 전이라 두툼한 락엽밑에서 서려오르는 습기를 머금은 눅눅하면서도 싱그러운 냄새와 꿈에 잠긴듯 몽롱하고 흐릿한 대기로 숲은 흥미한 느낌을 자아냈다. 간밤의 어둠조각이 거뭇거뭇 웅크리고 앉아있는 숲사이로 소리없이 스며드는 얇은 안개발을 뚫고 간신히 비쳐내리는 새벽빛에 풀잎들과 나무잎새들에 맺힌 이슬방울들이 어슴무레한 빛을 뿜다가 어디론가 슬그머니 종적을 감추곤 했다. 길도 어제밤 꼬부리고 누운채 든 잠을 아직 깨지 못한듯 우물구불 울리흘렀고 새들도 꿈속에 잠긴듯 고요하다.

석호는 어제 본 비온 뒤의 숲과는 또 다른 정서를 불러내는 해뜨기 전의 숲의 신선하고 짜릿한 공기를 한껏 느끼면서 줄달음을 놓았다. 어제 시간이 바빠 못다하고온 《좋은 일》을 책임

운전사에게 알뜰하게 다 빼앗길수는 없었던 것이다. (차정비에 그것마저 다 뺏기면 나는 뭐가 될가.)

해발고가 높아짐에 따라 점점 질어지는듯싶던 안개발이 고개중턱을 넘어서자 어리둥절해질만큼 갑자기 말쑥해지면서 고개마루를 향하여 연줄연줄 어깨를 겨루고 늘어선 높고낮은 산발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석호는 《아!》하고 저도 모르게 환성을 올렸다. 안개속에 조용히 묻힌 골짜기아래로는 5,7년생쯤 되어보이는 분홍꽃아카시아숲이 청청하게 우거졌고 그 건너편 산등성으로는 정연하게 줄맞춰 심은 어린 잣나무들이 키낮은 떨기나무숲으로 검푸른 상수리아지를 촘촘히 내밀고 서있는데 마치 고지우로 질풍같이 치달는 기병군단의 끝없는 산병선같이 장엄하게 안겨왔다. 어제 처녀들이 돌을 막 내리굴리다가 강진이 한테서 제지당한 그 숲이었다.

석호는 그 어떤 알지 못할 힘에 붙잡히운듯 무춤 걸음이 떠졌다. 숲이 좋은 주인을 만난것 같다고 하던, 어제는 흘러들었던 강진의 혼자말이 다시금 귀전에 울려오면서 자연이 이루어낸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것이었다. 그 어떤 인간들의 꾸준하면서도 장구한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풍경이라는 생각이 쿵 하고 가슴에 마쳐왔다.

그 충격에 걸음을 말긴채 얼마쯤 갔을가. ... 어제 사태를 처내던 굵인돌이가 불쑥 눈앞에 나타났다. 석호는 그것을 상처입은 길쭉의 나무를 보고 알았고 그러자 우뚝 서버렸다.

《응?!》

어제 희끗희끗 속살이 드러난것을 보고 갔었는데 밤사이 마대천으로 풍풍 싸매져있었던것이다.

자석에 이끌리우는 쇠불이처럼 성큼성큼 다가가 찬찬히 살펴보니 누군가 나무의 껍질 벗겨진 곳에 진흙땀을 해주고 비물에 씻길가봐 이렇듯 마대천으로 풍풍 싸매준것이었다. 책임운전사가 삽과 마대를 들고갔다면 취사원처녀의 말이 생각키웠다.

(그렇다면 길때문이 아니라 이 나무때문에?)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무옆의 길쭉에 무쳐놓았던 돌무지가 없어졌다. 그것들이 길 안쪽의 흙벼랑아래 쌓아놓은 석축우에 줄맞춰 덧쌓인것을 알아본것은 잠시후였다. 어린 나무들이 상한다며 그것들을 길아래로 던지지 못하게 처녀들을 단속하던 강진의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럼?!...) 하는 생각으로 길아래쪽을 내려다보던 석호는 금시 얼굴빛이 환해졌다. 저 아래편에서 길쭉을 등진채 쭈그리고 앉아있는 강진을 발견한것이었다. 속옷바람으로 연신 허리를 구췌거리는 뒤모양으로 보아 무슨 일거리를 붙잡고 앉아있는것 같았다.

(뭘 하는걸가?)

의혹스럽기도 하고 한편 반갑기도 하여 그리로

몇걸음 내려가던 석호는 무춤 동작이 굳어졌다.

눈아래의 발부리에 길쭉의 나무밑둥처럼 《붕대》를 싸맨채 서있는 어린 잣접나무를 본것이였다.

(으—응?!)

아래쪽을 굽어보니 그런 나무는 그밑에도 있었고 강진이 앉은 바로 등뒤에도 또 있었다. 선채로 뒤를 돌아다보니 길쭉의 상처입은 나무밑으로 해서 바위돌이 굴러내린 자리가 력렷했다. 그러자 모든것이 확연해졌다. 어제 석호가 떨군 바위돌이 굴러내리면서 줄맞춰 심은 이 어린 잣접나무들에게 상처를 입힌것이였다.

(그럼...)

석호는 강진이 놀랄가봐 조심조심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다 조심한다는노릇이 발을 헛짚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맹이가 굴러났다.

《누구요?!》

깜짝 놀란 강진이 벌떡 일어서며 돌아왔다. 그러다 엉거주춤해 서있는 석호를 알아보자 첫순간엔 놀라와하는 빛을, 다음순간에는 좀 당황해하는듯 한 표정을 지었다. 남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할 일을 하다가 들린 사람처럼. 그가 무안해한다는것을 느낀 석호는 얼른 시선을 떨구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들려져있는 긴 꼬작천과 줄기의 껍질이 벗겨져나간 어린 잣접나무가 한눈에 안겨왔다. 강진이 지금 무엇을 하고있으며 무엇때문에 이튼아침 여기로 올라왔으며 어제 무엇때문에 차꾸만 뒤를 돌아봤는가 하는것을 석호는 묻지 않고도 알수 있었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석호는 《여기서 뭘 합니까?》 하고 모르쇠를 하며 그에게로 다가갔다.

강진은 잠시 대답이 없다가 손에 들고있던 꼬작천으로 껍질이 벗겨진 곳을 싸매주면서 석호에게 되물었다.

《좀 더 자지. ... 왜 왔소?》

《책임운전사동지가 여기로 왔다길래 아침운동 삼아...》

석호는 그냥 모르쇠를 하며 다가가 그의 일손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그 일을 했다. 석호는 껍질이 벗겨진 나무아지를 붙잡아주고 강진은 정히 싸매주고...

그러면서 석호는 상처입은 그 나무를 눈여겨보았다. 껍질이 벗겨져나간 바로 착아래 밑둥에 비스듬히 도드라진 흔적이 보였다. 소나무에 접해키운 잣접나무라고 어제 처녀들에게 알려주던 강진의 말이 문득 떠오르면서 마음이 흠칫해졌다.

그러니 저 도드라진 곳의 아래는 소나무요 그 웃쪽은 잣나무인셈이었다. 한즉 이 나무 역시 그리고 이 나무와 키다툼하며 자라고있는 저 많고 많은 어린 잣접나무들 역시 절로 이루어진 문자 그대로의 《자연》의 숲이 아니라 사람에 의하여, 강진의 표현대로 하면 《좋은 주인들》에 의하여

가꾸어진 인간들의 꾸준한 노력의 숲이라는 생각이 심장을 짹 더위잡았다. 어느 상식책에선가 흥미거리로 읽은적이 있는, 소나무에 잣나무를 접하는 작업을 단 30초내에 끝내야 살수 있다고 쓴 구절을 보며 꽤나 덤벼쳐야겠군 하고 속으로 생각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니 수천그루를 넘을 저 어린 잣접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숨을 모두어 잡고 땀 흠칠새도 없이 바친 그 긴장한 30초가 아니 깃든 나무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속이 뻘근해왔다.

일을 다 끝낸 다음 싸매준 상처자리를 다시금 살펴보고서야 강진은 길에 올라섰다. 그리고는 길 옆의 나무밑등을 감싸준 마대천을 뚝뚝 눌러보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다.

《길위에 드리운 위험을 치위버릴 생각은 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땅밑에서 길밑의 흙을 짹 그러안고 서있는 고마운 나무들엔 마구 상처를 냈으니 참... 이 나무들이 밤새껏 우릴 얼마나 원망했겠나?》

강진은 혼자말처럼 흘렸지만 석호에게는 그 한마디들이 류다른 무게를 가지고 가슴을 파고들었다. 바위밑에 든장질을 할 때 석호는 길 아래편의 나무들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했었다. 아니, 보이지조차 않았었다. 길을 당장 막아선 장애도 아닌데 도로관리원들이 해야 할 일을 운전사들인 우리가 왜?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던것이다. 그런 석호이고보면 자기네들이 늘 달리고있는 길을 흙속의 뿌리로 짹 붙잡아주고있는 고마운 나무들에 상처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생각 같은것은 바랄수도 없었다.

결국 돌을 망탕 떨구었고 그렇게 굴러난 돌이 더운 날엔 별을 가리워주고 추운 날엔 바람을 막아주며 비오는 날엔 아늑한 줄기와 역세인 뿌리로서 사태를 막아주는 고마운 나무들을 마구 들이받고 상처를 입힌것이였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노력이 깃든 숲에 상처를 낸 《장본인》은 바로 자기였던것이다. 그런데도 강진은 그것이 저의 잘못인듯 자신을 탓하는것이였다.

석호는 살아 숨쉬며 움직일뿐아니라 눈물이나 신음소리로서 그 어떤 아픔을 호소할수도 있는 고등한 생물체의 상처앞에 선듯 아픈 마음이 그대로 내비친 강진의 눈을 마주볼수 없어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키 한배반쯤 되는 높이에서 세가닥으로 갈라져오른 굵은 가지들에서 또다시 뻗어져나간 수많은 잔가지들이 얹히면서 서리고 서린우에 넓고 푸른 잎새들의 탑을 층층이 쌓아올렸는데 저쯤 떨어져 자란 구불한 소나무의 잔등을 타고오른 무슨 덩굴나무가 그 나무에로 곧장 옮겨와 처녀애들의 장난감바구니같이 생긴 열매들을 오롱조롱매달고서 그 나무와 키다툼이라도 하려는듯이 상수리쪽으로 올리뻗었다.

꺼억— 꺼억—

덩굴나무에 가리워 짹 막혀버린 상수리쪽에서 별안간 목을 놀리운듯 한 새울음소리가 울려오더니 푸드득 하고 깃을 차는 소리가 잇따랐다. 그중에 아이들 장난감바구니같이 생긴 열매가 몇알 후두둑 떨어지고 뒤이어 마른 삭정이 몇개와 누렇게 황이 든 잎새 몇개가 천천히 떨어져내리면서 그윽하면서도 진하디진한 향기가 물씬하고 그의 몸을 휘감았다.

석호는 자기와 강진의 발사이에 내려앉은 열매와 나무잎새가운데 노랑고 자그마한 꽃송이가 한두개 떨어져있는것을 보았다. 정신마저 혼미하게 하는 그 향기가 발치의 그 꽃이 풍겨주는것인지 아니면 이름모를 새가 야단스레 날아가면서 휘저어놓은 머리우의 나무전체에서 흘러내리는것인지 석호는 알수 없었다. 도시내기인 석호로서는 향기로운 꽃을 떨군 그 나무의 이름도, 바구니같은 열매를 잔뜩 매단 덩굴나무의 이름도 그리고 금방 깃을 치며 날아간 새이름도 알수 없었다. 하지만 석호는 구래여 알고싶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발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써 길을 받쳐주고있고 자기의 폐장속에 신선한 공기를 부어주고있으며 이제 해빛이 내리질 때면 시원한 그늘을 지어주는 고마웁고 귀중한 존재라는것을 의식한것만으로도 석호는 만족하였다.

그런데 나는... 그처럼 고마운 나무에다 상처를 내고서도 돌아가 잠을 잔것이다. 꽃밭속을 헤매는 달콤한 꿈까지 꾸면서...

석호는 시선을 돌려 길아래쪽의 어린 잣접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 나무들도 바로 자기때문에 아직 아지를 채 퍼기도 전에 아픈 상처를 입었다. 이제 이 나무처럼 아름답게지목으로 자라 길을 든든히 지켜주고 전쟁물영화에서 본 공격용수류탄 같이 생긴 잣송이들을 해마다 선사해줄 그때까지도 (석호는 잣은 두해에 한번씩 열매를 따는것을 감감 잊고있었다.) 그 상처는 남아있을것이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제 누가 하는 생각을 불러낼것이였다. 그런데 나는...

깊은 생각에 잠긴눈길을 들어 강진을 바라보던 석호는 그의 손에 쥐여져있는 한줌가량의 거무스레한 흙을 보았다. 그것이 상처입은 나무의 밑둥아래 시꺼멓게 젖은 땅에서 집어든 흙이라는것을 알아본것은 다음순간이였다. 순간 석호는 그것이 보통의 젖은 흙이 아니라 밤새껏 자기를 원망하며 흘린 나무의 눈물에 젖은 자욱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무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누런진물에 젖은 그 흙이...

지금껏 누군가 금방 찍어냈거나 이렇듯 껍질이 벗겨진 자리에서 누런 진물이 흘러내리는것을 더러 보아왔지만 석호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무의 진이였다. 그것을 나무가 흘리는 그 어떤 눈물같은것으로 생각해본적은 이때까지 한번

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이순간엔 나무의 진물이 적혀놓은 검스레한 흙이 말할수도 있고 신음소리로 아픔을 호소할수도 있으며 지어는 감정까지도 표현할수 있는 산 생명체가 흘린 그 어떤 감성적표현물처럼 생각되는것이...

석호에겐 난생처음 그렇게 느껴졌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이 순간엔 앞에 서있는 나무가 그저 이름모를 나무가 아니었으며 나무일설레는 소리도 그저 나무일 설레는 소리가 아니었다. 생명은 물론 인간에게만 고유한 감성조차 가진 이 땅의 한 생명체가 자기를 향하여 무엇인가 열렬히 호소하는 산 목소리였다.

석호는 강진의 손에서 그 흙을 조심히 받아들었다. 자연적인 촉감이상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서도 어딘가 꺼칠꺼칠한 감각이 손바닥으로 해서 온몸에 짜릿이 흘러들면서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미모의 처녀가 강진에게 묻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동지는 이 숲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도 잘 알아요?》

지금 석호 또한 강진에게 묻고싶었다.

(무엇이 책임운전사더러 잠을 깨자 여기로 달려오게 했을것인가. 이 숲, 이 나무와 강진을 이어준것은 과연 무엇인가. ...)

책임운전사가 숲속의 이름모를 한그루 그 나무와 무엇으로 이어졌을가 하는 수수께끼를 석호는 그로부터 석달후에야 풀었다.

석달후의 그날은 윤강진책임운전사가 련합기업소 지배인차운전사로 소환되리라던 소문과는 달리 석호네 차사업소의 중대장으로 임명받는지 며칠째 되는 날이였고 소문보다 더 멋있게 생긴 처녀와의 결혼식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그 약혼녀를 본 사람들의 표현이었는데 석호는 아직 못 보았다.) 또한 그날은... 석호네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새 중대장과 석호가 병원에 실려간 날이기도 했다. 그날, 강진은 차를 석호에게 물려주기 전의 마지막운행길에 올랐었다. 석호에겐 그 운행길이 보조운전사로서의 마지막운행이었다. 그 운행이 끝나면 석호는 당당한 책임운전사의 자격으로 그 차를 넘겨받을것이었다.

운행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길옆의 어느 개울가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나누고 잠깐 쉬는 사이 석호는 알고싶었던 그것을 물었고 그러자 강진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날 밤 날 깨운건 꿈이었어.》

《예? 꿈이요?!》

그날 자기 역시 달콤한 꿈속에 잠겼다가 제 웃음소리에 놀라 깨여났던 생각을 하면서 석호는 그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한창 단풍계절이어서 온통 붉어져보이는 멀고 가까운 산이며 두사람이 나란히 앉은 너럭바위아

래 자갈바닥을 씻으며 흐르는 맑은 개울물이머를 정겨운 눈매로 이윽히 바라보던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

꿈이란 그속에서 헤멜 때에는 현실처럼 방불하기도 하고 어떤 땐 현실에서보다 더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고 심장을 더위잡기도 하지만 일단 깬 다음 다시 되살려보려고 하면 먼 지평선끝에서 아물거리는 봄날의 신기루처럼 알쏭달쏭해지곤 하는것 같아. 그러니 꿈에 본것을 남에게 그대로 그려보인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봐.

그날... 꿈속에서 난 고향의 숲속을 거닐고있었어. 낮익은 숲의 낮익은 나무, 낮익은 풀, 낮익은 꽃들이 걸음걸음 나를 반기고있었어. 이진 설익은 물알을 까먹던 개암나무, 이진 방아쥔는 목젓너머로 군침을 삼키며 오르던 돌배나무, 저진 꿀벌들이 봉봉거리던 피나무, 저진 참나무, 저진 다래덩굴, 저진... 갈수록 낮익은 나무들이 많아졌고 그럴수록 그 나무들을 향하여 걷는 나의 걸음은 빨라졌어. 그러다 맑은 내물이 졸졸 흐르는 산기슭의 돌서덜근처에서 가래나무숲을 만났어. 맨앞의 아지가 도끼날에 찍혀져 무참하게 꺾어졌고 밑둥의 키높이만 한 중둥에 술한 꺾쇠가 박힌 나무가 그중 낮익어보였어. 그래 몇걸음 다가서는데 별안간 바람질이 시작되면서 그 가래나무가 부르르 몸을 떨면서 무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게 아니겠어.

이어 전체 가래나무숲이 시꺼매지더니 와— 와—고함을 지르는데 검은 아지들과 푸른 잎들이 모두 꺾쇠로 변했어. 바람질이 점점 더 세차지면서 그 꺾쇠들이 나를 찍을듯이 요동을 쳤어.

나는 더럭 겁이 났어. 그리하여 돌아서 달아나기 시작했어. 그러자 천둥이 울고 번개불이 번쩍거리면서 낮익어보이던 모든 나무들이 길고 휘친 휘친한 가지로 나를 막 후려갈기기 시작했어. 빨리 숲을 빠져나가지 않으면 큰변을 당할것 같았어. 종주목을 부르짖고 뛰었어. 눈앞에 무성한 싸리나무숲이 펼쳐졌어. 역시 낮익은 숲이었어. 저기로! 하는 생각이 들었어. 얼른 그리로 뛰어들었어. 현대 이진 어떻게 된걸가? 보라빛꽃을 활짝 피워올렸던 싸리나무숲이 그 순간 뽕죽뽕죽한 창으로 변해버린거야.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그 창을 밟을판이었어. 꺾쇠를 추켜든 가래나무숲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며 조여들었어. 뒤에는 꺾쇠의 숲, 앞에는 창이 바다, 물러설수도 나갈수도 없었어. 난 그만 주저앉았어. 순간 뽕죽한 싸리나무창이 몸 어딘가를 쿵 찢렸어.

《악!》

제 비명에 놀라 깨어난 나는 우선 싸리나무창에 찢린 곳부터 만져보았어. 아프지 않았어. 라이터를 켜들고 손을 비쳐보았어. 피도 묻지 않았어. 그제야 꿈인것을 알았고 그러자 안심이 되었어.

옆자리에선 동무가 곤히 자고있었어. 동무도 그 순간 무슨 꿈을 꾸는지 꿈꾸 얹음소리같은것을 내더니 빙그레 웃는것이 아니겠어, 좋은 꿈을 꾸는 모양이었어.

그런데 나는?

다시 누워 꿈을 되새겨보던 난 깜짝 소스라쳤어.

그 가래나무숲이 왜 꺾쇠의 숲으로 변했으며 짜리나무숲은 무슨 까닭에 무수한 창으로 변했는지 난 알았던거야.

내가 고향의 그 가래나무숲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내 고향땅의 숲을 가꾸고 지켜가던 산림감독원아바이때문이었어. 우리들이 교양원선생님의 손목을 잡고 원목을 갈 때에도 그는 색날은 작업복차림에 삽과 곡괭이를 메고 높고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고향의 숲을 가꾸었고 우리들이 《소년단립》을 가꾸러 산에 오르곤 하던 인민학교(당시)시절에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무를 심고 가꾸는 법을 배워주었어.

바로 그 산림감독원아바이가 한그루 가래나무 때문에 우리 마을 애들과 《멀어지는》자그마한 사건이 생겼어. 가는 곳마다에서 엉뚱한 재구질을 치곤 하는 장난꾸러기들이었던 우리 마을 애들이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그 무슨 야외숙영훈련을 한 다면서(실은 거의 놀음에 가까운 장난이었어.) 마을 가까이에 있는 골짜기에 들어가 숙영터를 꾸린다면서 열매가 한창 익어가는 아름드리나무 가지들을 사정없이 찍어내고도 모자라 천막봉을 고정하느라고 그 나무밑둥에 술한 꺾쇠를 박는 바람에 나무가 아주 상했던거야. 뒤미처 그걸 발견한 산림감독원아바이가 우리모두를 끌고다니며 부모들을 불러댄다 하며 《소동》을 일구는통에 자칫하면 그해 여름방학이 끝난 후에 가기로 되어있던 소년단야영에서 우리 마을 애들전부가 밀려날번 했어.

야영을 못 갈가봐 속이 한줄만 했던 우리는 그 후부터 그 아바이를 아주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같았어. 말하자면 산을 꼭 덮은 숲속에서 그까지 나무 한그루쯤 조금 상하게 한것이 무슨 큰 나쁜짓이나 된다고 그렇게 《소동》을 피우느냐 하는것이였어. 그후부터 우리는 그 아바이만 보면 술술 피해다녔는데 그러는 우리를 아바이는 빙그레 웃는 얼굴로 대해주곤 했어.

장난이 세찬 대신 속마음이 좁았던 우리가 중학교를 졸업하던 그해 아직 애어린 가슴과 어깨를 한껏 솟구며 군복을 펴쳐입고 고향을 떠나갈 때였어. 우리들을 싣고갈 렬차가 흠에 막 들어설 무렵 산림감독원아바이가 배가 불쑥한 배낭 두개를 지고들고 나타났어. 바래울 사람도 없는 그가 무엇때문일가 하고 모두들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가운데 곧장 우리들한테로 다가온 그는 무겁

게 가져온 배낭을 내려놓더니 그속에서 가래열매를 꺼내어 우리들의 배낭에 줌줍이 넣어주는게 아니겠어.

《너희들이 욕보인 그 나무에서 딴 열매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그리고는 뜻밖의 일에 놀라 쳐다보는 우리들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며 참으로 뜻깊은 말을 해주었어.

《이 감독원령감이 너무 박하게 굳걸 잊어다우. 하지만 어디 가서든지 이것만은 알아다우. 어느 숲에 가든지 만나게 되는 나같은 산림감독원들만이 그 숲의 주인이 아니라는걸 말이다. 그 숲의 은혜를 입고사는 사람들모두,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숲이 지어주는 나무그늘밑에 앉아 땀을 들이고가는 이름모를 길손까지도 다 그 숲의 주인이 거던.

그런데 이 말은 주인이기때문에 그 숲에 함부로 손을 댈 권리를 가진다는 말이 아니다. 반대로 가꾸고 보살피고 지켜야 할 의무를 본분으로 짊어졌다는 말이다. 사실말이지 제 집 울타리안에 심은 나무밑둥에 망탕 도끼날을 박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은 없다. 진정한 주인이라면 도끼자루굽기만한 나무 한그루라도 짊을 생각보다 그 나무 밑에 흙 한줌이라도 더 가져다 북돋아줄 생각이 먼저 앞서는 법이거던.

명심해라. 자기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구 이렇게 맛있는 열매를 주구 한여름이나 한겨울엔 물사태, 눈사태를 막아주구 시원한 그늘과 아무리 보고 또 봐도 싫지 않은 풍치를 만들어주는 고마운 숲에다 함부로 상채를 내는건 제 몸에도 도끼질하는 것과 똑같이 우둔하고 미련한짓이다.

살아있는 나무에 도끼질을 할 때 그 나무가 몸을 떨면서 우는건 제 몸에 나는 상처가 아픈때문이 아니란다. 제 발등을 찌는 그 사람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우는거란다.》

렬차를 타고가는 동안 그 누구의 부탁이나 조언보다도 산림감독원아바이의 그 말이 가슴속에 제일 오래, 제일 무겁게 남아있었어. 망막에 새겨진 그의 모습(렬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저어 주던, 왜선지 더욱 곱고 깨끗해졌듯 해보이던 그 모습이었어.)과 가슴에 인찍혀진 그의 말을 평생토록 잊을것 같지 않았어.

하지만 생활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

보람찬 병사생활의 나날 어언간에 잊혀졌던 그의 말, 그의 모습을 나의 심장속에 다시금 되새겨준 한 처녀가 있었어. ...

강진은 여기서 잠시 말을 끊고 먼산에 눈길을 주었다.

석호는 자기의 심장속에 무엇인가 뜨겁고 소중한것이 차곡차곡 포개여지는듯한감을 느끼며 그의 입만 쳐다보았다.

강진은 개울너머 먼산에 주었던 시선을 물위에

던지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윤강진은 부대에서 마련한 진거름을 주변 농장에 실어다줄 임무를 받았었다.

그가 찾아간 농장조전은 떨기나무들이 무성한 야산기슭에 있었다.

농장원들이 거름을 부려주는 동안 칙렁쿨이나 좀 뜰어갈 생각으로 산에 올랐던 강진(그의 중대는 토끼를 많이 기르는 중대였다.)은 무성하게 자란 싸리나무숲을 보자 생각이 달라졌다. 그 싸리나무로 소대동지들에게 차소제도구를 한조씩 일식으로 깎아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쩍 뇌리를 친 것이었다.

사람이 하고싶어 하는 일은 항상 성수가 나는 법이다. 순수 자기자신을 위하여 하는 리기적인 일일 때에는 하고싶어서 하는 일이라기보다 꼭 해야 할 일이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어떤 흥보다는 의무감으로부터 오는 피로가 뒤따르지만 남을 위하여, 더우기 자기자신까지 포함된 집단을 위한 마음에서 진정으로 하고싶어서 손붙인 일은 더욱 성수가 나는 법이다.

강진이 지금 그랬다. 소대를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하게 된 흐뭇한 기분에 젖어 무연한 싸리숲우를 맴도는 벌들의 봉봉소리에 흥, 흥 코노래반주까지 맞춰가며 그중 굵고 곧바르게 자란 쓸만한 싸리나무들을 골라가며 몇대 베었을가 했는데 웬 처녀가 달려왔다.

금방 중학교를 졸업했음직한 처녀였다.

《가만 좀 있어요.》

다급한 소리를 앞세우고 달려와 숨을 할딱거리는데 가느다랗게 보이는 목언저리에 아직 애티가 느스란히 남아있는 처녀였다. 하지만 급히 달려오고자 빨갛게 상기된 얼굴은 강진의 눈이 대번에 켜해질만큼 아름답고 그윽했다.

《왜 그러오?》

일부러 통명스레 묻는 강진에게 무슨 말인가 할듯말듯하던 처녀가 《저, 그 낫을 좀 줄수 없어요?》하며 벌에 탄 살갓밑에서도 처녀들특유의 부드러운 느낌이 숨길수 없는 힘으로 빗발치는 얼굴과는 달리 아주 작고 거친듯해보이는 손을 쑥 내밀었다.

강진은 처녀가 낫을 꼭 쓸데가있어 빌리러 왔나보다 하고 생각하며 그의 손에 낫자루를 쥐여 주었다. (남달리 아름다운 처녀의 용모가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는편이 더 솔직한 표현 일 것이다.)

《그럼 잠깐...》

낫을 받아온 처녀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서 달려오던 때처럼 쏜살같이 산을 내리기 시작했다.

땅밑에서 불쑥 솟아난것 같은 미모의 처녀에게 영문도 모르면서 낫을 앗기운 강진은 없어진김에 쉬여간다고 몇대 베다가만 싸리숲 한옆에 퍼더버

리고앉아 눈아래로 펼쳐진 한여름의 풍요한 산, 들, 강의 풍치를 감상하며 낫을 빌려간 처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있어 처녀는 두손에다 무슨 사발같은것을 조심히 받쳐들고 나타났다. 폐부를 한껏 적시는 싱그러운 숲향취에 심취된채 앉아있는 강진이란테로 조심조심 다가온 처녀는 들고온 그 사발을 그 앞에 쑥 내밀며 말했다.

《잡주세요. 꿀물이에요.》

《꿀물?!》

강진은 낫이나 조금 빌려준데 대한 인사로서는 너무 후하다는 생각에 선뜻 받아들음을 못하고 빨갛게 달아오른 처녀의 얼굴을 그냥 쳐다보기만 했다.

《여기 농장사람들이 고마와하더군요. 바쁜 훈련 짬에 술한 거름을 마련해 실어다줬다고요.》

《동문 누구요?》

《우린 양봉사업소 양봉공들입니다. 꽃계절이 되면 꿀벌통을 신고 꽃을 따라 안 가는 곳이 없답니다. 아카시아꽃계절엔 그 꽃을 따라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피나무꽃계절엔 깊은 산골짜기에 그리고 지금같은 싸리꽃계절엔 이런 야산기슭에...》

《그럼?!》

별생각없이 처녀의 말을 따라들던 강진은 하마 트면 손에 든 꿀물사발을 떨굴번 했다. 처녀가 낫도 모르는 자기에게 꿀물을 받쳐다주는 뜻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강진은 산기슭을 뒹다싶이한 싸리밭과 금방 베여다 놓혀놓은 싸리나무를 번갈아 바라보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자주보라빛꽃이 만발한 싸리나무숲우로 술한 벌들이 봉봉거리며 맴돌았다. 그중 어떤 놈은 그가 베어놓은 싸리나무의 이미 《죽은 꽃》에 내려앉아 봉봉 날개를 떨면서 꿀을 모으느라 신고를 하고있었다.

강진은 눈앞이 아찔해졌다. 일생동안 그 순간처럼 급했던적은 있었던것 같지 않았다.

까마득히 잊혀졌던 산림감독원아바이의 말이 문득 생각키웠다. 《...고마운 숲에다 함부로 상처를 내는건 제 몸에도 도끼질하는것과 똑같이 우둔하고 미련한것이란다.》

지금까지 그 말이 자기 가슴속 어느 구석에 묻혀있었는지, 그렇듯 감감 있고 살았으며 이렇듯 생생하게 되살아날수 있는지 놀랍게 생각되는 것이었다.

그 산림감독원아바이한테 그까짓 나무 한그루쯤 하는 철없는 생각때문에 《벌》을 받았고 지금 이름도 모르는 이 처녀한테 요까짓 줄에도 안차는 싸리나무 몇대쯤 하는 생각때문에 《옥》을 당하는판이었다. 우리의 숲, 조국의 숲속에 커서 중하고 줌도 안차게 작아서 헐값에 버릴것이 있으랴!

강진은 자꾸만 떠들거려지는 목소리로 싸리나

무를 베게 된 사연을 설명하며 처녀에게 거듭 거듭 사죄를 구했다. 그런데 말없이 서서 그의 말을 듣고있던 처녀가 또다시 《잠깐!》하고 쏜살같이 달려내려가는 것이었다.

강진은 무슨 일인가 싶어 사죄를 구하던 그 자세 그대로 한동안 그냥 서있었다.

한참만에 처녀는 해묵은 싸리나무를 한아름 안고 돌아와 서며 말했다.

《소제도구 깎는덴 이 마른 싸리나무가 더 좋잖아요?》...

강진은 그윽한 추억이 실린 눈길로 내 뒤쪽 먼 산밭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것으로 며칠동안 밤을 새워가며 깎은 소제도구를 소대동지들에게 나누어주었고(분대장동지의 감사를 받은것은 물론이고) 나도 한조가졌지. 그리고 제대될 때 그것만은 가지고왔어. 지금 우리 차공구함에 있지, 그 소제도구가... 차정비를 하느라고 그 소제도구를 꺼내들면 그날 이미 생명을 잃은 싸리꽃에 내려앉아 연약한 날개를 파들파들 떨며 꿀을 모으느라고 신고를 하던 그 조그마한 꿀벌이 막 보이는것 같애.》

아까부터 석호의 어깨너머를 지긋게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하던 강진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아니? 저게...》

하며 벌떡 일어서는 그의 눈속에서 번쩍하고 불꽃같은것이 튀겨났다.

깊은 의미를 담은 종결어로 이어져가는 그의 이야기에 심취되어있던 석호도 그를 따라 일어서며 뒤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순간 단풍일색으로 장엄하게 물든 산봉우리너머에서 시커먼 연기타래의 한끝이 불쑥 솟구쳐오르는것이 보였다.

《산불이?!》

《아까부터 마른 번개가 자꾸 친다 했더니...》

《예?!》

《앞으랴!》

강진이 차있는데로 바람처럼 달려가며 뒤에 대고 소리쳤다.

...

그렇게 달려간 석호네들은 뒤미처 달려온 주둔부대 군인들, 마을사람들, 약초채취며 산열매 따는 일로 산에 올랐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금시 번져가기 시작한 불을 껐다. 하여 가을바람을 타고 확확 열기를 내뿜는 불길의 위협앞에서 몸부림치던 숲은 구원되었다.

했으나 석호네들은 몸에 심한 화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실려갔다. 팔이며 발목이며 입은 석호의 화상도 심한것이였지만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것은 며칠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어있는 강진의 얼굴에 입은 화상이었다. 열침대에 누운채 꿈쩍 않는 강진의 온통 봉대천지로 화해버린 얼굴을 바라보던 석호는 그만 흑— 하고 처녀애들처럼

소리내여 흐느꼈다.

《왜 울어, 석호?》

눈을 싸매고 누운채 자는줄 알았던 강진이 묻는 말이었다.

《아니 울긴요. 울지 않습니다.》

《거짓말, 다 보고있는데...》

하며 강진은 옆에 다가간 석호의 봉대감은 손을 꼭 잡았다.

《저번에... 이야기를 다 끝내지 못했지. 내가?》

《예.》

석호는 강진이 험상하게 된 제 얼굴때문에 마음쓰는 자기의 기분을 돌려주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것을 알아차리고 일부러 밝은 어조로 물었다.

《참, 그 양봉공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것 같애?》

《글쎄요, 다시 만났습니까?》

석호는 호기심이 동해 다우쳐물었다.

강진은 석호의 손을 그냥 잡은채 말을 이었다.

《제대된 후 난 그 처녀를 기어이 찾아냈어. 목언저리에랑 남아있던 애리는 간곳 없고 말붙이기 어려울만큼 숙성한 처녀로 자랐더군. 난 그 처녀와 함께 고향의 산림감독원아바이한테도 찾아갔어. 중학생티를 벗지 못했던 그날의 애어린 처녀에게 눈부실듯한 원숙미를 더해준 세월이 그 아바이에겐 머리우에 하얗게 내려앉은 흰서리와 얼굴이며 손잔등에 새겨진 깊은 주름살로써 그 어떤 거룩한 완성미를 더해주었다는 생각이 들더군. 결혼식날엔 그 산림감독원아바이를 꼭 모셔오라고 했는데...》

《결혼식을 하게 될 그 처녀는 누구니까? 그 양봉공처녀!》

석호는 저도 알수 없는 충격에 벌떡 일어서었다.

그리고 그 어떤 강렬한 힘에 떠밀리운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읍지구의 한열, 호젓하면서도 조금 둔덕진 곳에 자리잡은 군인민병원입원실 마당이었다.

얼마 크지 않은 읍거리와 거기서 뻗어나간 길 그리고 그 길옆에 펼쳐진 밭, 숲, 강줄기가 한눈에 안겨왔다. 차길의 주인은 무엇보다 운전자들이라고 하던 강진의 말이 문득 되살아났다. 그리고 숲의 주인이기때문에 숲을 가꾸고 보살피고 지켜야 할 의무를 본분으로 짊어졌다고 했었던 산림감독원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니 저 산,저 숲, 저 강 그리고 저 길...) 하고 석호는 생각에 잠겼다.

숲에 들어서면 숲의 주인이요, 길에 올라서면 길의 주인, 강에 가면 강의 주인이다. 숲에 들어가 싱그러운 대기를 마시고 숲의 열매를 판대서 누가 값을 따지지 않는다. 길에 올라서 힘껏 달린대서 누가 값을 물라고 하지 않는다. 강도 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

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차례지는 권리이다. 가만, 가만... 그 권리를 가질 때 권리만을 가졌을가. ... 아니, 아니다. 주인으로서의 의무를 함께 걸머졌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잊고 살고있지 않는가. 의무는 벗어던지고 권리만을 농침없이 누리며...

나는 언제 한번 내자신이 저 논밭, 저 산과 숲, 저 강, 저 길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적이 있었던가. 저 논밭에서 나는 낱알을 먹고 저 강에 흐르는 맑은 물을 마시고 저 산과 숲의 공기를 마시고 열매를 먹으면서도 저 길로 매일같이 달리면서도... 이 모든것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 우리들 자신이기때문에 그것을 피를 바쳐 지키고 땀을 흘려 가꾸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던가. 그렇지만 강진중대장은... 석호는 마디마디 힘을 주어가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다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저 숲,저 산, 저 강, 저 길은... 나아가서 우리모두의 집인 조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석호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섬찝해났다.

(그래서... 그때문에 강진중대장은...)

석호의 눈앞에 아직 한번도 본적이 없는, 하지만 본적이 없는 그때문에 상상이 미치지 못할만큼 아름답고 황홀하게 그려지는 처녀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우에 강진의 봉대를 감은 얼굴이 덧놓이면서 금시 매운재를 뿌린것처럼 속이 쓰려왔다.

누구나 조국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말은 하기 쉽지만 정작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은것이다. 조국의 만년숲을 위해 당장 결혼을 앞둔 자기의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바치고 병상에 누워있는 저 강진중대장, 그가 바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닐가. 이름모를 나무줄기에 난 상처를 제몸에 입은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낄줄 알았기에 꿈속에서조차 그 아픔에 몸부림하다 끝내는 상처입은 나무를 찾아 고개길에 다시 올랐고 제 한몸은 다 불태워 한줌 솟으로 흩어질지언정 몸담고 살면서 맑은 공기와 달디단 생명의 즙을 마셔왔으며 세세넌넌 달디단 즙과 맑디맑은 공기를 마음껏 빨아야 할 생명의 요람인 이 땅의 숲엔 한치의 흠도 낼수 없기에 불타는 숲에 앞장서 뛰여든것이 아니겠는가!

지금껏 이 땅을 억세게 딛고 이 땅을 쿵쿵 구르며 살아오면서 가장 숭엄하고 크나큰것이 뉘에

깃드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석호는 한 운전자였다. 그런데 지금 석호는 일개 운전자로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한 공민으로서, 나라의 주인으로 불리우는 인민속의 한 존재로서 인생을 안아보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은 가슴벅찬 느낌일뿐이였다. 그에 대한 명백한 답은 시간이, 세월이 그에게 줄것이였다. 그가 이 숭고하고도 크나큰 감정을 버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한...

인간은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조국땅과 한몸이 되는것이며 이렇듯 피와 뉘으로 이어진 그 한 몸속에 진정한 애국의 뿌리가 내리는것이였다.

석호는 고개를 쳐들었다.

좌— 병원앞 정문길에 줄지어선 수삼나무들이 온통 붉은 갈색으로 변해버린 잎새를 조용히 흔들며 설레고있었다. 그리고 그 나무아래 새파란 잎을 펼쳐든 키낮은 줄나무생울타리너머의 정원엔 아래에 두툼한 비절《각반》을 찬 갖가지 과일 나무며 약나무들이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혹은 빨강게, 혹은 검붉게, 혹은 황금빛으로 황이 든 잎새들을 흐느적이며 서있었다.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넘어, 무성한 록음의 계절을 지나, 향기로운 열매의 계절을 거쳐, 장엄한 단풍의 계절에 이어 바야흐로 락엽의 계절을 맞이하고있었다. 열정의 이 계절, 불타는 이 계절...

《저 말 좀 묻자요.》

웬 녀인의 목소리에 석호는 눈앞에 펼쳐진 정경이 던져준 의미심장한 생각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채 눈길을 쳐들었다.

그의 바로 앞에 웬 처녀가 서있었다.

량손에다 과일이며 당과류가 가득 든 구력을 무겁게 들고 섰는데... 동터오는 새날의 려명과 같이 피어서 금시 떠오른 아침해빛을 한껏 머금은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부지런한 꿀벌을 연상시킬만큼 온몸에서 탄력과 강단이 은연중 느껴지는 처녀였다.

《누굴 찾으십니까?》

《강진이라고... 차사업소 중대장동무가...》

《예, 저기... 아니, 여기... 갑시다.》

석호는 속에서 금시 터져오르는 환성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강진에게로 처녀를 안내했다.

머리가 펴 돌것만 같은 길은 향기가 풍겨오는 듯 했다. 강진의 이야기를 통하여 느꼈던 싸리꽃 향기같기도 하고 달콤한 꿀향기 같기도 한 그 향기는 처녀가 안고온 숲의 향기, 내조국의 향취였다.

아버지의 당부 (외 1 편)

리성철

꿈만 같구나
귀엽게 방글거리며
첫돌상을 받던것이 어제같은데
사랑하는 내 딸 옥아
네 오늘은 꽃과 같이 피어나
만사람의 축복속에 결혼식을 하는구나

아버이장군님 세워주신
이 화려한 결혼식식당에서
틈틈한 청년과 나란히 앉아
큰상을 받아안은 너를 보니
아버지 이 가슴 끝없이 설레누나

이 기쁜 날, 이 복받은 날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당부하고싶구나
정을 담아 술을 붓는 내 딸아
이 아버지가 너를 키웠다고만 생각지 말아

네 태어나고 자라난 산원과 유치원
대학의 그 창가들마다엔
장군님의 따사로운 해빛이
언제나 은혜롭게 넘치고있었거니

그 사랑, 그 은덕 길이 잊지 말고
우리의 운명 우리 삶의 품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진정 다해 받들어다오

간직해다오
하나로 합쳐지는 두 심장
펼 펼 끓는 쇠물처럼

한생 뜨겁고 열렬하게
천길 땅속에서 솟구치는 샘물처럼
한생 맑고 깨끗하게

장군님을 받드는 한길에서
영원히 번심을 모르는
선군혁명동지가 되어다오

이제 가정이라는 작은 배를 못고
너희들이 노저어갈 생활의 대양
그 대양으로의 길은
강성부흥의 노을속에 창창히 펼쳐졌거니

하지만 탕개를 늦추지 말어라
때로는 비바람에 파도가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힘이 진해 주저앉을 때도 있으려니
손에 손을 맞잡고 힘껏 노저어나간다면
그 무엇이 두려우랴

내 바라노라
너희들이 타고가는 그 배에
늘 화목과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너희들의 그 기쁨과 행복이
온 마을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를

내 당부하노라 너희들이 떠밀어가는 그 배가
한 가정만을 위한 작은 배가 되지 말고
온 나라를 위한 행복의 배
강성대국 내 조국을 위한
애국의 큰 배가 되기를!

인간의 가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원한다
백년토록 오래오래 살기를
그리고 번영하는 조국과 더불어
한생을 값있게 살기를

허나 남기는
삶의 자옥은 하나같지 않거니

누구는 나라를 받들어
탄전에서 시대의 영웅으로 한생을 빛냈고
누구는

자기 심장의 불, 정신력의 불로
우리 식의 최첨단전기기로에 불길을 지켰더라

또 누구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지켜
사나운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거늘
하지만 없었던가
조국이 어려움을 겪던 나날에
저 하나만을 위해 뛰어다닌 그런 사람은

하여 누구는 인생을
웃으면서 떳떳이 마무리하는데

누구는 뒤를 돌아다보며
뼈아픈 후회만 남기더라

아, 사람마다
인생의 출발점은 어긋비슷하건만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 종착점은
어찌하여 이렇게도 서로 다른것인가

어디에 있거나 인간의 가치는
오래오래 사는데 있거나
안락을 누리는데 있거나

아니여라
순간을 살았어도 조국이 기억하는 인생은
값있는 인생
머리가 회도록 오래 살았어도
저 하나만을 위해 산 인생은
부끄러운 인생, 값없는 인생

오, 내 만일

조국을 위하여 해놓은것도
남길것도 없게 된다면
한생을 헛되게 산
그 얼마나 가련한 인간이 되랴

허나 나는 결단코 그렇게 살지 않으리
조국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간으론
한생을 헛되게 산 가련한 인간으론

그렇다 인간의 가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가에 달려있거니

가장 깨끗하고
가장 뜨거운 진정을
조국에 고스란히 바치는
아, 그런 참된 삶의 자욱자욱은
영생의 언덕에 빛나리
선군조국의 력사에 길이 남으리!

상식

콩크리트잠수함

어느 한 나라 해군의 수중비밀무기인 콩크리트 잠수함은 이전의 금속제잠수함과는 다르다.

독특한 재료와 구조설계로 지금까지 도달할수 없는 잠수깊이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위력을 가지게 하여 《신비한 물밑유령》으로 불리우고있다.

이 잠수함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한계를 초월하는 잠수깊이

이 잠수함은 콩크리트로 만들었으므로 자체의 질량에 의하여 가장 깊은 바다밑까지 침하할수 있는데 보통잠수함의 18 000ft(550m)의 잠수깊이한계를 훨씬 초과하여 소리가 없는 야수와 같이 전투에 참가할수 있다.

— 독특한 은폐기능

이 잠수함의 콩크리트선체는 각종 음파와 전자기파를 효과적으로 흡수, 산란시킬수 있고 잠수함의 추진계통에는 각종 선진적인 기술을 리용하였으므로 소음을 크게 낮추어 적측의 초음파탐지기와 레이다에 잘 걸리지 않는다.

— 우월한 동력 및 조종계통

이 잠수함은 콩크리트선체안에 설치되어있는 전지를 동력으로 한다. 보통잠수함과 다른것은 질량제한이 없는것이며 작은 갑실을 많이 가질수 있도록 잠수함의 내부공간을 크게 확장하였다. 동시에 각종 현대화된 최신자동조종기술을 리용하

였으므로 적은 수의 선원으로 배를 관리운영할수 있다.

— 신기한 항행속도

이 잠수함은 독특한 외형으로 설계되었는데 선체량측에 미끄럼날개를 설치하였으므로 앞으로 전진할 때 《물힘》이 생긴다. 또한 한가지 새로운 저항감소기술을 리용하였는데 잠수함의 앞방향에 기포를 발생시켜 잠수함이 기포속에 잠기게 하여 수중항해시 저항을 최소로 낮출수 있게 하였다. 때문에 이 잠수함의 속도는 보통잠수함의 한계속도인 6Kn를 훨씬 넘는다.

— 위력한 공격력

이 잠수함의 침하심도가 매우 깊기때문에 어뢰 발사각도가 다른 잠수함보다 훨씬 크고 잠수함밖에 음향식별감시장치가 있으므로 물위에 있는 다른 함선의 활동을 잘 감시할수 있다. 또한 각종 선진적인 무기들을 장비하고있는데 그중에는 특별히 제작한 어뢰도 포함되어있다. 이 어뢰의 속도는 초당 100m로서 보통어뢰에 비하여 2배나 빠르므로 어뢰공격을 받는 함선은 거의나 그것을 발견할수 없으며 또 피할 시간적여유도 없다.

전문가들은 수중비행기의 원리에 근거하여 설계개발한 이 잠수함이 해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것이라고 하고있다.

1940년대 전반기 김사량소설의 주제사상적특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화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며 민족문화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적기간 조선인민이 창조한 자랑할만 한 문화적재부에는 해방전 가장 엄혹한 민족수난의 시기에 창조한 문화유산도 들어 있다. 일제의 민족말살책동이 절정에 이르렀던 1940년대 전반기에도 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은 굴하지 않고 온갖 가능성을 다 리용하여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작품들을 써냈다. 여기에서 김사량의 창작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일제통치의 그 암담한 시기에 항일 무장투쟁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신념을 잃지 않고 굴함없이 진보적문인으로서의 량심을 지킨 작가들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중에는 조선인 민혁명군의 전투성공에 고무되어 혁명군에 입대할 시도를 한 작가들도 있었다고 하시며 소설가 김사량을 들어 내세워주시였다. 강렬한 애국애족정신을 지닌 김사량은 위대한 수령님을 도란에 빠진 민족을 구원할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르며 수령님의 친솔부대에 들어가 싸울결심을 품고 만주광야를 헤매다가 수령님부대를 종시 찾아내지 못하고 연안에 가서 **김일성**장군부대를 태양부대라고 칭송한 장편기행문 《노마만리》를 썼다. 이것은 그의 애국애족정신의 집적표현이였다.

김사량은 이러한 투철한 애국애족정신을 가지고 일제의 탄압이 극도에 이른 1940년대 전반기에도 조선의 작가된 사명을 다하려는 지향으로 여러편의 가치있는 소설들을 써냈다.

장편소설 《태백산맥》, 중편소설 《무궁일가》, 단편소설 《물오리섬》이 그러한 작품들이다.

이 소설들에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조선문학의 시종일관한 애국정신이 살아숨쉬고있으며 인민들에게 밝아올 앞날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려는 작가의 강렬한 지향정신이 맥박치고있다.

이 소설들의 주제사상에서 기본은 단말마적발악을 하는 일제의 폭정에 비판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조국해방의 미래에 대한 신념과 락관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억세게 살아나갈데 대한 사상이다.

이러한 주제사상을 집중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작품은 장편소설 《태백산맥》이다.

장편소설 《태백산맥》은 작가가 1940년대초에 근 두달동안 일제경찰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온 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정력적으로 써낸작품이다.

소설은 갑신정변직후를 력사적배경으로 하고있다. 그러나 작품을 읽어보노라면 일제식민지통치의 당대 사회현실이 방불하게 떠오른다.

소설을 펼치면 태백산줄기의 깊은 산중에서 살아가는 화전민들의 비참한 생활모습이 생동하게 안겨온다. 각이한 생활경로를 거쳐 살길을 찾아 산속에 들어온 그들은 여기에서도 삶의 보금자리를 찾지 못하고 절망에 허덕인다. 화전에서 나오는 보잘것없는 수확으로는 목숨을 이어갈수 없는 데다가 무시로 덮쳐드는 자연재해와 여기까지 뻗치는 관가의 횡포에 마적들의 로략질까지 겹쳐 종자까지 빼앗기고 초막도 불타고 사람들은 굶주림과 병마에 쓰러지며 삶의 막바지에서 헤매고있다.

이러한 처참한 광경은 그대로 일제의 횡포무도한 탄압과 략탈로 뜯기울대로 뜯기우고 짓밟힐대로 짓밟혀 절망에 우는 1940년대 전반기 조선인민의 모습의 재현으로 된다.

소설은 인민들의 이러한 비참한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친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로 뭉쳐 삶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는데로 이야기를 끌어나간다. 소설의 사상적지향은 여기에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주인공 윤천일과 그의 두 아들이 서있다. 윤천일은 갑신정변의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정변이 실패한 후 가족을 데리고 이 산속에 들어온 사람이다. 윤천일은 화전민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 의기가 북받쳐 그들을 지켜주고 복된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 떨쳐나선다.

그는 뿔뿔이 흩어져가려는 화전민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세우며 두 아들에게 안정된 삶을 누릴수 있는 복지를 찾아내라는 과업을 주어 떠나보내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화전촌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고 살아가도록 모든것을 다한다. 사냥을 해서 당장 굶고있는 집에 가져다주고 병에 누운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복지를 찾아 떠난 사람들을 기다리다가 지쳐 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관군들의 습격을 목숨걸고 싸워 물리친다.

마침내 두 아들이 천신만고끝에 복지를 찾아내고 돌아오며 화전민들은 윤천일의 인도밑에 한몸

치가 되어 복지로 향해간다. 그들이 당도한 복지는 깊고깊은 산중에 날카로운 벼랑으로 둘러싸여 관군이나 못집승들이 범접할수 없는 천연의 요새였고 땅이 기름지고 아늑하며 풍족한수확을 거둘수 있는 말그대로 복된 삶이 약속된 락토였다.

소설은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어떤 비참하고 암담한 처지에서도 비판하거나 락망하지 않고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로 뭉쳐 역세계 살아나가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고있다.

이것이 이 소설의 기본주제사상이다.

소설에서 인민들이 찾아낸 복지를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천연의 요새로, 풍요한 생활을 담보하는 락토로 묘사한데는 해방된 앞날의 조국에 대한 작가의 이상이 구현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가혹무도한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힘을 합쳐 역세계 살아나갈데 대한 사상은 중편소설 《무궁일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소설은 일본땅에서 온갖 민족적멸시와 천대, 고역과 가난속에 허덕이는 조선사람들이 서로 돕고 힘을 합쳐 어려움을 이겨내며 굳세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있다.

낮선 이역에서 집도 남편도 없이 남의 집 토방칸에서 해산하게 되는 불쌍한 동포녀성을 주인공 최동성을 비롯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친딸이나 친누이처럼 떨쳐나 구원해주는 이야기, 일제가 조선인로동자들을 지옥같은 고역장에 끌어넣고 내몰아도 조선사람들은 순종만 하지 않고 하나로 뭉쳐 감독놈들을 때려눕히곤 하기때문에 왜놈들도 무서워한다는 이야기들은 이 소설의 사상적지향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940년대 전반기의 김사랑소설에서 주목되는 주제사상적특성의 하나는 강렬한 민족의식이다.

이 시기는 일제가 침략전쟁을 발판적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조선을 저들의 《공고한 후방》으로, 조선인민을 온순한 노예로 만들기 위해 조선사람들속에서 민족의식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미쳐날뛰던 때이다. 조선말도 쓰지 못하게 하고 조선사

람의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라고 강박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사람들에게 조선민족의 자각을 높여주고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고심어린 탐구를 하고 작품의 형상에 민족성을 진하게 구현한것은 참으로 애국애족적인것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 민족성은 단편소설 《물오리섬》에서 대동강의 풍치에 대한 묘사와 폐허로 된 물오리섬에 대한 애수에서도 표현되고 태백산줄기의 장엄한 밀림에 대한 웅건한 화폭에서도 풍겨오며 주인공들인 윤천일과 최동성의 인정깊고 의리심이 있고 이웃간에 화목한 성격형상에서도 안겨온다.

특히 장편소설 《태백산맥》에서 화전촌처녀들이 해빛 따사로운 봄날 개울가에서 나물을 다듬으며 각기 자기 지방의 아리랑노래를 부르는 장면은 진한 민족적정서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준다. 몸에는 비록 토스레옷을 걸쳤어도 감출수 없는 젊음이 넘치는 맑은 눈동자에 그리운 고향에 대한 정을 함뱍 담아 노래를 부르는 처녀들, 향토색과 민족적정서가 진한 8도의 《아리랑》이 산촌의 정다운 물소리와 어울려 청아하게 울려퍼지는 형상은 그대로 일제의 단말마적발악으로 목숨을 부지하기조차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역세게 살아가는 조선민족, 가혹한 민족말살책동에도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살아있는 민족정신의 산 화폭으로 된다. 작가는 이 장면을 웅근 한개 절에 걸쳐 전개하여 펼쳐보이고있다.

가혹무도한 일제의 탄압과 수탈, 민족말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시기에 인민들에게 절망하지 않고 역세게 살아가도록 고무하고 민족의식을 강하게 고취한 주제사상적특성으로 하여 김사랑의 소설은 1940년대 전반기 소설문학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고있다.

로민(중국)

세계유모아

가짜눈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의 백만장자가 왼쪽눈을 상한 후 가짜눈알을 해넣었다. 그 가짜눈알은 진짜와 갈라보기 힘들 정도로 신통히 만들어졌다.

백만장자는 흡족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불들어 놓고 자기 눈을 자랑하였다.

어느날 그는 선진적인 한 이름있는 작가를 만나게 되었다.

《난 한쪽눈을 해넣었습니다. 어느쪽이 가짜눈인

가를 당신이 알아맞춰보십시오.》

작가는 그의 왼쪽눈을 가리키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백만장자가 눈이 휘둥그래지면서 물었다.

《당신의 왼쪽눈에는 그래도 약간이나마 선량한 빛이 보이는군요!》

작가가 대답하였다.

시인 박아지와 시집 《종다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

우리 나라 시가문학의 갈피에는 남달리 향토적 서정이 짙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여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긴 시인 박아지와 그의 열정의 시편들도 들어있다.

시인 박아지(본명—박일)는 1905년 2월 함경북도 명천군의 농민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일찌기 문학에 대한 지향이 강했던 그였지만 목숨도 건지기 힘겨운 생활난속에서 그것은 결코 실현될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19살때 외국에 가서 고학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항학열에 불타는 식민지청년을 따듯이 품어주지 않았다. 무섭게 덮쳐여지는 학비난으로 하여 이국의 낯설고 거치른 거리와 골목에서 신문배달도 하고 담배장사도 하면서 문전을 모았지만 배움에 대한 그의 앞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식민지지식인청년의 설움을 안고 피눈물을 뿌리며 중도에서 끝내 교문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던 시인은 그곳에서 로동으로 방랑하다가 1년후에는 반겨주고 따듯이 안아줄이는 없어도 그래도 고국이라고 왜놈들이 살판치는 이 땅에 귀국하였다.

귀국후 그는 목포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중등학교 교원으로 있다가 당시 진보적문학단체인 《카프》에서 활동하고있던 박세영, 송영들과 상봉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카프》의 한 성원으로 되었으며 소년잡지 《별나라》의 편집사업을 하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당시로 말하면 《카프》결성 초기부터 탄압의 마수를 뻗쳐온 일제가 진보적문학, 특히 《카프》에 대한 봉쇄탄압책동이 일층 강화되던 시기였다.

1931년과 1934년 두차례에 걸쳐 《카프》성원들에 대한 검거선봉을 일으킨 일제는 1935년 5월에 《카프》를 강제해산시켰다.

일제의 사촉을 받은 부르주아반동작가들은 또한 《순수문학》을 주장하고 문학의 계급성을 부인하면서 프롤레타리아문학에 도전하여나섰다. 바로 이러한 시기 시인 박아지는 《카프》시인의 한 성원으로서 식민지사회현실에 대한 예리한 비판과 애국정신, 민족적정서를 뚜렷이 반영하는데로 지향하였다. 그는 시단에 등장한 때부터 농민시인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그만큼 농민들속에서 살았고 땅과 함께 호흡하였다.

주체22(1933)년부터 해방전까지 주로 목포와 서울주변의 농촌들에서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창작활동을 벌리는 한편 농민들과 그 자녀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한것은 그가 농민시인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할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그는 인생의 초입에서 시들어가는 이 나라 아동들의 눈물겨운 생활을 반영한 동요 《두부 파는 소녀》〔주체20(1931)년〕, 《언니를 기다리는 밤》〔주체21(1932)년〕, 《목사님과 체비》, 《엄마를 기다리는 밤》〔주체22(1933)년〕, 《눈오는 밤에》〔주체23(1934)년〕, 아동소설 《도련님과 고메가》〔주체21(1932)년〕와 같은 아동문학작품들과 서정시 《갈 땅도 없는 봄은 오지나 말지》, 수필 《세가지 신조》〔주체25(1936)년〕 등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초기 그의 작품들에서는 나라 잃은 설움과 고통의 감정이 《밤》의 정적과 장막속에서 서글프게 울리다가 애오라지 《새벽》만을 기다리는 영원의 감정으로 이어지고있었다. 당시에 창작된 시 작품들은 아동들과 농민들의 생활을 아무런 꾸밈도 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형상하였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활체험의 진지함과 동시에 시인 자신의 인간됨에 기인한다.

시인 박세영은 박아지시집 《종다리》의 서문에서 이렇게 쓰고있다.

《그는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할 때도 시내에서는 살지 않고 서울근교 농촌에서 농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농의 자제들을 위하여 교육사업에 헌신하면서 한편 시창작에 열중하였다. 시인 박아지는 사람됨이 겸허하고 소박한것처럼 일련의 그 시에서 풍기는 진실성과 소박성으로 하여 특징적이다.》

농민들속에서 살면서 농민들의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거기에서 충만된 정서를 그대로 꾸밈없이 소박하게 폭발시킨 시인 박아지였기에 시 《밀행》과 같은 사상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된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낳을수 있었다고 본다.

그는 당시 시작품들에서 단순히 한숨과 눈물만을 섞은것이 아니다. 또 새날이 오기만을 념원한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투쟁으로 새날을 앞당겨야 한다는 반항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바치기도 하였다. 그의 이러한 세계관과 미학관의 질적인 변화는 주체17(1928)년에 창작한 시 《나의 노래여!》에 집중적으로 반영되고있다.

나의 노래여!
너는 무엇보다먼저
참된 인간의 부르짖음이 되고
새날을 가져올 일꾼들의
우렁찬 행진곡이 되어지라

보는바와 같이 시는 눈물과 설음만을 터치던 자기의 노래를 참되게 살것을 바라는 《인간의 부르짖음이 되고》, 《새날을 가져올》, 《우렁찬 행진곡》이 되어야 할것이라는 투쟁과 랑만의 정서로 전환시키고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땅이 없어 한탄만 하고 봄이 와도 설음만이 실리던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제땅을 가진 농민의 세상, 바로 그러한 새날을 앞당겨야 한다는 방향과 의지의 새로운 세계를 노래하고있는것이다.

해방후 그는 서울에서 진보적문학잡지인 《우리문학》의 편집을 맡아하면서 첫 시집 《심화》를 출판한것외 미제와 남조선피로도당의 탄압책동으로 말미암아 거의나 시창작을 하지 못하였다.

당시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의 문화적에속화책동은 매우 극심하였다.

이러한 속에서 시인 박아지의 창작활동도 여지없이 짓밟히게 되었으며 더우기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적지 않은 작품초고와 책들을 소실하였고 원쑤들이 지른 불길에 의하여 심한 화상까지 입게 되었다. 그러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시인 박아지의 인생과 창작활동에서 새로운 전환적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우리 인민군대의 영웅적인 반공적에 의하여 서울이 해방되자 서울에서 창작활동을 하던 시인, 작가들과 함께 공화국의 품, 진정한 조국의 품,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것이다.

바로 그때부터 시인의 가슴은 새로운 신심과 희망으로 불탔고 시창작의 비상한 열정이 끓게 되었다.

전후에 그는 얼마동안 지방행정기관에서 일하다가 당시 조선작가동맹출판사 《조선문학》 잡지 편집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시인의 가슴을 격동시킨것은 왜놈들과 간악한 착취자들에게 빼앗겼던 그토록 소중한 땅을 찾아주시고 협동화의 전변을 가져다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었고 인간도 사회도 자연도 그 면모에서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는 가슴벅찬 현실이었다.

서정시 《행복》〔주체46(1957)년〕, 《고운 싹들 피게 하리라》〔주체47(1958)년〕, 《그림답니다》〔주체47(1958)년〕, 《외곬으로 흐르는 물》〔주체47(1958)년〕, 《열두삼천리》〔주체47(1958)년〕

년〕 등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진 사회주의농촌을 노래한 시편들은 바로 이때의 격동적인 현실을 노래하고있다.

농촌현실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전변을 가슴벅차게 체험하는 시인의 심장속에서 고동친것은 또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 우리제도의 고마움과 추호도 변함없이 끝까지 받들고 따르려는 의지와 맹세였다.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시대의 격동적인 현실을 뜨겁게 감수할줄 아는 작가만이 시대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격조높이 터칠수 있는것이다.

시인은 바로 해방전 설음많은 눈물겹던 생활로부터 근본적으로 다른 해방후의 격동적인 현실에서 받아안은 사상정서적충격을 그대로 터치고있는바 그것은 그 대표적인 시편들인 서정시 《종다리》, 《그이 가시는 곳에 전변이 온다》, 《로동당의 딸》, 《입당》, 《그이 오시던 날》, 《9월의 사상》 등에 맥박쳐 흐르고있다.

땅과 함께 봄의 서정을 열정에 불타 터치던 시인, 이 땅의 환희로운 현실을 안아오시고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그리고 위대한 당,고마운 제도를 열정에 넘쳐 격조높이 뿔어내던 시인 박아지는 주체48(1959)년 6월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의 시는 오늘도 살아서 용암처럼 끓고있다. 당에서는 그가 사망한 후 생전에 남긴 시작품들을 종합하여 개인시집을 출판하도록 은정깊은 사랑을 돌려주었던것이다.

시집 《종다리》는 이렇게 태어났다. 이 시집으로 하여 그는 비록 떠나갔어도 오늘도 주체시가 문학의 갈피속에서 그의 열정의 숨결이 그대로 세차게 맥박쳐 흐르고있는것이다.

시인 박아지는 시들을 진실하고 이채롭게 쓴 시인이었다.

소박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진실하면서도 특색이 있고 아담하면서도 간명하고 매력있는 시, 정교하고 유연한 운율로 정서적굴곡의 조화로운 시로 창작하였다는데 그의 시문학의 총적평가가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시인 박아지, 그가 주체문학의 시단과 함께 영생할수 있는것은 다만 그의 시적재능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인의 재능과 열정을 귀중히 여겨주고 아껴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자애로운 사랑과 크나큰 은정이다.

고려실

심장병발작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

심장병환자들은 예상치 않게 갑자기 심장박동이 멎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몇분내로 손을 쓰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실천적경험은 4~6분사이에 재빨리 손을 쓰면 소생시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누군가가 갑자기 넘어지면 먼저 맥박과 심장박동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맥박이 있으면 환자의 발을 몸보다 60cm정도 높여주고(중요장기로 피가 많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구급차를 부른다. 맥박이 알려지 않으면 심장박동이 멎었는가를 의심하며 곧 숨길이 막히지 않았는가를 알아보고 막히었으면 그 근원을 없애버린다.

심장박동정지에서 소생된 환자들을 보면 대체로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박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고 기침을 할수 있는 경우에는 한두번 세계 기침을 하게 한다.

기침을 세계 하면 약한 생물전류가 생기는데 이것에 의하여 심장물동이 이루어진다.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가슴이 활랑거리

고 머리가 펑 도는 느낌이 있는 경우 한두번 세계 기침을 하면 심장이 뛰는데 좋은 영향을 준다. 기침을 하고 숨을 내쉴 때에는 배힘살의 수축에 의하여 횡격막이 가슴안으로 밀려올라가 심장과 대동맥피줄에 압력이 조성된다. 따라서 뇌와 다른 장기로의 피흐름이 촉진되고 산소공급도 진행된다. 기침을 하고 숨을 들이쉴 때에는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데 온몸으로부터 우심실제로 피흐름이 촉진되고 산소공급도 진행된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넘어진 후 1분 이내에 주먹으로 가슴의 가운데부분을 1~2번 두드린다. 두드리는 부위는 흉골옷쪽의 $\frac{2}{3}$ 근방이며 15~20cm의 높이에서 두드린다. 만일 몇번 두드려서 맥박이 회복되지 않을 때에는 처음보다 더 세게 두드린다.

심장이 뛰지 않을 때 가슴을 두드리면 어떻게 되어 심장이 다시 뛰는가에 대해서는 잘 해명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기계적인 자극으로 심장의 물동장애가 해소된다고 보고있다.

조선속담

농사

- 발에 풀이 무성하면 범(호랑이)이 새끼친다
- 봄날의 하루가 1년농사를 결정한다
- 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 굶는다
- 사람의 눈은 속여도 땅은 속이지 못한다
- 사람의 입은 농군이 친다
- 종자는 신랑색시 고르듯 하라
- 치산치수는 농사의 대본
- 하늬바람에 곡식이 모질어진다
- 하지를 지나면 밭을 물고에 잠그고 잔다

세계유모아

화가와 평론가

한 화가가 식당에서 자기의 최신작품을 신랄하게 비판한 평론가를 만났다.

《그림을 평가하려면 우선 자신이 그림을 잘 그려야 하지 않을까요?》

화가가 평론가에게 물었다. 평론가는 화가의 가시돋힌 말을 듣고 천천히 대답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한평생 닭알이라는것을 낳아보지 못했지만 닭알볶음의 맛을 평가하는데서는 어느 암닭보다도 훨씬 낫다는것을 당신도 알거요!》

세계탐정문학의 발생발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이밖에도 현대문학이 개척한 우수한 형상수법과 소설의 여러가지 형태를 주체적립장에서 받아들여 다양하게 리용하여야 한다.》

현대탐정문학은 추리와 판단을 기본으로 하는 추리문학으로부터 발생하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추리소설을 쓴 작가는 애드거 앨런 포우(1809—1849)로 보고있다.

포우는 《모르그거리의 살인사건》을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을 써서 추리에 의하여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문학형식을 만들어냈다.

그후 프랑스작가 에밀 가보리오(1832—1873)가 《르꼬끄탐정》(1869)을 비롯한 여러편의 소설을 씀으로써 19세기 중엽 추리소설분야에서 중요한 진보를 이룩하였다.

가보리오가 쓴 소설의 특징은 처음부터 범인을 체포해놓고 비밀을 밝혀내는 수법을 쓰고있는것이다. 그의 소설은 범죄를 감추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는 범인과 그 범죄의 내막을 속속들이 들추어내는 형사사이의 심각한 두뇌싸움으로 일관되어있다.

추리소설을 문학형식으로 완성한 작가는 영국작가 코넬 도일(1859—1930)이다.

그의 소설의 주인공 살로크 홈즈는 사건을 풀어나가는 비상한 추리력과 뛰어난 기지로 하여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있다.

포우가 음산하고 공포분위기가 떠도는 추리소설을 썼다면 코넬 도일은 색조가 밝고 해학에 넘쳐 독자들이 친근감을 느낄수 있는 추리소설을 썼다.

그후 프랑스작가 모리스 르블랑(1864—1941)은 종래의 추리소설과는 다른 형식의 소설을 썼다. 말하자면 탐정가가 추리의 논리적판단으로 범죄의 실머리를 풀어나가는것이 아니라 도적이 주인공(루팡)으로 등장하여 놀라운 관찰력과 지혜, 뛰어난 추리력으로 경찰이나 탐정의 추리를 앞질

러 나가는것이다.

그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선행한 추리소설가들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섭취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추리소설을 련이어 창작하였다.

현대탐정문학에서는 추리와 판단을 기본으로 하던 종래의 소설과는 다른 새로운 특징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우선 탐정소설들이 기존탐정소설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 적대되는 두 진영의 세력을 대표하는 국가수반들, 국가권력기구의 주요인물들을 등장시키고있으며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정치적사변들을 취급하고있다.

그것은 또한 주인공들의 무대가 더욱 넓어지고 수행하는 임무가 보다 확대되어가고있는것이다.

뿐만아니라 탐정소설에서 문학성을 높이고 도식주의적인 틀을 마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정치적탐정소설이널리 창작되어 출판되고있다.

최근에는 탐정 및 정치소설을 세계평화를 수호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온갖 범죄를 반대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수단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이 부문 작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있다.

1986년에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세계탐정 및 정치소설협회가 조직되었다.

협회는 애드거 앨런 포우, 코넬 도일, 알렉상드르 뒤마상을 제정하였으며 해마다 우수한 탐정, 정치소설들에 상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협회는 또한잡지 《에니그마》(수수께끼)를 창간하기로 결정하고 꾸바의 수도에서 발간하고있다.

협회는 한편의 탐정소설, 한편의 탐정영화가 수많은 애국자들을 키워낼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범죄를 반대하는 투쟁방법을 가르쳐줄수 있다고 보고있다.

지금 세계탐정 및 정치소설협회조직을 전후하여 환상소설, 정치소설이 모험을 전제로 하고있는 근거로부터 이 작품들도 탐정문학종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있다.

상식

닭알료리 및 가공방법

— 삶은 닭알을 따끈한채로 껍질벗기려면 삶은 닭알을 소금물에 약간 담그었다가 꺼내어 껍데기를 벗기면 잘 벗겨진다.

— 닭알반숙을 맛있게 하려면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거기에 닭알을 깨서 넣으면 흰자위가 풀리지 않고 노란자위를 둘러싼채 반숙이 되어 곱

기도 하고 맛도 있다.

— 삶은 닭알을 썰 때 식칼을 더운물에 한번 담그었다가 썰면 노란자위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 빵을 썰 때도 같다.

대성산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금지와 자부심은 곧 민족적자존심과 민족제일주의의 중요한 표현이다.》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산에 있는 3~5세기의 고구려의 산성이다.

고구려가 수도를 집안으로부터 평양으로 옮기게 되면서 쌓은 산성이다.

이 산성은 고구려의 산성가운데서도 가장 큰것중의 하나로서 자랑스럽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대성산성은 그 높이가 270m 나 되는 울지봉을 중심으로하여 그 주변에 있는 5개의 산봉우리(소문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들의 릉선으로서 련결시켜 쌓은 성이다.

대성산성성벽의 총둘레는 7 076m 이며 총길이는 9 284m 이다. 중요한 곳에는 성벽이 2중, 3중으로 되어있는데 소문봉에서 남문을 지나 주작봉에 이르는 구간은 2중성벽으로서 그 길이가 980m 이며 주작봉과 국사봉사이의 골안에는 3중

성벽을 쌓았는데 그 길이는 1 228m 이다.

성에는 소문봉과 주작봉사이에서 골짜기를 가로지나는 2중성벽의 중심부에 웅장하게 지은 남문을 비롯하여 20여개의 각이한 형태의 문, 성문의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벽의 일정한 지점에 설치한 65개의 치, 지휘처로서 장대 등이 있었다.

대성산성안에는 매우 많은 못이 있었다. 옛기록에 의하면 성안에는 못이 있었으며 그중 4개의 못에 물이 고여있었다고 한다. 최근년간에 조사한데 의하면 170여개소의 못자리가 있다. 못들은 지하수를 리용하여 만든것이 더 많다. 그리고 여러개의 집자리가 있는데 장수봉남쪽기슭에서 길이 80m 나 되는 집자리가 발견되였다.

오늘 이 성은 고구려의 성곽제도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는 의의깊은 유적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허종구